

<AI·바이오·클린테크>

'5년새 시총 3배' 키운 구광모... 'ABC'로 미래사업 재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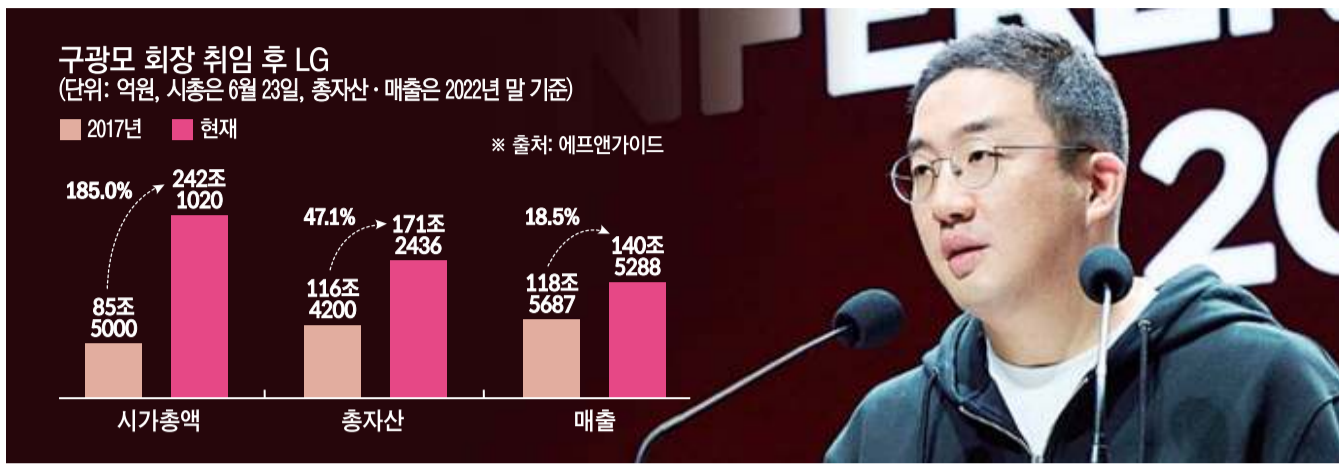
LG '선택·집중' 리더십 적응

취임 5년 앞두고 '가시적 성과' AI·바이오·클린테크 '미래 동력' 관련 분야 54兆 투입 성장 가속

구광모 LG그룹 회장이 29일 취임 5주년을 맞는다. 구 회장은 그룹 경영을 맡은 지 5년 만에 LG그룹의 시가총액을 3배 늘리는 등 가시적 성과를 내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25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등에 따르면 LG그룹의 상장사 시가총액 규모는 구 회장의 취임일인 2018년 6월 29일 기준 85조5000억 원에서 이달 23일 242조1020억 원으로 약 3배 늘었다. 총 자산과 매출 역시 취임일 대비 지난해 말 기준 각각 116조4200억 원에서 171조2436억 원으로, 118조5687억 원에서 140조5288억 원으로 증가했다.

이는 구 회장의 '선택과 집중'으로 비주력 사업을 개편하는 등 LG그룹이 체질



구광모 LG그룹 회장이 3월 16일 서울 강서구 마곡동 LG사이언스파크에서 열린 'LG테크콘퍼런스'에서 오프닝 스피치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 LG

을 탈바꿈했기에 가능했다. 구 회장 취임 이후 LG그룹은 △2019년 연료전지(LG전자)·조명용 OLED(LG디스플레이)·전자결제(LG유플러스) △2020년 편광판(LG화학) △2021년 스마트폰(LG전자) 등 부진한 사업을 정리했다.

돈이 안 되는 적자 사업을 과감히 접은 대신 OLED(유기발광다이오드)와 배터리, 자동차 전장 등 성장 사업에 대한 투자를 늘리며 내실을 강화했다.

LG그룹의 핵심 계열사로 성장한 LG에너지솔루션은 지난해 매출 25조 원, 영업이익 1조 원을 기록하며 연간 최대 실적을 갈아치웠다. 배터리 분야 수주잔액은 지난해 말 기준 385조 원에 달한다.

LG전자의 전장부품 사업을 맡고 있는 VS(전장)사업본부의 경우에도 매출이 꾸준히 늘면서 LG전자 전체 매출비중의 11.7%를 돌파했다. 올해 연간 기준 3000억 원대 영업이익을 거둘 것으로 예

상되며 2분기 역시 600억~700억 원대 영업이익자를 낼 것으로 전망됐다.

그 결과 (주)LG와 LG전자, LG디스플레이, LG화학 등 LG 주요 계열사 7곳의 매출은 2019년 138조 원에서 지난해 190조 원으로 37.7% 늘었다.

LG그룹은 향후 구 회장이 그룹의 미래 먹거리로 낙점한 인공지능(AI)·바이오(Bio)·클린테크(Clean Tech)로 집약되는 'ABC 사업'으로 미래 포트폴리오

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관련 분야에 5년간 54조 원의 국내 투자를 진행하기로 했다.

LG AI연구원이 2021년 말 공개한 초거대 AI '엑사원'은 현재 6000억 개 이상의 말뚝치, 언어와 이미지가 결합된 고해상도 이미지 3억5000만 장을 학습했다. 최근에는 '엑사원 멀티모달'을 활용해 사진·영상을 10초 이내에 텍스트로 설명하는 기술을 소개해 이목을 끌기도 했다.

바이오 분야에서는 혁신 신약 개발을 위해 5년간 1조5000억 원 이상 투자를 단행한다. LG화학은 최근 4개 팀과 40여 명의 연구인력을 갖춘 '세프지리제 테스크포스(TF)' 조직을 가동하고, 올해 1월 미국 아베오를 인수하는 등 혁신 신약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탄소중립과 제품 폐기물 순환체계 구축, 탄소저감 등을 위한 클린테크 사업도 지속 육성 중으로 각 계열사 클린테크 관련 조직을 신설하고 역량 확보에 나섰다.

이다솜 기자 citizen@

尹과 '프·베' 동행한 JY... 다음 출장지는 '선밸리'?

삼성 이재용 글로벌 행보 박차

역만장자 모임 '선밸리 콘퍼런스' 글로벌 거물과 M&A 협상 가능성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프랑스·베트남 출장을 마치고 귀국했다. 글로벌 보폭을 넓히는 가운데 선밸리 콘퍼런스와 구글 캠프 등 해외 출장지에도 직접 나설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25일 재계에 따르면 이재용 회장은 전날 오후 7시 5분께 전세기편으로 서울김

포비즈니스항공센터(SGBAC)에 도착했다. 그는 출장 소감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뜻깊은 일정이었다"고 말하며 미소를 지어 보였다. '부산 엑스포 유치 전망'을 묻는 말에는 "피곤하다"며 즉답을 피한 채 자리를 떠났다.

이 회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프랑스·베트남 순방에 동행해 6박 7일간의 일정을 소화한 뒤 돌아왔다.

이번 출장에서 그는 20~21일(현지시간) 파리에서 열린 제172차 국제박람회기구(BIE) 총회에 참석해 2030 부산세

계박람회(부산 엑스포) 유치 활동을 벌였다. 22일부터는 2박 3일간 윤 대통령의 베트남 국민 방문에 경제사절단의 일원으로 함께했다. 국민 방문 마지막 날인 24일에는 윤 대통령과 함께 하노이 삼성전자 연구개발(R&D) 센터를 찾아 한-베 디지털 미래세대의 대화 시간을 가졌다.

숨 가쁜 일정을 마치고 귀국한 이 회장은 또다시 해외 출장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다음 출장지로는 내달 초 미국 아이다호주 선밸리에서 열리는 '선밸리 콘퍼런스'가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프랑스와 베트남 출장을 마치고 24일 서울김포비즈니스항공센터를 통해 귀국하고 있다. 연합뉴스

선밸리 콘퍼런스는 미국투자은행 앨런 앤드코가 1983년부터 개최해온 비공식 사교 모임으로 흔히 '역만장자 사교클럽'으로 불린다. 전 세계 IT(정보기술), 미디어 등 산업계 거물들이 참석해 인수합

병(M&A)이나 파트너십 등을 논하는 자리로 알려졌다.

이 회장은 상무 시절인 2002년부터 2016년까지 이 행사에 꾸준히 참석했지만, 2017년부터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지난해는 최경식 삼성전자 세트(IT·모바일·소비자전) 부문 북미총괄이 참석했다. 올해 이 회장이 직접 나선다면 7년 만의 참석으로 잠잠했던 삼성의 M&A 시계가 다시금 빨라질 가능성도 있다.

다음 달 24일부터 8월 4일까지 여름 휴가로 법원이 휴정하는 만큼, 이 회장이 장기간 출장에 나설 것이라 관측도 나온다. 특히 8월 초 이탈리아 사실리아 남부 베르두라 리조트에서 열리는 '구글 캠프'에 참석할 가능성이 크다. 이다솜 기자 citizen@

Beyond Korea No.1⁺
국민과 함께 성장하는 국가대표 시험인증기관

산업 디지털 「전환」과 저탄소 기술 「성장」을 선도하는 ktl

ESG경영을 실천하는 KTL은 기술강국 실현을 위해 국가 표준과 인증 기준에 따라 국민 안전과 기업 지원을 뒷받침 하는 든든한 공공 종합 시험인증기관입니다.

산업 디지털 전환

- 인공지능/ 빅데이터 플랫폼
- 스마트제조/ 협동로봇
- IT융합분야 / 디지털 ID
- 스마트홈/ IoT
- 차세대 통신(5G, 6G)
- 소프트웨어·보안

저탄소 기술 성장

- 미래모빌리티/전기차 충전기
- 자율주행/ 기능안전
- 에너지저장시스템(ESS)
- 중대형 이차전지
- 스마트그린산업인프라
- 청정수소/ 차세대 핵심 소재

산업기술·기업지원 분야

- 산업 전분야 시험평가 및 인증서비스
- 전기안전, 기계/ 시스템, 우주·항공, 국방·조선
- 바이오의료헬스, 환경기술, 종합교정솔루션 등
- 국가 시험평가기술 연구개발
- 수출기업 해외인증획득 지원
- KTL 아카데미 기술교육

한국산업기술시험원
Korea Testing Laboratory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1조에 의해 설립된 산하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한 기타공공기관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의한 연구개발목적기관

유네스코 지원 설립
Since 1966

국내 유일 공공
종합시험인증기관

<중기 큰 피해 입은 환율 헤징상품>

‘키코 악몽’ 여전... 중소기업들 “환헤지 상품 못 믿겠다”

환율 ‘안전벨트’ 없어... 위험 노출

지난 2월 1220원대까지 떨어졌던 원·달러 환율은 4월 중순 이후부터 꾸준히 오르다 지난달 1340원대까지 치솟았다. 고공 행진하던 환율은 다시 1286.61원(22일 기준)까지 급락하며 종잡을 수 없는 행보를 보인다. 금융권 전문가들조차도 환율 변동성엔 손사래를 치는 상황에서 중소기업들은 환율로 인한 손익을 예측할 수 없는 변수로 받아들인다.

◇1200~1400원대 등락에 어리둥절=원·달러 환율이 높으면 수출기업의 가격 경쟁력이 생기고, 원자재를 수입·가공해 내수 시장에 판매하는 기업엔 불리하게 작용한다. 수출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그런데 최근 환율 변동성은 이런 예측이나 흐름 파악을 불가능하게 만든다. 1200원대 초반에서 1300원대 중반까지 변동 범위가 너무 넓어서다. 지난해 고점인 1400원 중반도 언제든 지 오를 수 있을 거란 공포감도 여전히 남아 있다.

예컨대 환율이 오르는 시점에 수출기업은 가격 경쟁력이 강화돼 판매량도 늘릴 수 있다. 게다가 계약당시보다 대금 결제일의 환율이 상승하면 달러대금의 원화 환전할 때 수익이 kg늘어나는 효과도 나타난다.

반대로 환율이 내리는 추세라면 가격 경쟁력 하락과 최종 환전 원화대금이 축소돼 실적에 직격탄을 맞는다.

원자재를 해외에서 수입해 가공·판매하는 기업의 경우 수출기업과 정반대의 상황에 놓인다. 환율이 오를 때는 원자재 대금 부담이 가중되고, 내릴 때는 원자재 단가를 낮춰 마진율을 높일 수 있다. 가격은 환율에 따라 마음대로 변경할 수 없는 요소이기

금융위기 때 ‘키코’ 천문학적 손실 대법 “설계 문제 없다” 은행 손 들어

최근 환율 1200~1400원 등락에 기업, 신용 하락·대출 축소 고통

때문에 이익이 됐든, 손실이 됐든 감내할 수밖에 없다. 실제로 환율이 오르면서 제조 원가가 함께 올랐다는 중소·중견기업은 전체의 70%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키코 악몽에 금융 헤징 포비아=중소기업이 환율 헤징 전략을 세우지 않는 이유는 뾰족한 대책이 없기도 하고, 그와 같은 상품이 나온다 해도 믿을 수 없기 때문이다. 많은 기업은 “키코 사태 이후 금융 헤징 상품의 가입을 고려한 적이 없다”고 항변한다.

2006년부터 2008년 초 사이 많은 가입자를 유지했던 키코(KIKO)는 환율이 일정 범위에서 변동하면 미리 정한 환율에 외화를 팔 수 있는 파생금융 상품이었다.

환율이 일정 구간(약 900~1050원 사이) 내에서는 옵션 매입자인 중소기업이 수익을 남기고, 900원 이하 구간에 들어 서면 옵션계약이 무효, 상단인 1050원 이상에서는 손실이 나는 구조였다. 환헤지를 위해 수출 중소기업들이 대거 가입했다가, 2008년 외환위기로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면서 큰 피해를 봤다. 당시 피해기업은 사기상품을 주장하며 소송을 걸었지만, 대법원은 “설계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니다”라며 사실상 은행 손을 들어줬다.

사실 금융상품으로 환헤지를 하려면 기업이 키코 상품의 설계와는 반대로 매도 포지션을 잡아 변동성이 커질 때 대비해야 했고, 은행이 매수하는 식의 설계가

이뤄져야 했다. 실제로는 예기치 못한 환율변동 리스크를 은행으로부터 사 온 셈이 됐다. 이 사건 이후 중소기업들은 환헤지 금융 상품에 대해 피하기 시작했다.

◇환율 급변에 수출기업 신용도 하락=극심한 환율변동은 수출기업들의 신용도 하락까지 불러왔다. 은행들은 환율이 크게 움직이면서 환율 민감도가 높은 수출기업들의 대출을 축소했다. 건전성 악화를 우려해서인데, 시중은행 한 곳은 대출을 1년 연장할 경우 잔액 10% 이상을 갚는 의무상환비율을 신설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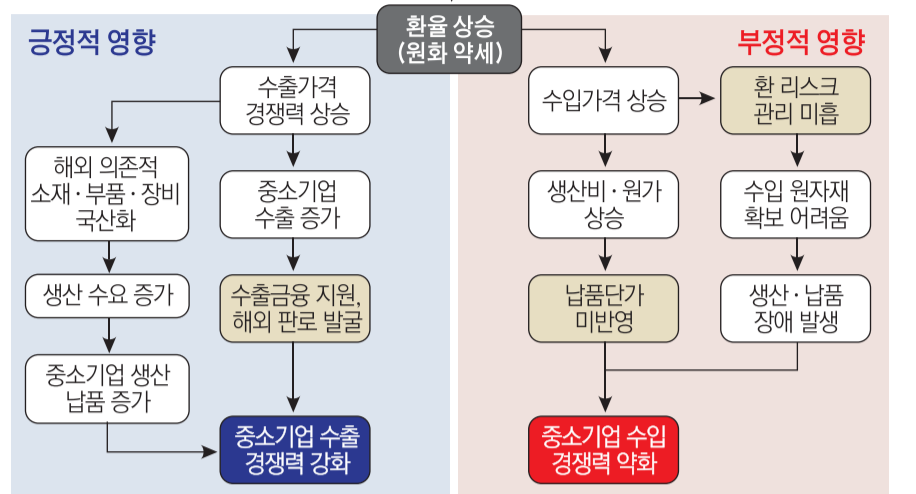
한 대형 시중은행은 3월 ‘외화운전자금 대출 의무상환비율’을 도입했다. 상환 비율은 1년 이내일 경우 여신잔액(한도거래의 경우 약정금액)의 10%, 6개월 이내는 5% 이상, 3개월은 5% 미만이다. 대상은 신용등급이 BB- 이하인 중소기업이었다. BB- 신용등급은 통상 상거래를 위한 신용능력이 보통이나 경제여건, 경영환경 악화 시 부실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기업을 말한다.

김우람 기자 hur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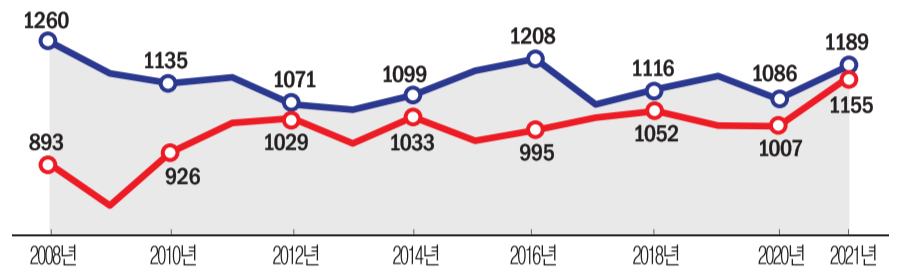
환율상승이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

美 금리인상 및 강달러 지속

※ 출처: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원달러 환율과 중소기업 수출액 (환율(원) - 수출액(억 달러) ※ 출처: TRASS, 기획재정부



‘환변동 보험’으로 리스크 대응

정부 ‘수출 바우처’ 한도 내 지원 환차손 막고, 환차익 일부 건기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은 중소기업들이 수출입 과정에서 환율 변동 리스크에 대응할 수 있도록 환변동 보험 가입을 지원하고 있다.

25일 한국무역보험공사에 따르면 지난 5월 중소중견기업의 환변동보험 가입금액은 1382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616억 원)보다 124% 증가했다. 환율이 요동치면서 보험 가입액도 오르내렸다. 올해 누적액은 전년 동기 대비 4% 감소한 5916억 원을 기록 중이다.

환변동 보험은 수출이나 수입을 통해 외화를 받거나 지급하는 과정에서 환차손익을 제거하고 사전에 외화 금액을 원화로 확정시켜 환율변동에 따른 위험을 헤쳐주는 상품이다. 수출기업은 환율이 하락하면, 수입기업은 환율이 상승하면 손해를 볼 수 있는 위기에 노출되는데 환변동보험을 통해 환차손을 보전받을 수 있도록 한다. 대체로 환율이 오르면 가입자가 늘어나는 경향을 보인다. 지난해에는 환율이 치솟으면서 보험 가입액이 1조 2873억 원으로 최근 5년 중 가장 높았다.

환변동 보험을 이용하면 청약 시점부터 일반수출거래는 1년 6개월, 중장기 수출계약 건은 3년 6개월까지 환리스크 헤지

가능하다. 일반형은 환율하락 시 손실을 보상하는 대신 환율이 상승하면 이익금도 내도록 돼 있다.

환율 상승에 따른 이익금 납부 의무를 면제해주는 옵션형도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보험료가 비교적 높아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실질적으로 이용하기는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환수금 부담이 있는 일반형은 0.02~0.03% 수준으로 결제 기간이 짧을수록, 기업의 신용등급이 높을수록 저렴하다. 반면 옵션형의 평균 보험료율은 평균 2% 수준에 달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4000여 개사를 대상으로 하는 수출바우처 사업을 통해 환변동 보험 이용을 돕는다. 올해 시작한 ‘글로벌 강소기업 1000+ 프로젝트’에 뽑히면 수출바우처사업에 자동 선정되고, 시중은행 10개사에서 외국환 거래 시 환율 우대 등을 지원한다. 각 지방 중소벤처기업청은 기존 중소·중견 환변동 보험료 할인율에 30% 추가 할인을 안내한다. 전국 지자체도 환변동 보험료를 지원한다.

정부 관계자는 “결국 환율 변동에 대해서는 헤지해 주는 방법 말고는 없는데, 헤지는 이익을 볼 수도 있지만 손해를 볼 수도 있다”며 “수출 바우처 지원 사업을 통해 바우처 기업으로 선정되면 바우처 한도 내에서 환변동 보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정도로 접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수현 기자 int1000@

We Connect Science

World EXPO 2030 BUSAN, KOREA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LG가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은적도 없이 사라질 수 있어야 과학이다

지구의 내일을 위해 화학이 해야 하는 일은 무엇일까? 생분해 플라스틱으로 자연에 흔적을 남기지 말자. 과학으로 지구의 내일을 구하자. LG화학은 과학으로 미래를 만들고 있습니다.

LG 화학

〈청년희망적금〉

‘10% 이자’ 준대도 2년 못 채우는데... ‘5년 유지’ 가능할까

정부정책 왜 번번이 실패하나

#경기도 용인시에서 직장을 다니는 김모(25) 씨. 평소 목돈 마련을 위해 적금가입을 계획하고 있었던 차에 연 6%대 금리의 청년도약계좌를 신청하기로 마음먹었다. 하지만 상품 안내를 받고 ‘5년’간 70만 원을 꼬박꼬박 넣어야 한다는 것이 마음에 걸렸다. 조만간 혼자 살던 집에서 나와 언니와 같이 살기 위해 더 넓은 전셋집을 마련해야 해 자금 사정도 빠듯했다. 김 씨는 “일단 가입 신청은 했지만, 매달 얼마나 넣을 수 있을지 잘 모르겠다”며 “형편이 되는 청년을 위한 상품 같다”고 토로했다.

이달 출시된 청년도약계좌가 예상 밖으로 흥행에 성공했지만, ‘청년층 자산 형성’이라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앞서 시행 중인 청년희망적금,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청년형 소장펀드) 등 비슷한 성격의 정책금융상품 실적 ‘용두사미’에 그쳤기 때문이다. 이들 상품보다 만기가 더 긴 청년도약계좌도 중도 포기 없이 끝까지 살아남는 계좌가 많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만 19~34세 청년을 대상으로 시행 중인 정책성 금융상품에는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형소득공제 장기펀드 △청년희망적금 △청년도약계좌 등이 있다. 이 중 특히 청년층 ‘자산 형성’을 목표로 내놓은 정책금융 상품들의 성적표는 초라하다. 지난해 2월 출시된 청년희망적금은 연 최고 10%대에 달하는 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내세워 돌풍을 일으켰다.

문제는 만기까지 6개월이 넘게 남은 시점, 목돈마

청년희망적금 4명 중 1명은 ‘중도 해지’ ‘3년 의무보유’ 청년형소장펀드 가입 폭 ‘5년 만기’ 청년도약계좌 초반 흥행에도 생활 변화 큰 2030 ‘만기수령’ 미지수

련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는 청년의 수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5월 말 기준 청년희망적금 중도해지자 수는 68만4878명에 달했다. 중도해지율은 23.7%로, 지난해 6월 말(6.7%)보다 17%포인트(p) 급증했다.

청년형 소장펀드도 상황은 비슷하다. 청년형 소장펀드는 총급여액 5000만 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액 3800만 원 이하인 청년이 최대 600만 원 한도 내 납입금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게 해 자산 형성을 돕는 정책금융상품이다. 앞서 3월부터 시중은행, 자산운용사 등이 앞다퉀 상품을 출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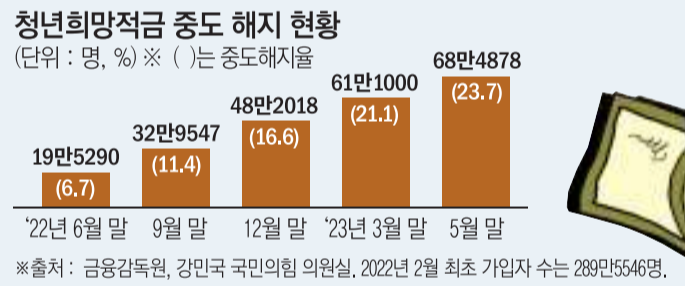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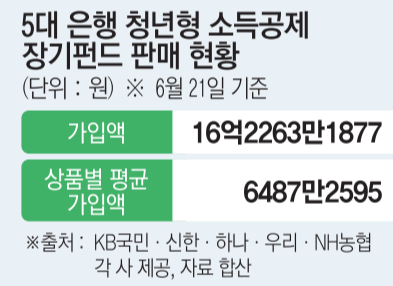
가입 가능 기한이 6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았지만, 가입액 규모는 크지 않다. 이달 21일 기준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이 판매하는 청년형 소장펀드 가입액은 총 16억2263만 원으로 집계됐다. 이들 은행에서 판매한 총 18개 펀드 중 가입 규모 상위 3개 펀드의 가입액이 10억7093만5028원으로 전체의 약 66%에 달했다. 한 시중은행의 개별 상품 중에는 가입액이 500만 원에 그치는 펀드도 있다.

가입이 저조한 원인으로는 ‘3년 의무 보유’ 조건이 꼽힌다. 청년형 소장펀드는 최소 3년 이상 가입을 유지해야 하고, 그 전에 해지하면 그동안 소득공제로 감면받은 세액 한도 내에서 저축 납입액의 6.6%만큼 내야 한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시중에 원금 손실 위험도 없으면서 수익률이 괜찮은 적금 상품이 있기 때문에 3년 동안 유지해야 하는 펀드 가입은 저조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청년희망적금(2년)과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3년)보다 만기가 긴 청년도약계좌(5년)의 유지율이 관심사로 떠오른 배경이다. 특히 고금리 상황이 이어져 대출금리가 오르면 청년도약계좌의 목돈 마련 목표 달성도 무산될 가능성이 높다. 대출을 갚기 위해 급전이 필요한 청년들이 많아서

기 때문이다. 실제 5대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평균금리 상단이 5.71%까지 치솟았던 지난해 4분기 가장 많은 15만2471명이 청년희망적금을 중도해지했다.

금융권에선 급전 수요가 큰 청년세대의 특성을 고려한 정책금융상품 설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연구원 관계자는 “정부 기여금 등 혜택을 유지할 수 있는 특별중도해지 조건에 ‘결혼, 출산 등 가족관계 변화’를 추가하는 방안 등을 고민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유하영 기자 haha@



생활비 빠듯한데 매달 70만원씩 몇 만원 없어 적금 깨는 게 현실

최고 연 6%대의 고금리 적금. 이달 15일 출시된 청년도약계좌 가입 신청자가 70만 명을 넘어섰다. 초반 성적표로는 나쁘지 않은 결과다. 이 계좌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하나로 5년간 매달 70만 원 한도로 적금하면 지원금(월 최대 2만4000원) 등을 더해 5000만 원가량의 목돈을 만들 수 있도록 설계됐다. 청년층의 자산 형성을 도와주자는 취지다.

하지만 간간한 우대금리 적용 조건에 실제 최대 금리 혜택으로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청년층은 일부에 그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25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청년도약계좌는 6월 신청 마지막 날인 23일 오후 2시까지 약 70만9000명의 가입자를 끌어모았다. 서민금융진흥원은 6월 가입 신청 청년을 대상으로 개인소득·가구소득 충족 여부 등 소득 확인 절차를 시작했다. 가입이 가능하다고 안내받은 청년은 1개 은행을 선택해 다음 달 10일부터 21일까지 계좌 개설(1인 1계좌)을 하면 된다.

청년도약계좌는 6000만 원 이하·가구 중위소득 180% 이하 조건을 충족하는 만 19~34세 대상으로 최고 6.0%의 금리를 제공하는 정책금융상품이다. 다만 모든 우대금리 요건을 만족해 6%의 금리를 받고, 월 70만 원씩 부어야만 5년 뒤 5000만 원을 모을 수 있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

취지는 청년층 자산 형성 지원이지만 사회 초년생 평균 월급 252만원 불과 우대금리 조건도 까다로워 ‘그림의 떡’

협)에서 6% 금리를 받기 위해서는 기본금리 4.5%에 △총급여 2400만 원 이하 △종합소득과세에 합산되는 종합소득 1600만 원 이하 △연말정산한 사업소득 1600만 원 이하 등 소득우대금리(0.5%)를 더해 은행별 우대금리(1.0%) 요건까지 모두 충족해야 한다.

청년들 사이에서는 사회 초년생 월급에서 한 달 70만 원을 저축하는 것부터 어렵고, 5년이라는 시간이 너무 길다는 비판이 나온다.

국무조정실이 발표한 ‘2022년 청년 삶 실태조사’에 따르면 경제활동 중인 우리나라 청년(만 19~34세)의 월평균 임금은 252만 원(세전)이다. 이 중 식비, 월세, 세금 등 생활비로 지출하는 금액은 월 평균 161만 원이다. 여기에 평균치보다 소득이 적거나 대출이 있다면 월 70만 원 저축은 빠듯할 수밖에 없다.

청년도약계좌가 사실상 부모의 돈을 받고 살면서 월 70만 원을 꼬박꼬박 낼 수 있는 청년에게 5000만 원어치 증여세를 면제해주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

청년도약계좌 확정 금리

청년도약계좌 취급 은행	12개
기본금리 (3년 고정)	4.5% (농협, 신한, 국민, 우리, 하나, 기업) 4.0% (대구, 부산, 경남) 3.8% (광주, 전북)
소득 우대금리	0.5%
은행별 우대금리	최대 1.7% (광주, 전북) 최대 1.5% (대구, 부산, 경남) 최대 1.0% (농협, 신한, 국민, 우리, 하나, 기업)

※ SC제일은행은 2024년 1월부터 운영
※출처: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

벼랑 끝 신음하는 청년들

▶먼저 계속

일자리 없는 청년 목돈 마련은 커녕 빚 갚을 돈도 없다

문제는 당장 목돈 마련은커녕 치솟는 이자갚기도 벅거운 청년층이다. 지난해 15~29세 취업자는 400만5000명으로 전년 5월(410만4000명)보다 9만9000명 줄면서 7개월 연속 쪼그라들었다. 특히 비경제활동인구 중 ‘쉬었음’이라고 답한 20대가 지난해 같은 달보다 3만6000명(11.1%) 증가했다.

취업 의사가 있었던 20대 비경제활동인구를 대상으로 최근 구직을 하지 않았던 이유를 물었을 때, 가장 많은 답변은 ‘원하는 임금 수준이나 근로 조건이 맞는 일거리가 없을 것 같아서’(17만3000명)였다.

정부의 정책 지원에도 빈곤층이라고 느끼는 청년들이 여전히 많은 것이 현실이다.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발표한 ‘청년 빈곤 실태와 자립 안전망 체계 구축 방안 연구Ⅱ’에 따르면 전국 만 19~34세 청년 403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청년 3명 중 1명은 자신을 교육이나 주거환경 등에서 ‘빈곤층’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의 27.8%가 자신을 교육 빈곤층, 31.3%가 주거 빈곤층이라고 답했다.

김병주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청년들 삶의 전반적인 분야에서 다양한 결핍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청년 삶의 다차원적 측면을 고려한 정책지원 확대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는 이유다. 대출 신입사원 평균 나이가 30대 초반까지 올라온 만큼 대부분 자격 대상 청년들은 부모가 대신 매월 70만 원씩 불입해 줘야 한다는 것이다.

매달 70만 원씩 내더라도 우대금리를 받기 까다로워 6% 금리를 받기 어렵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우대금리를 받으려면 급여 이체, 마케팅 동의, 카드 실적, 최초 거래 등 은행별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NH농협은행은 가입 월부터 만기 전전월 말까지 카드 실적 월평균 20만 원 이상이면 금리를 연 0.20%포인트(p) 높여준다.

금융당국은 급하게 목돈이 필요한 청년들이 청년도약계좌를 해지하지 않고도 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청년도약계좌에 대한 적금담보대출을 운영하고 있지만, 금리가 일반 신용대출보다 높아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적금담보대출 금리는 기본금리에 대출 시점에 확정된 우대금리, 적금담보대출 가산금리를 더해 결정된다. 적금담보대출 가산금리는 0.6~1.3%로 은행별로 다르다.

예컨대 국민은행의 적금담보대출 최고금리는 기본금리 4.5%, 은행별 우대금리 1.0%에 적금담보대출 가산금리 1.25%를 더해 6.75%다. 지난해 국민은행 신용대출 평균금리는 6.06%로 적금담보대출 최고금리가 0.69%p 높다.

손희정 기자 sonhj1220@

‘핵심파트너’ 베트남과 밀착협력... 尹 ‘아세안 연대구상’ 시동

‘베트남 국민방문’ 성과

윤석열 대통령이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의 핵심 파트너인 베트남 국민 방문을 통해 동남아시아와의 외교적 협력을 강화하고 인도-태평양 전략을 본격 추진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25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22일부터 24일까지 베트남을 국민 방문 하면서 거둔 주요 성과는 지난해 말 수교 30주년 계기로 기존의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에서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된 양국 관계에 걸맞는 협력 강화다. 한국은 현재 호주·캐나다·베트남 등 세 곳과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맺고 있다. 이는 미국과의 동맹 관계를 제외하면 양자 관계에서 가장 높은 단계다. 베트남은 이번에 격상된 한국을 제외하면 그동안 중국·러시아·인도 등 세 국가외만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맺고 있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의 이번 베트남 국민 방문을 통해 지난해 말 베트남 주석이 국민 방문을 통해 제시했던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격상 등 한-베 관계의 발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격상 한-베트남 행동계획 채택 등 경제·안보분야 협력 대폭 강화 ‘인·태 전략 추진’ 발판 기대감

전 방향에 관한 청사진을 구체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로드맵을 마련하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양국은 이번 국민방문에서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의 실질적 이행을 위한 한국-베트남 ‘행동계획’을 마련했다. 양국 외교장관 간에 채택된 행동계획은 이번 국민 방문의 제반 분야 성과를 망라한 문서로, 격상한 양국 관계를 실질적이고 효과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분야별 이행 현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대통령실은 행동계획의 주요 축으로 △전략적 협력 △경제안보 협력 강화 △베트남 맞춤형 개발협력 추진 △인적 교류 확대 등을 꼽았다. 전략적 협력은 국가안보와 지정학적 이슈에 관해 서로 깊은 논의를 해나갈 수 있는 나라끼리 가능한 협력 관계로, 지난 30년간 경제협력을 통해 성장시켜온 한-베트남의 관계는 앞으로

인도-태평양의 평화를 구축하기 위해 안보 분야의 협력에도 나서게 된다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이에 따라 양국은 외교·안보 분야에서 차관급으로만 이뤄졌던 전략적 소통을 강화해 양국 국방장관과 외교장관 간 대화를 정례화하는 데 합의하고, 정치적 신뢰를 바탕으로 방산 분야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해양안보 분야 협력도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양국의 경제적 협력도 보다 강화됐다. 우선, 양국은 자유무역협정(FTA) 특혜 관세 적용을 위한 원산지 증명서를 종이 문서가 아닌 양국 세관 간에 전자적으로 주고받음으로써 양국 수출입 기업의 편의를 개선하기로 했다. 특히, 희토류 매장량 2위 자원 부국인 베트남과 공급망 센터 설립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핵심광물 공급망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것은 미중 패권 경쟁으로 중국의 ‘자원 무기화’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새로운 협력 기반을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정대한 기자 vishalist@



한미동맹 특별전 관람한 윤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서울 종로구 대한민국역사박물관에서 열린 ‘한미동맹 70주년 특별전’을 찾아 방문록에 글을 남기고 있다. 연합뉴스

“책임 다하겠다”는 이낙연 ‘비명계 구심점’ 떠오르나

“국민이 나라 걱정” 尹정부 비판도 이재명 리더십 위기 ‘총선 역할론’ 당분간 ‘조용한 행보’ 이어갈 듯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년간의 미국 유학 생활을 마치고 24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한 뒤 지지자들을 가리키고 있다. 연합뉴스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년간의 미국 체류를 마치고 귀국하면서 향후 정치 행보에 당 안팎의 이목이 쏠린다. 특히 “뭣다 한 책임을 다하겠다”는 귀국 일성은 9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제22대 총선에서 당의 승리를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되고 있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전 대표는 전날(24일)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한 자리에서 “뭣다 한 책임을 다하겠다”며 “대한민국이 바로 서도록 여러분과 제가 함께 노력할 것이다. 어느 경우에도 국가를 최우선으로 생각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이 전 대표는 지난해 6월 7일 미국으로 떠나 조지워싱턴대학에서 방문연구원을 지냈다. 이 자리에는 친낙(親이낙연)계 좌장인 5선의 설훈 의원을 비롯해 이개호·김철민·박영순·윤영찬·이병훈 의원 등이 참석했다. 이 전 대표는 “국민이 나라를 걱정하는 지경”이라며 윤석열 정부를 향해 쓴소리도 했다. 이어 “모든 국정을 재정립 하길 바란다”며 “대외 관계를 바로잡아달라”고 당부했다. 다만 그는 향후 계획, 당내 현안에 대한 입장 등 기자들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고 자리를 떴다.

최근 전당대회 돈 봉투·김남국 의원의 가상화폐 투자 사건 등 총선을 앞두고 당이 도덕성에 치명상을 입은 상황에서 이 전 대표의 귀국은 곧 정계 복귀로 해석되는 모습이다. 이 전 대표의 귀국장을 찾은 김철민 의원은 “당이 어려운 상황이니(이 전 대표가) 무엇이 어려운지 본인 스스로 잘 깨치해서 당이 총선 승리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내놓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다만 이 대표는 당분간 당내 상황을 주시하며 최근 펴낸 저서 ‘대한민국 생존전략’ 강연 등 외부 활동과 윤석열 정부 비판 등 지지층 결집 행보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자칫 내부 분열을 야기하거나 이 대표와 대립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는 당 현안 관련 메시지는 내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당 안팎의 대체적인 중론이다. 이미 ‘이재명 체제’에 여러 악재가 내재된 만큼 굳이 가세하지 않아도 현 지도부로부터 내년 총선을 치르기 어렵다는 당내 위기감이 고조되면 ‘대체제’로서 자연스럽게 주가가 오를 수 있기 때문이다.

한 친낙계 의원은 이날 이투데이와의 통화에서 “이 전 대표는 당원들이 의지할 만한 무게가 있는 분이다. 그만큼 당의 분열과 혼란을 초래할 만한 지점에는 서지 않을 것”이라면서 “윤석열 정부의 실정을 지적하고 바로잡는 역할을 적극적으로 하실 것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염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이 전 대표가 당장 이 대표를 대체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며 “다음 총선까지 여유가 있으니 당분간 비명계 구심점으로서 자기 공간을 확대하면서 이재명 체제에 균열이 생기면 리더십을 대체하는 방향을 모색하지 않을까”라고 전망했다. 정효영 기자 moonrise@

BEYOND GUARANTEE

오늘보다 더 나은 미래로

기업의 도전과 성장에 힘이 되는 동반자

KDI 신용보증기금

총선이나, 재정건전성이나... 총지출 증가율 주목

국가재정전략회의 개최 논의

정부가 이르면 이번 주 윤석열 대통령 주재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고 내년 예산안과 총지출 증가율 규모를 논의한다. 건전재정을 국정과제로 내세운 윤 정부지만 내년 22대 국회의원선거(이하 총선)를 앞두고 지출 증가율을 어느 정도까지 확대할지 관심이 쏠린다.

2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번 주 국가재정전략회의를 개최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국가재정전략회의는 내년 예산안과 향후 5년간 재정운용 방향을 논의하는 정부 최고급 회의체다.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고 여당과 정부, 대통령

尹주재 '정부 최고급 회의체' 40兆 핑크에 건전재정 '미지수' "경기·재정 냉철히 진단해야"

실 주요 인사들이 총출동한다. 윤 정부는 건전재정 기조하에 올해 총지출 증가율을 전년 8.9%에서 5.2%로 크게 줄였다. 이는 박근혜 정부였던 2017년 3.7% 이후 6년 만에 가장 낮은 증가율이었다. 다만 내년은 총선이 있는 해인 만큼 지출을 줄이기는 더욱 쉽지 않다.

과거 사례를 보면 통상 총선을 앞두고 정부는 지출을 늘렸다. 2020년 총선을 앞

두고 문재인 정부는 총지출 증가율을 9.1%로 잡았다. 물론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불가피한 지출 확대가 있었다고 해도 총선 대비도 겸했다. 2016년 총선에서는 지출 증가율 자체는 3.0%에 머물렀지만, 전년도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 적자재정에서 균형예산으로 복귀(재정수지악화)하는 등 총선을 대비하는 모습을 보였다.

올해와 내년 경제성장률이 1~2%대로 침체돼 세수가 부족한 상황도 재정건전성 유지를 어렵게 하고 있다. 올해 1~4월 국세수입은 134조 원으로 전년 대비 33조 9000억 원 감소했다. 지금 추세대로라면 연말까지 38조 5000억 원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세수를 362조 원으로 두고 2012년부터 2022년까지 10년 평균 국세수입 증가율 평균인 6.6%를 적용해 내년 세수를 산출하면 385조 9000억 원이 된다. 이는 작년 세수 실적인 395조 9000억 원에 10조 원 못 미칠뿐더러 정부가 애초 계획한 2022~2026년 중기재정계획 상 내년 세수 전망인 418조 8000억 원에는 32조 9000억 원 모자란다.

지출을 수입에 연동하는 원칙을 가장 중시한다면 원칙적으로 내년 총지출은 올해(638조 7000억 원)보다 적어야 한다. 지난해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2~2026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보면 5년간 총지출 평균 증가율은 4.6%이고 내년은

4.8%로 예고한 바 있다. 정부가 다음 해 예산을 발표하면서 제시하는 중기재정운용계획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구속력이 있는 규정은 아니지만, 정부의 예산 편성 때마다 일종의 기준표가 된다.

안도걸 전 기재부 2차관은 최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국가는 세수가 큰 폭으로 꺼지면 우선은 재정지출을 줄이는 방법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며 "그러면 지금의 경기둔화세를 가속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경기와 재정상황을 냉철히 진단하고 재정정책기조를 재검토하는 게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세종=곽도훈 기자 soqood@



로봇과 놀자! 25일 서울 용산구 용산어린이정원에서 열린 로봇과 함께하는 어린이 체험 페스티벌 '로봇 그리고 인간:로봇과놀자'를 찾은 아이들이 4족보행 로봇을 살펴보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제조업 '기지개'... PSI 2개월째 상승

수출에 긍정적 영향 예상

제조업이 살아나고 있다. 제조업 전문가 서베이 지수(PSI) 현황이 2개월 연속 100 이상을 기록했고 전망은 3개월 연속 100을 넘었다. 제조업황이 살아나고 있지만 당장 수출 마이너스를 끊어내긴 무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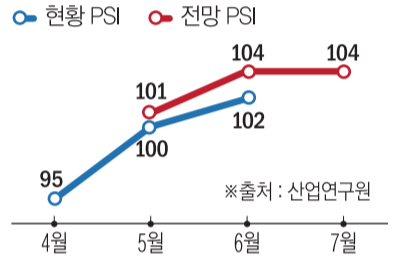
산업연구원은 이같은 결과를 담은 산업경기전문가서베이조사결과 6월 현황과 7월 전망을 25일 발표했다.

전문가 서베이 지수(PSI) 6월 업황은 102를 기록하며 5월(100)에 이어 2개월 연속 100 이상을 기록했다. PSI는 100을 기준으로 0에 가까우면 전월 대비 악화, 200에 가까우면 전월 대비 개선을 의미한다. 특히 7월 업황 전망치도 104를 기록하며 5월(101), 6월(104)에 이어 3개월 연속 기준치를 넘어서며 제조업에 대한 기대가 살아나고 있다.

항목별 PSI를 보면 △6월 수출은 107, 내수는 99, 생산은 99 △7월 전망 수출은 111, 내수 103, 생산 102로 조사됐다.

6월 업종별 업황을 보면 디스플레이 127, 자동차 115로 높았으며 조선(106), 반도체(105), 가전

제조업 업황



(100), 화학(100), 바이오-헬스(100) 등이 100 이상을 기록했다.

제조업황 등이 호전되면서 추후 수출에 긍정적 영향이 기대된다. 다만 당장 이번 달 수출 플러스 전환은 어려워 보인다.

이달 1~20일 수출(통관 기준 잠정치)은 전년 동기 대비 5.3% 증가한 328억 9500만 달러를 기록하며 표면상으로 긍정적인 모습을 연출했다. 하지만 내면을 들여다보면 지난해 6월 7~14일 화물연대 총파업 등으로 수출 차질이 발생했다. 지난해 6월 수출액은 577억 3100만 달러다. 이달 1~20일 수출액은 328억 9500만 달러로 남은 기간 248억 3600만 달러 이상을 수출해야 플러스를 기록할 수 있다. 이 때문에 6월 수출 플러스는 사실상 불가능한 평가다.

세종=박병립 기자 riby@

車·반도체 등 36개 산업, 소수기업 10년 넘게 장악

시장집중도 조사... 쏠림현상 여전

승용차·반도체·휴대폰 등 36개 산업은 10년 넘게 소수기업이 장악하는 독과점 구조가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광업·제조업 시장에 대한 상위 5대 기업집단의 '쏠림' 현상은 여전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5일 발표한 '광업·제조업, 서비스업 등 시장집중도 조사(2020년도 경제총조사 통계자료 바탕)' 결과에 따르면 2020년 기준 광업·제조업 독과점 구조 유지 산업은 승용차, 메모리

용 반도체, 휴대폰, 맥주, 담배 등 51개로 직전 조사 연도인 2019년(47개)보다 4개 증가했다. 늘어난 4개 산업은 가공 및 정제업, 비메모리반도체, 기타산업용 유리제품, 탄소섬유 등이다.

독과점 구조 유지 산업은 5년 동안(2016~2020년) 상위 1개사의 점유율이 50% 이상(CR1)이거나 상위 3개사의 점유율이 75% 이상(CR3)인 산업을 말한다. 이중 메모리용 반도체, 승용차, 화물자동차, 휴대폰, TV, 설탕, 식초 및 화학조미료, 맥주, 화약, 유기발광 표시장치(OLED), 기관차 등 36개 사업은 5회 연속(2009~2020년) 독과점 구조 유지산업

으로 지정됐다. 10년 넘게 변화 없이 독과점이 고착화된 산업이란 얘기다.

공정위는 "이들 산업 대부분은 대규모 장차 산업으로 신규 경쟁자의 진입이 어렵고 소수기업의 시장 장악이 두드러진 분야"라며 "시장 지배력 남용의 가능성에 대해 주시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삼성·현대차·SK·LG·롯데 등 상위 5대 기업집단의 쏠림현상은 여전했다. 전체 출하액에서 상위 5대 기업집단이 차지하는 비중은 29.5%로 6~71대 기업집단 전체 비율(16.4%)보다 월등히 높았다.

세종=서병근 기자 sbg1219@

K-멜론·참외, 12월부터 호주 수출길... "새 시장 더 발굴할 것"

우리 멜론과 참외가 올해 12월부터 호주 수출길에 오른다. 양국 간 검역협상을 마무리하면서 포도와 딸기 등에 이어 호주로 수출 가능한 품목에 이름을 올렸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한국산 참외와 멜론 수출을 위한 호주와의 검역협상이 22일 최종 마무리됐다고 25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2018년부터 검역협상을 진행했고, 이번 협상 마무리에 따라 올해 12월부터 수출 가능하게 됐다. 이에 따라 참외와 멜

론은 포도, 딸기, 양파, 배, 감, 파프리카, 접목선인장에 이어 8번째로 호주에 수출 가능한 농산물이다.

호주로 수출하는 참외와 멜론은 온실에서 재배된 것으로 호박과 실파리의 발생이 없는 12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수출 가능하다. 생산하는 재배지와 선과장 등록, 재배지 검역, 호박과 실파리 무발생 증명, 수출 샘플 검사 등 수출 검역요건을 갖춰야 한다. 현재 참외와 멜론은 약 90% 이상을

일본과 홍콩으로 수출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협상을 계기로 수출국 다변화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명수 농림축산검역본부 식물검역부장은 "이번 검역협상 타결은 신규 수출 시장을 모색하는 참외와 멜론 농가의 새로운 발판이 될 것"이라며 "우리나라 농산물 수출 확대를 위해 새로운 시장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세종=이해근 기자 pinvol1973@

공항 주차장 하이패스 한도 상향

앞으로 김포공항에 비즈니스 라운지가 신설되고 공항 주차장 이용 시 하이패스 결제 한도를 상향한다. 국토교통부는 공항운영 개선위원회 2차 회의에서 공항 이용 서비스 개선에 대한 11개 개선과제를 심의하고 정부 및 공항공사에 개선을 권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공항운영 개선위는 김포공항에 비즈니스 라운지를 설치하는 것을 권고했다. 현재 인천·제주·울산공항에만 비즈니스 라운지가 운영되고 있다. 이르면 내년부터 김포공항 비즈니스 라운지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또 공항 주차장 이용 시 일정 금액(5만원) 이상의 주차요금 발생하는 경우하

이패스 자동결제 적용되지 않아 불편이 컸다. 정부와 공항공사는 관계기관과 협의해 결제 한도를 높이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아울러 여수·원주공항의 여객 주차장을 올해 연말까지 여수는 260면, 원주는 92면 확충하고 맞이방 의자를 추가하며 비정상 운항 항공기 정보 알람을 개선한다. 이외에 지역 연계 환승 관광상품 개발, 액체 쓰레기통 및 화장실 내 분실방지 선반, 종교지원시설 개선, 식당·면세점 등 상업시설 이용 편의 개선 등을 추진한다.

이상일 국토부 공항정책관은 "우리나라 위상에 걸맞은 수준 높은 공항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공항공사, 민간과 함께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개선과제들을 발굴·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곽도훈 기자 soqood@

내일 '하계 다보스포럼'... 시진핑 3기 경제정책 가능자

29일까지 중국 텐진서 개최

리오프닝(경제활동 재개)에도 부진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중국 경제가 어디로 향할지 시장의 관심이 집중된 가운데 하계 세계경제포럼(WEF·다보스포럼)에 시장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25일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매년 중국에서 열리는 하계 다보스포럼이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과 방역 통제로 3년 동안 중단됐다가 4년 만에 텐진에서 개막한다. 투자자들을 비롯한 시장 참여자들은 하계다보스포럼을 통해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의 경제정책 운용 방향을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7~29일 열리는 이번 포럼에는 응고지

과거 포럼처럼 리창 총리 연설

2019년엔 생명보험 규제 철폐

中 고위급, 美 IT 거물 잇단 접촉 경기부진 타개할 기술개발 의지

오른조-이월라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장을 비롯해 전 세계 정·재계 인사와 국제기구 관계자 등 2000명이 참석해 '기업가 정신과 기술혁신'이란 메인 테마와 함께 기후변화 문제에 대한 대응과 팬데믹(전염병 대유행) 후의 소비 행동 등을 논의한다.

그간 중국에서는 총리가 하계 다보스포럼에 참석해 당국의 대외 개방 방침 등 경

제 정책에 대해 연설해왔다. 직전 포럼인 2019년에는 리커창 당시 총리가 증권이나 생명보험 분야에서 외국계 자본 출자 규제 철폐를 표명하기도 했다. 이번에는 올해 3월 취임한 리창 총리가 27일 개막식에서 연설할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이 자리에서 리 총리가 3기째로 접어든 시진핑 정권의 개방 자세 등을 전 세계에 공표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최근 중국에 진출한 기업에서부터 투자자에 이르기까지 대중국 투자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미·중 갈등과 중국 경기부진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중국 내부에서의 규제 관련 불확실성도 여전하다는 평가다. 미국을 중심으로 첨단 반도체 수출 통제 등 대중 압박이 강화하고 있는 것도 기업들의 투자 전략에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중국에 진출한 외국기업(홍콩·마카오·대만 기업 포함)은 전년 대비 0.5% 줄어든 4만3704개사로 집계됐다. 이는 3년 만에 첫 감소세다.

내달 중국에서 간첩 행위 범위를 대폭 확대한 '반(反)간첩법(방첩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당국은 "국가의 안전과 이익"에 관한 정보의 제공이나 수집 혐의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자세한 설명 없이 단속이 가능해지게 된다. 이에 방첩법이 외국인이나 외국기업들의 정상적인 비즈니스 활동을 간첩 행위로 잘못 해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중국 정부는 올해 1월 '제로 코로나' 정책을 철폐한 뒤 경제활동 정상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봄부터 수요가 꺾이면서

회복세가 주춤해지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최근 중국의 내년 실질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5%에서 4.5%로 하향 조정하고 2026년에는 3%대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이런 가운데 중국 정부 고위 인사가 잇달아 미국 기술 기업 수장들을 베이징에서 만나는 것이 기술 부문 개방 정책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시사한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시 주석은 16일 베이징에서 마이크로소프트(MS) 공동 창업자인 빌 게이츠를 만나 과학기술 혁신에서 다른 나라와 협력할 의사를 나타냈다. 이보다 앞서서는 미국 전기차 기업인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최고경영자(CEO)가 지난달 말부터 이달 초 사이 방중해 중국 부총리, 각료 3명 등과 회동했다. 김나은 기자 better68@



미국 낙태권 폐지 1년... 곳곳서 찬반 시위
미국에서 낙태권을 인정한 '로 대 웨이드' 판결을 연방대법원이 뒤집은 지 1년이 된 24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낙태권을 옹호하는 시민단체 회원들이 시위하고 있다. 미국 곳곳에서 이날 낙태권을 놓고 찬반 시위가 벌어졌으며 대선 주자들도 논쟁을 벌였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1년 전 오늘 연방대법원이 국민의 헌법적 권리를 박탈했다"며 "의회가 연방 법으로 낙태권을 보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공화당 대선 주자인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과 론 디센티스 플로리다 주지사는 최근 낙태 금지법을 옹호했다.

미국에서 낙태권을 인정한 '로 대 웨이드' 판결을 연방대법원이 뒤집은 지 1년이 된 24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낙태권을 옹호하는 시민단체 회원들이 시위하고 있다. 미국 곳곳에서 이날 낙태권을 놓고 찬반 시위가 벌어졌으며 대선 주자들도 논쟁을 벌였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1년 전 오늘 연방대법원이 국민의 헌법적 권리를 박탈했다"며 "의회가 연방 법으로 낙태권을 보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공화당 대선 주자인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과 론 디센티스 플로리다 주지사는 최근 낙태 금지법을 옹호했다.

멕시코, 美 GMO 옥수수에 50% 관세

'주식'인 옥수수 품종 오염 우려 美 "자유무역협정 위반" 경고

멕시코가 24일(현지시간) 미국산 '유전자변형농산물(GMO) 하얀 옥수수'에 50%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AP통신이 보도했다.

멕시코 정부는 전날 저녁 관보를 통해 시행령을 발표하면서 "이날부터 관세를 적용하며 이 조치는 올해 말까지 유효하다"고 밝혔다. 멕시코 정부는 인플레이션 대응 차원에서 지난 6개월간 미국산 GMO 하얀 옥수수를 관세 대상에서 제외했었다. 하얀 옥수수는 멕시코 국민 주식인 토르티야 원재료다. 그러나 물가상승률이 지난달 5.84%를 기록, 통제 범위에 들어왔다고 판단되자 면세 범위에서 GMO 흰 옥수수를 제외하기로 한 것이다.

하얀 옥수수가 자급자족이 가능한 곡물이라는 점도 이번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

멕시코는 미국 등에서 옥수수를 수입하고 있다. 특히 소나 동물용 사료에 쓰이는 노란 옥수수의 수입 의존도는 높은 편이다. 멕시코는 흰 옥수수에 이어 GMO 노란 옥수수에 대해서도 비슷한 조치를 고려하고 있다.

멕시코 내에서는 GMO 옥수수가 토종 품종을 오염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미국은 멕시코의 이러한 우려가 과학적 근거가 없으며, 북미 지역 무역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거듭 경고하고 있다. 미국 정부는 USMCA에 따른 법적 대응을 경고하기도 했다. USMCA는 2020년 발효한 미국·멕시코·캐나다 3국 간 자유무역협정이다.

이달 초 캐나다는 멕시코의 GMO 옥수수 수입 제한과 관련해 미국의 요청에 따라 무역분쟁 관련 대화에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가 협정을 위반한 것으로 결론이 나면 멕시코는 무역 제재를 받을 수 있다. 김나은 기자 better68@

에어버스·보잉 '즐거운 비명' 을 1429대 수주

2011년 이후 최대 실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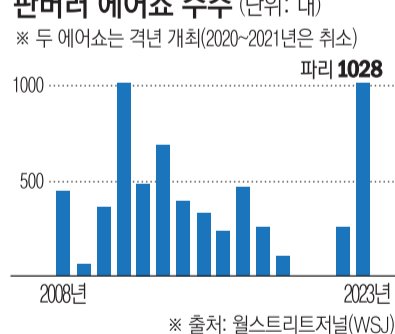
글로벌 항공수요가 빠르게 회복하면서 항공기 제조업체도 다시 활황을 맞이하고 있다. 일각에서 반도체 수급 대란과 맞먹는 항공기 공급 대란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우려할 정도다.

세계 양대 항공기 제조업체인 유럽 에어버스와 미국 보잉이 올해 수주한 항공기 대수가 총 1429대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전염병 대유행) 직전인 2019년 전체 수주량인 1377대를 이미 넘어섰고 2011년 이후 최대 기록을 세웠다고 24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항공리서치업체 에이전 시파트너스 분석을 인용해 보도했다.

에어버스는 지난주 4년 만에 다시 문을 연 세계 최대 항공박람회 파리 에어쇼에서 인도 저가항공사 인도고로부터 '단일통로 모델'인 A320 항공기 500대를 수주했다. 단일 주문으로는 항공업계 사상 최대 규모다.

이보다 앞서 지난달 유럽 항공사 라이언에어가 보잉으로부터 737맥스 항공기를 최대 300대 구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2월에는 에어인디아가 보잉 여객기 220

에어버스·보잉, 프랑스 파리·영국 판버러 에어쇼 수주 (단위: 대)



지금 주문해도 2030년 이후에 인도 "항공 수요만큼 빨리 못만드는 상황" 공급 대란 우려... 중국 약진 가능성

대와 에어버스 250대를 각각 주문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두 항공사는 연초 보잉으로부터 항공기 약 80대를 구입하기로 했다.

기욤 포리 에어버스 최고경영자(CEO)는 "경기둔화는 있지만, 항공사들은 항공 예약 수요가 둔화하는 것을 보지 못하고 있다"면서 "우리가 수요를 충족시킬 만큼 빠르게 비행기를 만들 수 없는 상황"이라고 즐거운 비명을 질렀다.

에어버스의 올해 기세는 매섭다. 에어

버스는 보잉과 수년간 가장 수익성이 높은 모델인 단일 통로 항공기 시장을 양분해왔는데, 올해에는 전체 수주 및 미인도 물량의 62%를 차지하며 앞서고 있다.

관건은 넘치는 수요를 공급이 뒷받침해 줄 수 있느냐다. WSJ는 "항공사들이 수년 넘게 발주한 비행기를 인도받지 못하는 상황이라도 계속 발주하고 있다"면서 "글로벌 항공기 수요와 제조사들의 생산 속도가 충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인도고가 이번에 주문한 항공기는 2030~2035년 사이어나 인도될 예정이다. 이미 보잉과 에어버스는 엔진이나 반도체 등 항공기 제조에 들어가는 부품은 물론 노동력 공급 부족에 생산 제약을 받고 있다.

일각에서는 중국의 약진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중국 국영 항공기 제조사인 중국 상용항공기(COMAC)는 지난달 독자 기술로 만든 C919 여객기의 상업 운행을 개시했다. 중국은 에어버스와 보잉이 양분한 민간 항공기 시장을 3강 구도로 바꾼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포리 CEO는 "2020년대까지는 중국이 엄청난 비중을 차지할 것 같지는 않다"고 내다봤다.

김나은 기자 better68@

EU '태양 반사판' 등 지구공학 기술 도입 고려

기후변화 대응 성명 발표 예정

유럽연합(EU)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공상과학(SF)에서나 볼 수 있었던 기술 도입을 고려하고 있다.

24일(현지시간)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EC)는 28일 기후변화에 맞서 싸우기 위해 기상 조작 등 매우 논란이 많은 기술인 '지구공학(Geo-Engineering)'에 대한 성명을 내용을 예정이다.

FT가 입수한 초안에 따르면 EC는 성명에서 '태양 복사 조정(Solar Radiation Modification·SRM)'을 포함해 인위적인 기후 개입의 위험과 불확실성을 전 세계적으로 분석하고 규제해야 할 필요성을 촉구할 계획이다.

이 성명의 의의에 대해 FT는 "정부기구나 다국적기구나 지구온난화를 줄이기 위한 지구공학 기술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음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첫 사례가 될 것"이라며 "그만큼 EU가 기후변화를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의미"라고 평가했다. 극단적인 시도를 통해서라도 기

지구공학 (Geo-Engineering)

기후변화에 대응하고자 공학 기술을 통해 지구 전체 자연 시스템에 의도적이며 대규모로 개입하려는 시도를 총칭.

후변화에 대처해야 해서 미리 지구공학에 대한 규제의 틀을 마련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가장 논란이 큰 지구공학 기술 중 하나는 인위적으로 지구로 들어오는 태양 에너지를 반사해 온도를 떨어뜨리는 SRM이다. 예를 들어 과학자들은 성층권에 태양 빛을 반사하는 에어로졸 입자를 분사해 태양 빛을 반사하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다.

유엔환경계획(UNEP)에 따르면 이 방법은 분출 후 2년간 지구 전체 온도를 섭씨 0.3~0.5도 떨어뜨렸던 1991년 필리핀 피나투보 화산과 같은 효과를 볼 것으로 예상된다. 그밖에 우주로 햇빛 차양을 발사하는 것도 SRM의 일종으로 연구되고 있다. 배준호 기자 baejh94@

‘용병 一日天下’에 푸틴 휘청... 우크라이나 판도 바뀌나

바그너, 러 진입한 이유는
러 국방장관과 ‘예산 갈등’ 폭발
일부 러 조직 내부협력 가능성도

러시아 내란이 24일(현지시간) 예상과 달리 하루 만에 일단락됐지만,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명성엔 많은 흠집을 냈다는 평이 주를 이룬다. 내년 대선을 앞둔 러시아의 운명과 우크라이나 전쟁 향방이 이번 일로 어떻게 달라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러시아 안팎에선 이번 일을 두고 여러 가설이 제기된다. 바그너(영문명 와그너)가 우크라이나 정보기관 등 외부 지원을 받아 러시아로 들어갔다는 설과 푸틴 체제에 불만을 가진 러시아 내 조직 일부가 은밀히 협력했다는 설이 대표적이다. 세르게이 수블레니 유러피언레질리언스 이니셔티브센터(ERIC) 소장은 일본 니혼케이자이신문(닛케이)에 “바그너가 러시아 남서부를 쉽게 접수한 것으로 볼 때 지금까지 푸틴 체제를 지탱해 온 치안이나 군 당국 관계자 일부가 가담했을지 모른다”고 추측했다.

프리고진 단독 소행이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과거 본지와 인터뷰했던 우크라이나 국제정치 전문가인 제이슨 제이스마

우크라 전쟁·러 항방은
국민 두고 피신한 공권력 신뢰 폭
국내로 시선 돌려 우크라이나 이익

트 정치학 박사는 트위터에 “갈등의 본질은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이 바그너의 예산을 노렸다는 것”이라며 “프리고진은 이 사실을 푸틴 대통령에게 호소할 계획이었지만, 그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국방부가 가뜩이나 지원 부족에 애를 먹는 프리고진을 폭발하게 했다는 것이다.

프리고진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지원 부족을 문제로 푸틴 대통령과 각을 세웠다. 전날 모스크바 북진에 앞서선 “모스크바 군 수뇌부를 모두 축출하겠다”고 선언하기도 했다.

원인이 어찌 됐든 이번 내란으로 푸틴 정권이 크게 흔들린 것은 사실이다. 이제 시선은 우크라이나 전쟁 향방과 러시아 운명으로 향한다.

아르세니야체뉴크 전 우크라이나 총리는 “이번 일로 푸틴 대통령의 시선이 전선에서 국내로 옮겨질 수밖에 없었다”며 “단기적으로 우크라이나군에 플러스”라고 평했다. 나아가 “장기적인 전망은 알 수 없지만, 국내외 막론하고 푸틴 대통령의

추가 내란 가능성은
전문가들, 내년 봄 러 대선 앞 전망
푸틴-프리고진 간 충돌 재연 우려

권위가 크게 훼손된 건 틀림없다”고 강조했다.

이날 바그너가 떠난 로스토프나도누에선 피신했던 러시아 경찰들이 치안 유지를 위해 돌아오자 시민들이 저항하는 일도 있었다. 자신들을 내버려 둔 채 출항당한 공권력에 반기를 든 것이다. 떠나는 프리고진에게 손뼉 치던 모습과 대조적이다.

일련의 이유로 내년 봄 러시아 대선을 앞두고 추가 내란이 있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내란이 다시 일어난다면 그때도 프리고진과 푸틴의 충돌이 될 수 있다. 푸틴 정부가 프리고진에 대한 형사 입건을 취하고 바그너 용병들에 대한 기소도 철회했지만, 전문가들은 분명 숨은 의도가 있으며 이로 인해 추가 움직임이 일어날 것으로 전망한다.

과거 CNN 모스크바 지국장을 지낸 질 도허티는 “푸틴 대통령은 반역자를 용서하지 않는다”며 “프리고진이 어딘가로부터 지원을 받는 한 위협이 될 것이고 이견 푸틴 대통령에겐 딜레마”라고 분석했다. 현재의 러시아를 2차 세계대전 당시 독

바그너의 북상 경로

- 리페츠크주**
이고르 아르타모노프 리페츠크 주지사, 텔레그램에 “바그너 병력이 우리 주 통과”
- 보로네시주 보로네시**
모스크바에서 600km 떨어져 있어, 바그너의 신병 모집 캠프 있는 등 전략적 중요 도시
- 로스토프주 로스토프나도누**
러시아 국방부 사령부 소재지, 우크라이나에 있던 바그너 용병들 러시아 진입

반란 일으킨 바그너 그룹은?

- 2014년 요리사 출신으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최측근인 예브게니 프리고진이 창설
- 러시아 크림반도 병합, 우크라이나 돈바스 분쟁, 바흐무트 점령전 등 투입
- 바흐무트 점령 과정에서 러시아 국방부와 갈등, 계약 거부
- 러시아, 무장반란 혐의로 프리고진 체포령 및 형사 입건
- 24일 화해 후 바그너와 프리고진에 대한 형사 입건 철회

※ 출처: 블룸버그

일에 비유하는 목소리도 있다. 전쟁 말기인 1944년 7월 독일에선 반히틀러파 장교들에 의한 쿠데타 미수 사건이 있었다. 영화 ‘작전명 발키리’로도 잘 알려진 이 사건은 당시 수많은 쿠데타 세력의 축출로 마무리됐지만, 그로부터 1년도 지나지 않아 독일은 패전했고 전쟁도 끝났다.

이번 일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는 목소리도 일부 있다. 미국 외교정책연구소(FPRI)의 로브리 선먼 연구원은 “바그너는 방어보다 공격을 위해 기획됐고 이번 일이 전쟁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칠지는 확실하지 않다”고 짚었다. 고대영 기자 kodae0@

美·우크라이나도 촉각... 젤렌스키 “러 약점 드러낸 지금이 기회”

“방어에 필요한 무기 제공해달라”
바이든, 佛·獨·英 정상들과 통화

러시아 내란에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를 비롯해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서방 국가와 국경을 마주한 국가들도 긴장 상태로 상황을 주시했다.

24일(현지시간) 미국 정치전문 매체 더 힐에 따르면 블로디미르 젤렌스키(사진)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오랜 기간 러시아는 자국의 약점과 정부의 어리석음을 가리기 위해 선전을 이용했고 지금은 너무나 혼란스러워 그 어떤 거지도 숨길 수 없게 됐다”며 “러시아의 약점은 명백해졌다”고 밝혔다. 이어 “러시아가 자국군과 용병을 우리

영토에 오래 들수록 나중엔 더 큰 혼란을 겪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나아가 “전 세계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아무것도 통제하지 못하는 것을 목격했다”며 “지금 방어를 위한 모든 무기를 제공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민간용병 기업 바그너(영문명 와그너)가 러시아 국



경을 넘자 프랑스와 독일, 영국 정상들과 전화 통화했다. 백악관은 “각국 정상들은 러시아 상황을 논했고 동시에 우크라이나에 대한 변함없는 지지를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프랑스 대통령실도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에 계속 집중하고 있다”고 전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와 지리적으로 가

까운 동유럽 국가들은 자국민의 동요를 막고 대비태세를 강화하기 위해 분주해 보였다. 카야 칼라스 에스토니아 총리는 자신의 트위터에 “에스토니아에 직접적인 위협은 없다고 확인할 수 있다”며 “국경 보안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내란이 멈추는 데 중재자 역할을 한 벨라루스는 러시아를 대신해 바그너에 조언하기도 했다. 벨라루스 외무부는 성명에서 “내란은 재앙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고대영 기자 kodae0@

고품격 시니어 매거진
브라보 마이 라이프

노후가 달라집니다!

정기구독 안내 | 1년 정기구독료 10만 원(우편발송료 무료), 날권은 1만 원
정기구독 신청 및 구독문의 | TEL (02) 799-2680 FAX (02) 799-6700 광고문의 (02) 799-6727
이메일 bokyeong@etoday.co.kr 홈페이지 구독 신청 bravo.etoday.co.kr

IRA 광물조달금지 중소기업 범위는... K-배터리 촉각

**추가 세부지침 불확실성 커져
중기업 전체 금지시 美독주 기회
중자본 지분비율만 제한될 경우
탈중국 부담서 숨통 트이지만
美진출 中배터리와 경쟁 불가피**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의 추가 세부지침이 아직 발표되지 않은 가운데 국내 배터리 업체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IRA의 전기차 보조금 요건상 핵심 광물이나 부품을 조달해서는 안 되는 해외우려기업(FEOC)의 규정에 따라 국내 배터리 업계의 대응 방향에도 큰 변화가 예상된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배터리 업체들은 IRA 추가 세부지침 발표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미국 재무부는 3월 공개한 IRA 세부규정에서 FEOC로부터 조달한 핵심 광물이나 배터리 부품을 사용한 경우 전기차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다만 IRA는 미국 인프라법이 규정한 FEOC의 정의를 원용했다. 인프라법에서는 중국·러시아·이란·북한 정부의 소유와 통제·관할에 있는 기업을 FEOC로 봤다. 문제는 IRA의 FEOC에 중국 기업 전체가 포함되는 경우다.

이미 국내 배터리 업체들은 IRA에 대응하고자 호주나 인도네시아, 아프리카 지역 등에 공급망 다변화에 나서면서 '탈(脫)중국'에 들어갔다. 그러나 국내 배터리 업체의 합작사가 중국 업체거나 중국

업체가 지분을 가진 업체인 경우가 많아 추후 발표될 FEOC 세부지침에 따라 제약받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다.

최근 한국 정부는 미국 정부에 FEOC의 정의를 명확히 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투자의 불확실성을 피하고자 중국의 어떤 기업이 FEOC에 포함되는지 명확히 해달라는 요구다. 동시에 FEOC 규정을 만들 때 배터리 공급망 내 특유의 복잡함을 충분히 고려해달라고 요청했다.

업계 관계자는 "IRA를 통해 자국에서의 생산을 늘리고, 전기차 시장을 확대하려는 의도를 가진 미국 입장에서 중국을 100% 배제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중국 지분이 조금이라도 들어가 있으면 안 된다는 식으로 강하게 나가면 배터리 원자재 수급 자체가 어려워지기 때문"이라

고 말했다.

미국 정부가 FEOC 세부지침에서 중국 자본의 지분 비율에 제한만 설정하는 방향으로 견제 수위를 조절할 것이란 업계의 중론이다. 이렇게 되면 한국 배터리 업계에서는 탈중국 부담에서 조금은 자유로워질 수 있다. 중국 기업과의 합작 법인을 통해 배터리 소재를 조달해도 전기차 보조금 기준을 맞출 수 있어서다.

문제는 이 경우 중국 배터리 업체가 IRA의 허점을 파고들며 미국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게 미국 미시간주에 공장 건설을 추진 중인 중국 배터리 기업 '귀시안'의 사례다. 귀시안은 중국인이 설립하고, 중국에 본사를 두고 있지만 독일 완성차 업체 폭스바겐 그룹이 최대 주주다. 사

실상 중국 배터리 기업이지만 지분율만 충족하면 미국 현지에 공장을 세울 수도 있게 되는 것이다.

IRA의 '딜레마'다. FEOC에 중국 기업 전체가 포함되면 한국 배터리 업체는 공급망에서 탈중국을 해야 하는 부담이 있지만 중국이 배제된 미국 시장에서 독주할 기회가 될 수도 있다. 반면 중국 견제 수위가 조절되면 공급망 탈중국에서는 숨통의 트이지만 미국 시장에서 중국 기업과 경쟁해야 할 위험이 커진다.

업계 다른 관계자는 "배터리 업계에서는 중국의 미국 진출을 아예 막는 게 더 도움이 될 것"이라며 "공급망에서 탈중국을 하는 건 비용이 많이 들고 어렵긴 하지만 아예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강문정 기자 kangmj@



'캠핑 필수템' LG 스탠바이미 Go 체험존 LG전자는 내달 5일까지 서울 여의도 '더현대 서울' 지하 1층에서 최근 출시한 신개념 포터블 스크린 'LG 스탠바이미 Go'를 체험할 수 있는 팝업스토어 체험존을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방문객들이 숲속 오두막집 컨셉트의 감성 캠핑 공간에서 LG 스탠바이미 Go를 체험하고 있다. 사진제공 LG전자

〈현대차그룹 회장〉 하노이 국립대 찾은 정의선 “해외석학 초빙 돕겠다”

**현지 자동차 전문인력 육성 의지
현대차-하노이 국립대 협력센터
레 꾸언 총장 “많은 도움 될 것”**

정의선현대차그룹 회장이 베트남 명문대학인 하노이 국립대를 찾아 해외 석학의 초빙을 돕겠다고 제안했다. 이를 위해 베트남 현지에 현대차-하노이 국립대 협력센터도 설립하기로 했다.

현대차그룹은 정 회장이 23일(현지 시간) 베트남 하노이 국립대학교 호아 락캄퍼스에서 레 꾸언 하노이 국립대 총장을 만나 미래 혁신 인재 육성의 필요성과 상호 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고 25일 밝혔다.

하노이 국립대는 세계 대학 평가 기관들에서 베트남 최고 대학으로 꼽히는 명문 대학으로, 현대차그룹을 비롯해 한국 기업 및 대학들과 활발하게 교류하고 있다.

정 회장은 현지 베트남 국회의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는 레 꾸언 총장에게 현대차그룹이 자동차 사업을 통해 베트남 경제·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점과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소개했다.

또 이들은 베트남 자동차산업은 물론 경제 산업 발전에 체계적인 전문 기술 인재 육성이 매우 중요하다는 데서



정의선(왼쪽) 현대차그룹 회장이 23일(현지시간) 베트남 하노이 국립대학교에서 레 꾸언 총장과 만나 아이오닉 5 모형을 들고 기념 촬영하고 있다. 사진제공 현대차그룹

로 인식을 같이하고, 인재를 교육하기 위한 산학 협력 방안에 관해서도 대화를 나눴다.

정 회장은 “하노이 국립대의 자동차산업 산학 협력을 통해 우수한 미래 혁신 인재 육성을 희망한다”며 “현대차그룹뿐만 아니라 많은 협력사가 베트남의 우수 인재를 채용할 수 있게 될 뿐 아니라 궁극적으로 베트남 자동차산업 경쟁력 강화에도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현대차그룹-하노이 국립대 협력센터’를 신설하기로 했다.

정 회장은 면담 말미에 현대차그룹

의 주선으로 해외 대학의 유명 석학을 초빙해 하노이 국립대에서 강의할 수 있도록 하면 학생들에게 좋은 기회가 되지 않겠느냐는 제안을 했다.

레 꾸언 총장은 이 제안에 대해 “현대차그룹의 도움으로 해외 석학이 우리 학교에서 강의할 수 있다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화답했다.

현대차그룹은 베트남 자동차 시장에서 선두권 위치를 공고히 하고 있다. 현대차는 올해 5월까지 2만2903대를 판매하며 도요타를 제치고 판매 1위에 올랐다. 기아는 1만3951대로 4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다솜 기자 citizen@

HD현대, 사우디 선박 엔진공장 착공

**아람코·두수르 합작사 마킨 통해
엔진기술 라이선싱 사업 첫 진출**

국조선해양과 SADCO 등이 합작해 건설 중인 조선소 IMI (International Maritime Industries)도 있다.

마킨은 2025년 4분기부터 본격적인 엔진 생산에 착수한다. 연간 최대 생산 능력은 선박용 대형엔진 30대, 중형엔진 235대, 선박용 펌프 160대이며 친환경 수소에 대응하고자 이중 연료(Dual Fuel) 엔진 생산도 검토 중이다.

HD현대중공업이 독자 개발해 원천 기술을 보유한 중형엔진 ‘힘센엔진(HIMS-EN)’을 해외에서 생산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마킨은 힘센엔진의 첫 라이선싱 사업으로 선박용 엔진시장의 해외거점을 확보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힘센엔진은 선박용 중형엔진(발전) 분야 세계시장 점유율 40% 이상으로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동욱 기자 toto@



HD한국조선해양이 사우디아람코개발회사(SADCO), 사우디 산업투자공사 두수르(Dussur)와 공동 투자해 설립한 엔진합작사 '마킨(MAKEEN)'이 사우디아라비아 라스 알 헤어(Ras Al-Khair)에서 엔진공장 착공식을 가졌다고 25일 밝혔다. 한영석(왼쪽 두 번째) HD현대중공업 부회장이 착공식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제공 HD현대중공업

두산, 베트남 하이정성과 전자소재사업 협력

**두산, PFC 생산공장 증설하고
하이정성은 세계혜택 지원키로**

두산이 첨단 전자소재 제조 기술을 기반으로 베트남 하이정성(省)과 새로운 사업 기회를 발굴한다.

두산은 23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하이정성과 '전자소재 분야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두산은 베트남 하이정성에 있는 PFC(전기차 배터리 최 소단위인 셀을 연결하는 소재) 생산 공장을 증설하고, 향후 추가 투자를 검토

함으로써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하기로 했다. 하이정성은 두산의 투자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세계 혜택 등을 지원한다.

두산은 2020년 베트남 법인을 설립한 데 이어 지난해 10월에는 PFC 양산을 위한 공장을 준공했다.

PFC는 배터리, 도어, 시트, 루프 케 이블 등 전기차 전반에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구리전선을 대체할 수 있는 차세대 전자소재다.

PFC를 전기차에 적용하면 구리전선의 무게와 부피를 80% 이상 감소시켜 경량화, 원가절감, 주행거리 증대가 가능하다. 이동욱 기자 toto@

삼성, 2023년형 TV·모니터에 색약자용 '씨컬러스 모드' 탑재

삼성전자는 2023년 네오(Neo) 신제품 TV 전 모델과 스마트 모니터 등에 색약자를 위한 '씨컬러스 모드'를 기본 기능으로 탑재한다고 25일 밝혔다.

씨컬러스 모드는 색약자들이 볼 수 있는 색상 스펙트럼을 고려해, 스크린에서 보여지는 빨강(R)·초록(G)·파란(B) 빛을 색약 정도에 따라 각각 3단계로 세부적으로 조정하는 기능이다. 설정에서 접근성 메뉴를 선택하면 사용할 수 있다.

이를 통해 TV·모니터의 컬러를 보정해 특정 색상의 인식이 어려운 색약자들이 화면 속 물체를 더 잘 구별해낼 수 있도록 돕는다. 이다솜 기자 citizen@

KB금융그룹 | 국민의 평생 금융파트너

World EXPO 2030 BUSAN, KOREA |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KB국민은행이 함께 응원합니다

학원이나 사교육은
꿈도 꾸지 못하는
어려운 가정환경 속 친구들은
교육의 기회를 얻기가 너무 힘듭니다

내신 1, 2등급은 아니지만,
열심히 공부하고자 하는 친구들을 위해
뜻을 같이하는 선생님들과 멘토,
KB가 힘을 합쳐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였습니다

KB라스쿨 프로젝트
양질의 온라인 강의와 진로 멘토링을 통해
끈덕지게 지원하겠습니다

공부하고자 하는 친구들이
포기하지 않는 한
KB가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늘 곁에, 더 가까이
KB국민은행



KB라스쿨이란?

KB라스쿨은 2008년부터 사교육의 기회가 적은 약 5,200명의 중·고등학생에게 양질의 교육과 대학생 멘토링을 제공해 온 온라인 교육지원 프로젝트입니다

“오프라인 확대·해외 진출… K패션 글로벌 스타 도약”

탐방기UP

온라인 패션 브랜드
이스트엔드

“국내보다 해외로 눈을 돌려 더 큰 시장에서 성장하겠다.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패션 브랜드를 만들어 내겠다.”

김동진(사진) 이스트엔드대표는 25일 서울 성동구 본사에서 본지와와의 인터뷰를 통해 “대만, 일본을 중심으로 해외 진출을 본격화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올해 하반기 오프라인으로 판매채널을 확대하고, 이를 바탕으로 경쟁력과 몸집을 키워 세계 패션시장으로 나가겠다는 구상이다.

이스트엔드(EASTEND)는 2016년 온라인 패션 브랜드의 기업화 및 전문화를 목표로 세워진 스타트업이다. 동쪽의 끝 대한민국에



시티브리즈 등 5개 브랜드 운영
누적 거래액 지난해 기준 500억
자체 공장 보유 기획·생산 강점
130억 유치…M&A로 내실 강화
빅데이터 활용 대만·日시장 도전

서 전 세계 K패션의 인기를 선도하는 패션 브랜딩 기업이 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김동진 이스트엔드 대표는 “스티브 잡스가 자서전에서 ‘나의 현재는 과거가 만들어 낸 점들의 집합체’라고 말하지 않았나”라며 “의류 사업을 하신 아버지, 마지막 직장에서 맡았던 의류 브랜드 인수합병(M&A),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온라인 패션 시장에 대한 믿음, 이러한 점들이 이스트



김동진 이스트엔드 대표는 “국내에서 쌓은 인지도와 경쟁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겠다”고 말했다. 이스트엔드 온라인몰 서비스 화면 캡처.

엔드 창업으로 이어졌다”고 말했다.

이스트엔드는 옷을 단순히 떴어 유통하고, 만들어 파는 일반적인 플랫폼과 거리가 멀다. 자체 브랜드를 육성하고, 동시에 초기 성장에 어려움을 겪는 패션 브랜드를 M&A해 몸집과 내실을 키운다. 브랜드 제작부터 운영, 유통 등 패션 기업의 구조를 만들고 있다. 패션 브랜드의 성장 플랫폼

인 셈이다. 자체 공장을 보유해 상품 기획과 개발, 생산, 마케팅 및 판매 등 전반적인 프로세스가 가능하다. 패션 트렌드 변화에 민감하게 움직일 수 있다는 의미다.

이같은 잠재력을 높이 평가받아 최근 투자 확산기에도 시리즈B 투자로 50억 원을 유치했다. 캡스톤파트너스의 경우 이스트엔드의 후속 투자자로 나섰다. 괄목할만한 성장 가능성을 인정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누적 투자금은 130억 원을 돌파했다.

김동진 대표는 “높은 재고 회전율, 미래 성장을 위한 내부 인프라 구축, 온라인 마케팅 역량 등이 좋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 시티브리즈, 시티브리즈 맨, 아티드, 로즐리, 후머 등 5개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지만, 추가적인 브랜드 M&A 및 인큐베이팅을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스트엔드는 현재 오프라인 매장을 운영하지 않고 있다. 이커머스만으로 이룬 누적 거래액만 작년 기준 500억 원을 넘는다. 연간 90% 성장을 이루고 있다. 대표 브랜드의 경우 10%가 넘는 영업이익을 달성했다.

성장세는 올해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 1~5월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70% 확대됐다. 올해 매출 목표액은 300억 원이다. 하반기부터는 첫 플래그십 매장 등 오프라인으로 판매 채널을 다각화할 계획이다.

김 대표는 국내에서 쌓은 인지도와 경쟁력을 들고 글로벌 시장으로 나갈 계획이다. 스타트는 대만과 일본에서 끊을 것으로 보인다. 중국과 동남아시아 진출도 계획 중이다. 해외 진출을 본격화하기 위해 현지 법인을 설립하고, 물류 인프라도 구축할 예정이다. 빅데이터를 활용해 해외 소비자의 반응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상품을 기획·생산해 차별화된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구상도 세웠다.

김 대표는 “국내 엔터테인먼트 산업이 내공을 쌓으면서 K팝의 주역인 방탄소년단, 블랙핑크와 같은 글로벌 스타를 만들어냈다”며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패션 브랜드를 만들어 내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또 “소비적인 패션보다 지속가능성에 대한 고민이 이어지길 바란다”며 패션 업계의 방향성에 대한 바람도 강조했다. 그는 “재생 원단을 사용한 옷보다 오래 입을 수 있는 옷을 만드는 것이 환경에 기여하는 가치가 더 크지 않나”라는 소신을 전했다. 김동호 기자 sorahosi@

유안타증권
Yuanta Securities (Korea)

Turn on the tRadar

타레이더를 켜세요

끝없이 펼쳐진 사막의 길잡이.
북극성처럼
타레이더가 바른 투자의 길로 안내해 드립니다.

홈페이지 www.myasset.com | 고객센터 1588-2600

※투자자는 금융투자상품에 대하여 설명을 들을 권리가 있으며, 투자 전 상품설명서 등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금융투자상품은 자산가격 변동 등에 따라 투자원금의 손실(0~100%)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금융투자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주식거래시 수수료는 0.065%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레이더는 투자편안을 위한 보조 서비스로 수익달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준법감시인 심사필 제22-324호(2022.07.22~2023.07.21)

롯데렌탈, 중고차 렌탈 비전 제시할까

29일 IR 데이… 사업 전략 관심
중고차 렌탈 시장 진출 등 주목

롯데렌탈이 기관투자자와 애널리스트 등을 대상으로 기업설명회를 개최한다. 이 자리에서 최진환 롯데렌탈 대표가 중고차 렌탈 등 향후 먹거리 사업에 대한 청사진을 내놓을지 관심이 쏠린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롯데렌탈은 29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 호텔에서 기관투자자와 애널리스트 등을 대상으로 CEO IR 데이를 연다. 롯데렌탈은 이날 주요 재무성과와 중장기 사업 목표 및 핵심 전략 등을 발표할 계획이다.

롯데렌탈 관계자는 “중고차 관련 이야기도 있을 것이고, 회사가 앞으로 어떻게 성장할 것인지 비전을 제시하는 시간이 있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시장의 관심은 롯데렌탈이 구제화할 중고차 렌탈 시장 진출 등에 이목이 집중된다. 롯데렌탈은 앞서 1분기 실적 발표에서 중고차 렌탈 사업 진출을 핵심 전략 중 하나로 제시한 바 있다.

롯데렌탈의 사업 중 중고차와 관련해선 경매 등의 매각 부문이 있다. 롯데렌탈은 회당 1500대 경매가 가능한 6만6000㎡(2만 평) 규모의 전시장과 500석 규모의 경매 회장을 자사 렌탈 차량의 매각 채널로 활용하고 있다. 1분기 기준 중고차 매각 대수는 5만3000여 대, 경매 낙찰률은 70%에 이른다.

롯데렌탈은 장기 오토렌탈과 관련해 신차보다 중고차 시장에서 더 큰 사업 기

회가 존재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2018~2022년 신차 등록 대수는 902만 대로 같은 기간 렌터카 침투율은 13.7%다. 중고차는 등록 대수가 1307만 대에 이르는 반면 렌터카 침투율은 0.8%에 불과하다.

롯데렌탈은 중고차 시장 침투율이 낮은 이유로 렌터카사 및 캐피탈사들이 신차 장기렌터카에 집중하고 있는 데다 중고차의 경우 오프라인 위주 판매로 영업 채널의 부재 때문인 것으로 판단한다. 이에 따라 규모와 수익성, 전략적 적합도 등 수직 계열화된 역량을 바탕으로 중고차 렌탈 사업에 진출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롯데렌탈의 이러한 판단에 대해 증권업계 전문가들은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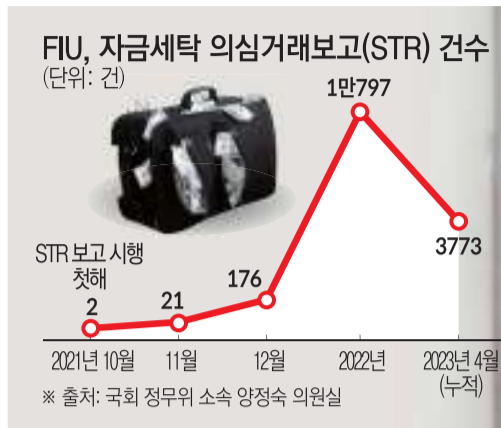
김평모 DB금융투자 연구원은 “롯데렌탈이 렌터카로 인가받은 신차를 3~4년 이후 매각해 중고차 판매 매출로 인식해 왔으나 올해부터는 중고차 렌탈 사업 진출을 통해 6~7년까지 보유 이후 매각하는 비율을 점차 늘려갈 계획”이라며 “렌탈 매출 증가로 외부 변수가 크게 작용하는 중고차 판매의 높은 영업이익 비중을 낮출 것으로 예상된다. 또 수익성이 높은 중고차 판매의 감소로 단기적인 수익성이 다소 낮아질 수는 있다”고 진단했다.

김 연구원은 “하지만 중고차 렌탈 사업으로 인해 롯데렌탈은 차량 1대당 누릴 수 있는 LTV(Life Time Value) 수익성이 증가함에 따라 장기적으로는 중고차 렌탈 매출 증가가 전자 수익성을 견인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조남호 기자 spdran@

〈금융정보분석원〉

바람 잘 날 없는 코인시장... 'FIU 파견' 외면하는 공무원

‘가상자산검사과’ 사무관 4명
정원 9명... 절반에도 못 미쳐
의심거래보고 건수 1만건 훌쩍
하루인베스트·텔리오 사태에
고팍스 신고 수리 등 현안 산적
‘당국 인력부족에 시장 혼란 우려’



서도 매일 천여건을 넘나들며 4월까지 3773건을 기록했다.

FIU는 또 지난해 원화마켓 거래소에 이어 올해 코인마켓 거래소와 가상자산 지갑 사업자 현장 검사에 나서고 있다. 입출금을 중단한 예치·운용 서비스인 텔리오와 하루인베스트와 고팍스 임원 변경 신고 수리도 살펴봐야 한다. 가뜰이나 가상자산 시장을 제대로 규율할 관련법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금융 당국의 인력 부족이 시장의 혼란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가상자산 시장을 검사·감독하는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인력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본래 FIU가 금융위원회에서 인기 부서가 아니었던 데다가, 무소속 김남국 의원 코인 투기의혹을 비롯한 각종 현안으로 업무가 쌓이며 금융위 내부에서 기피하는 분위기가 커졌다는 분석이다.

여기에 최근 하루인베스트·텔리오 사태로 국내 가상자산 예치 서비스에 대한 불안감이 커진 상황이다. 텔리오 사례의 경우 영업 신고를 받아 준 금융당국의 관리 부실 책임이 지적된다. 가상자산 예치 업체는 일정 기간 가상자산을 맡기면 고이율을 붙여주는 사업체를 말한다. 텔리

오는 FIU에 가상자산사업자(VASP) 신고를 마친 업체다.

25일 본지 취재 결과,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신고 수리, 감독·검사 업무를 맡는 FIU 가상자산검사과에는 6월 현재 사무관 4명이 근무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본래 정원 9명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숫자이다. FIU 관계자는 “검사와 사무관은 네티지만 직원들 포함하면 그 이상은 된다”고 말했다.

FIU는 금융위원회의 금융정책·은행·보험과와 달리 본래 인기 부서가 아니었다. 금융위원회 산하 자금세탁방지기구인 FIU에는 △기획행정실 △제도운영과

△가상자산검사과 △심사분석실 △심사분석 1·2·3과 총 7개의 과가 있다.

특히 가상자산검사과는 가상자산 거래소 신고 수리 및 검사부터 이상거래 탐지, 이용자 보호 등 가상자산 시장에 대해 직접적으로 검사·감독을 진행한다. 해야 할 일은 많지만 인원은 부족하고 업무는 과중했다는 후문이다. 또 가상자산검사과는 최근 가상자산 거래소 고팍스의 임원 변경 신고 수리를 촉구하는 고파이 투자자들의 민원까지 시달렸다.

가상자산검사과를 비롯해 FIU의 정원 미달 현상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지난해 국회 정무위원회에 상정된 금융위 예

비심사검토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3월 이후 FIU에 근무하는 현원은 정원 대비 10명 넘게 모자랐다.

문제는 FIU가 다뤄야 하는 각종 현안이 쌓여있다는 점이다. 일단 자금세탁이 우려되는 의심거래보고(STR) 건수가 급증했다. FIU에 보고된 전체 의심거래보고가 늘고 있는 가운데, 가상자산 관련 사업자의 의심거래보고가 크게 늘었다.

정무위 소속 양정숙 의원실에 따르면 STR 보고 건수가 시행 첫해인 2021년 10월에는 2건, 11월 21건, 12월 176건에 불과했던 반면, 2022년에는 1만797건으로 폭증했다. STR 보고 건수는 올해 들어

금융위 사정에 정통한 관계자는 “FIU 뿐 아니라 금융위 인원이 전체적으로 부족하다. 인력을 늘려달라 요구했지만 행정안전부에서 잘 늘려주지 않는다”고 말했다. 금융위가 FIU가 가상자산검사과를 신설할 당시, 국장급 1자리를 포함한 22명의 전담 인력 증원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관계자는 “가상자산사업자가 서른 곳이 넘는데, 검사를 다 한 번씩 나간다고 생각하면 사람이 부족한 게 당연하다. 금감원이나 산하기관에서 인력 파견을 받아서 가지만 부족한 건 매한가지”라고 말했다.

안유리 기자 inglass@

바이낸스 “규제 리스크는 헛소문” 대응에도... ‘빨간불’ 켜진 고팍스 상황

창평 자오 바이낸스 최고경영자(CEO)가 연이은 해외 사업 철수에 ‘별일 아니’라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고팍스의 가상자산 사업자(VASP) 변경 신고 수리에 지속적인 리스크로 작용할 전망이다. 변경 신고를 심사하는 금융정보분석원(FIU)은 고팍스의 대주주인 바이낸스의 상황을 “면밀히 살펴볼 것이다”는 입장이다.

2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세계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바이낸스는 이달에만 미국, 영국, 네덜란드, 프랑스 등 5개 이상의 국가에서 규제 관련 문제가 발생했다. 창평 자오 바이낸스 CEO는 이런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매년 ‘4’를 외치는 중이다. ‘4’는 그가 올해 초부터 바이낸스 관련 헛소문을 무시하라는 뜻으로 사용하는 표시다. 창평 자오 CEO는 매년 사업에는 차질이 없고, 각 국가의 규제 당국과도 잘 협조하고 있다고 강조

美SEC 제조 이어 4월 라이선스 만료 네덜란드에선 라이선스 실패 철수 이달 들어 5개국서 규제 이슈 터져 바이낸스 측 “문제없다” 적극 해명

고팍스 신임 대표에 ‘이중훈 카드’ FIU, 신고수리 놓고 고심 또 고심 하고 있다.

다만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의 마찰은 무시할 수 없는 규제 리스크다. 5일 SEC는 바이낸스US와 창평 자오 바이낸스 CEO를 불법 거래 플랫폼 운영 및 고객 자금 유용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SEC는 기소장에서 법원에 바이낸스가 더 이상 미국 시장에서 영업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와 관련해 17일에는 바이낸스US의 자금이



창평 자오 바이낸스 CEO는 프랑스 당국의 자금세탁 혐의 조사와 관련해 “다른 은행과 가상자산 기업도 모두 받는 평범한 조사”라면서 “당국과도 건밀하게 협조하고 있다”고 밝히며 ‘4’를 남겼다. 창평 자오 트위터 캡처

동결되기도 했다.

19일에는 바이낸스 영국 자회사인 ‘바이낸스 마켓’이 영국 금융감독청(FCA)에 기관 등록 취소를 요청했다. 해당 라이선스는 이미 지난달 31일 만료된 것으로 알려졌다. 16일과 15일에는 각각 네덜란드와 키프로스에서 현지 VASP 라이선스 발급 실패를 이유로

철수하기도 했다.

바이낸스 측은 단순 ‘헛소문’이라며 리스크 자체를 부정하고 있지만, 고파이자금 상황 관련해서는 리스크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바이낸스가 올해 2월 진행한 고팍스 투자에는 고파이자금 상황이 포함됐지만, 계약상 완전한 상황을 위해선 VASP 변경 신고가 우선 수리돼야 하기 때문이다.

심사를 맡은 FIU는 고심이 깊은 모양새다. 당초 결과는 3월 6일 신고 후 45일이 지난 4월 19일까지 나올 것으로 예상됐지만, 3달이 지난 아직까지 결정이 미뤄지고 있다. 변경 신고당시인 3월에도 이미 미 SEC의 바이낸스USD(BUSD) 발행 중지, 미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바이낸스 제조 등 규제 리스크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고팍스 측은 19일 내부 인사인 이중훈 부대표를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

하는 카드를 꺼내 들었다. 고팍스 관계자는 “일단 등기가 완료되는 대로 변경 신고를 다시 진행할 예정”이라면서 “언제가 될지는 아직 모른다”고 말했다. 이어 “이사회에서 고파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당국 눈높이에 맞춰서 신임 대표를 선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최초 변경 신고 당시보다 규제 리스크가 커진 상황이라 신임 대표 선임이 유효할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고팍스의 대표 이사 재변경에 대해 FIU 관계자는 “변경 신고가 아직 들어오지 않았고, 들어오면 절차에 따라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라면서도 “심사 과정에서 대주주(바이낸스) 이슈(해외 VASP 발급 실패) 등은 면밀히 살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여전히 대주주인 바이낸스의 규제 리스크가 심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뜻이다.

이시은 기자 zion0304@

LG U+ ‘키즈 메타버스’로 글로벌 시장 공략

어린이 특화 ‘키즈토피아’ 시연회
직장인 업무용 ‘메타슬랩’도 출시



LG유플러스 모델들이 ‘키즈토피아’ 영어버전을 소개하고 있다. 사진제공 LG유플러스

LG유플러스가 어린이에 특화된 메타버스 ‘키즈토피아’와 직장인 특화 업무용 메타버스 서비스 ‘메타슬랩’으로 글로벌 메타버스 시장에 도전장을 던졌다. LG유플러스는 타겟을 세분화해 각각 고객들의 페인포인트를 공략해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전략이다.

LG유플러스는 23일 서울 종로 센터포인트빌딩에서 ‘LG유플러스 메타버스 시연회’를 열고 어린이용 메타버스인 키즈토피아와 직장인용 가상사무실 메타버스인

메타슬랩을 소개했다. 원선관 메타버스프로젝트팀장은 “다섯 세그먼트를 면밀하게 분석해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차원의 고객경험을 제공하는 킬러 서비스를 발굴하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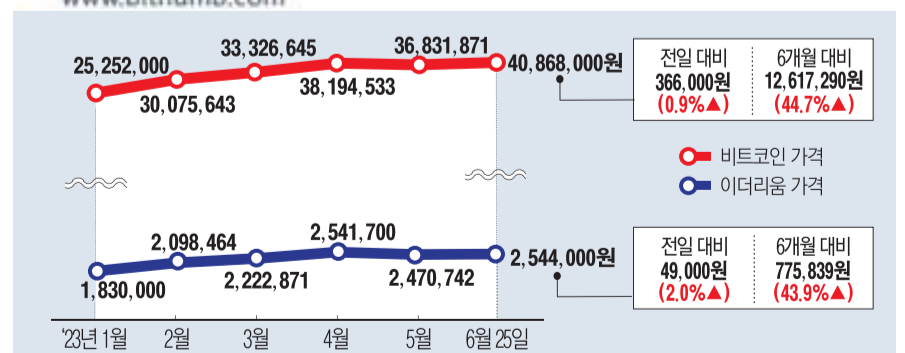
LG유플러스는 코로나 시대 생활 패턴

이 변화한 직장인과 아이들에 주목했다. LG유플러스가 선보인 키즈토피아는 3D 가상 체험공간에서 AI 캐릭터들과 재미있게 학습할 수 있는 어린이 특화 메타버스 서비스로 U+3.0 핵심 플랫폼이다.

LG유플러스는 키즈토피아에 생성형 AI(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한 영문 서비스를 선보이며 글로벌 시장에도 진출한다. 미국과 캐나다 등 북미 지역과 말레이시아에 우선 진출하고, 연내 아시아(일본, 태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미얀마, 필리핀), 오세아니아(호주, 뉴질랜드), 남미(브라질, 아르헨티나), 유럽 지역으로 서비스 제공 지역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김나리 기자 nari34@



빗썸 지수 (2023년 6월 25일 17:00, KST)



코인명	가격(원)	전일대비 등락(원)	코인명	가격(원)	전일대비 등락(원)
비트코인캐시	271,000	29,600 (12.3%▲)	이오스	994	29 (3.0%▲)
리플	652	3 (0.5%▲)	트론	97	2 (2.1%▲)
솔라나	22,980	360 (1.6%▲)	스텔라루멘	122	3 (2.5%▲)
에이다	396	6 (1.5%▲)	비트코인에스비	48,450	220 (0.5%▲)

국내 대표 가상자산 거래소

원팀 코리아, 사우디서 6.5조 메가 프로젝트 낙았다

현대건설, 석유화학단지 건설
아람코 '아미랄' 프로젝트 따내
역대 7위 규모 해외수주 성과
윤 대통령 "양국 공동번영 기반
정부·기업 원팀으로 더욱 노력"
원희룡 장관도 "적극 지원" 밝혀

현대건설이 사우디아라비아 최대 규모의 석유화학단지 건설사업을 따내며 중동 지역 메가 프로젝트 수주 소식을 전했다. 현대건설은 24일(현지시간) 사우디 다란에 위치한 아람코 본사에서 50억 달러 규모(약 6조5000억 원)의 '아미랄 석유 화학 콤플렉스 패키지 1(에틸렌 생산시설)과 패키지 4(유틸리티 기반시설)' 수주 계약을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 계약 서명식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윤영준 현대건설 사장, 아민 나세르 아람코 CEO, 파트리크 푸안 토탈에너지 CEO를 비롯한 정부 및 양사 주요 관계자

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아미랄(Amiral) 프로젝트는 사우디 국영 석유·천연가스 기업 아람코가 발주한 사우디 최대 규모의 석유화학단지 건설사업이다. 사우디 유전의 중심지인 담맘으로부터 북서쪽으로 70km 떨어진 주베일에 위치하며, 기존 사토프 정유공장과 통합 조성된다.

이번 수주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은 "양국 경제 협력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할 뿐만 아니라 두 나라가 공동으로 번영하는 확고한 기반이 될 것"이라며 "이를 계기로 한·사우디 양국의 신뢰 관계가 더욱 굳건해지도록 정부와 기업은 원팀이 되어 더욱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프로젝트는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이라크 카르발라 정유공장 프로젝트 등에 이어 역대 7위 규모의 수주로, 2014년 이후 9년 만의 50억 달러 이상 프로젝트 수주이기도 하다. 이로써 올해 들어 전날까지 해외 건설 수주액은 137억 달러를 기록했으며, 이는 지난해 상반기 수주 실적(120억 달러)보다 14%



원희룡(뒷줄 가운데) 국토교통부 장관을 비롯해 윤영준(앞줄 오른쪽부터) 현대건설 사장, 압둘카림 알 감디 아람코 부사장, 프랑수아 구 토탈에너지 부사장 등이 24일(현지시간) 사우디 아람코 본사에서 열린 아미랄 프로젝트 계약 서명식에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제공 현대건설

증가한 수치다. 이 프로젝트는 원유 정제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등급의 저부가가치 원료를 활용해 에틸렌, 프로필렌 등 기초유분을 생산하는 설비와 최첨단 폴리에틸렌 생산 설비, 부타디엔 추출설비, 기타 기반시설 등의 건설을 포함한다. 현대건설은 이 초대형 프로젝트 중 패키지 1과 4의 공사를 수행한다. 패키지 1은 아미랄 프로젝트의 핵심인 MFC(Mixed Feed Cracker, 혼

합 크래커)를 건설하는 공사, 패키지 4는 고부가가치 화학물질을 생산하는 주요인프라 외 기반설비, 탱크, 출하설비 등을 포함한 시설(Utility & Offsite) 건설공사다. 현대건설은 이 프로젝트를 설계·구매·건설 등 공사의 전 과정을 일괄 수행하는 턴키(Turn Key) 방식으로 수주했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1975년 사우디 건설시장에 처음 진출한 이래 현대건설은

사우디 정부 및 발주처의 신뢰를 기반으로 대규모 프로젝트를 안정적으로 수행하고 있다"며 "최근 정부 차원의 경제 외교를 통해 양국 간 협력 기반이 더욱 확대된 만큼, 아미랄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해 사우디 지역에서 K건설의 입지를 더욱 확고히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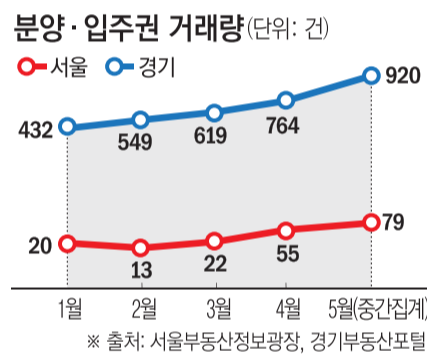
한편 이번 수주는 윤석열 대통령이 올해 신년사에서 '해외 수주 500억불 프로젝트'를 가동하고, 인프라 건설을 새로운 수출 동력으로 육성할 것임을 언급한 이후 수주한 첫 메가 프로젝트로, 양국은 작년 11월 한·사우디 정상회담을 계기로 인프라 협력을 강화한 바 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4일 열린 계약 서명식에도 참석해 "이번 수주를 통해 우리 기업의 기술력과 노하우가 세계적 경쟁력을 가지고 있음을 증명했다"면서 "향후에도 네오시티 등 초대형 프로젝트에 대한 후속 수주를 위해 원팀코리아 기업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보규 기자 jbk@·정대한 기자 vishalist@

살아나는 분양권 시장... '실거주 의무 폐지' 변수

서울·경기 단지 잇단 신고가
둔촌주공 국민평형 19억 코앞
거래량도 2년여 만에 최고치
국회 관련법 개정은 지지부진
통과 지연 땀 시장 혼란 불가피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이 가파르게 오르자 분양·입주권 수요도 급증하고 있다. 여기에 신축 아파트 분양가 상승도 분양권 수요 증가를 부채질하는 등 혼풍이 이어지고 있다. 25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 분석 결과 서울과 경기지역 일대 주요 단지 분양권 가격은 이달 들어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내 최대 재건축 단지인 강동구 둔촌동 '울림파크 포레온' (둔촌주공 재건축) 전용면적 84㎡형은 2일 18억5600만 원에 신고가 거래됐다. 분양당시 가격은 13억 원으로 프리미엄은 5억5600만 원에 달한다. 이날 기준 같은 평형 시세는 최고 19억 원이다. 서울 내 다른 단지도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강동구 천호동에 들어서는 '강동 밀레니얼 중흥 S클래스' 전용 47㎡형 분양권은 지난달 13일 5억7450만 원에 거래됐지만, 지난 10일 같은 평형은 1억5550만 원 오른 7억3000만 원에 팔렸다. 또 은평

구 수색동 'DMC SK뷰 아이파크포레' 전용 59㎡형은 17일 8억8000만 원에 거래됐다. 이는 지난달 1일 거래가인 8억2500만 원보다 5500만 원 비싼 수준이다. 아울러 경기도도 주요 지역에서도 분양권 신고가 거래가 이어지고 있다. 경기 용인시 처인구 '힐스테이트 용인 고진역 D2' 전용 84㎡형은 9일 직전 신고가보다 5000만 원가량 오른 5억8054만 원에 거래됐다. 수원시 장안구 '한화포레나 수원 장안' 전용 84㎡형 역시 지난달 30일 거래가 6억7333만 원보다 3941만 원 오른 7억1274만 원에 팔렸다. 수도권 분양권 몸값 상승세는 거래량 증가로도 확인할 수 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분양권 거래량은 79건으로 4월 55건 대비 43.6%(24건) 늘었다. 서울 분양권 거래가 79건

이상을 기록한 시점은 2020년 12월(82건) 이후 2년 6개월 만이다. 5월 실거래 신고기한(계약 후 30일)이 남은 만큼 지난달 거래량은 2020년 12월 기록을 넘어설 전망이다. 또 경기지역은 5월 920건의 분양권 거래량을 기록했다. 이 기록 역시 2021년 2월 923건이 거래된 뒤 2년 3개월 만에 최고치다. 윤수민 NH농협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3~4년 이후 서울 내 신축 공급 부족이 기정사실로 다가오면서 결국 현시점에서 가장 투자 가치가 있는 것은 신축, 그중에서도 분양권"이라고 말했다. 다만 국회에서 분양가상한제 주택 실거주 의무 폐지를 위한 관련법 개정 논의가 지지부진한 것은 최근 되살아난 분양권 거래 시장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실거주의무를 적용 주택 규모는 전국 4만 4000가구에 달한다. 분상제가 적용되는 공공택지 내 분양 규모는 매년 4만 가구 규모로 알려졌다. 법안 통과가 지연될수록 시장 혼란은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서진형 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경인여대 교수)는 "정책예측 가능성과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선 법안 통과가 필요한 정책은 야당과 충분히 사전 협의 후 발표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용욱 기자 dragon@

서울 아파트 청약 당첨 가점 합격선

37.3점 → 46.5점

〈작년 하반기〉

〈올해 상반기〉

규제 완화·시장 저점 인식 커지며
청약 시장 회복...1년 반 만에 반등
부동산 규제 완화와 시장 저점 인식이 커지면서 올해 상반기 서울 아파트 청약 당첨 가점 합격선이 작년 하반기에 비해 10점 가까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리얼투데이(이하 리투데이)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 들어 이달까지 청약을 진행한 서울 아파트의 평균 최저 당첨 가점은 46.5점으로 집계됐다. 이는 작년 하반기(37.3점)보다 9.2점 오른 것이다. 청약 가점은 84점 만점으로 무주택 기간(최고 32점)과 부양가족(35점), 청약통장 가입 기간(17점) 등으로 점수가 부과된다. 46점은 부양가족 2명(15점)에 무주택 기간 만 10년 이상~11년 미만(22점)을 유지하고,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 만 7년 이상~8년 미만(9점)일 때 받을 수 있는 수준의 점수다. 서울 아파트 평균 최저 당첨 가점은 주택시장 호황기였던 2021년 상반기에는 61.1점까지 치솟았다. 하지만 이후 시장이 가라앉으며 2021년 하반기 58.8점, 작

년 상반기 44.4점, 작년 하반기 37.3점으로 하락했다. 올해 상반기에는 다시 40점대로 반등했다. 올해 초 정부의 1·3 부동산 대책이 효과를 내면서 서울 아파트 청약 시장이 회복세로 접어든 것으로 풀이된다. 올해 분양한 단지 중 평균 청약 가점이 가장 높았던 곳은 4월 분양한 동대문구 휘경자이디센시아였다. 이 단지 전용면적 84.97㎡는 최고 가점 77점, 최저 가점 69점으로 평균 71점을 기록했다. 59.93㎡와 84.99㎡도 각각 평균 가점 70점과 69점이었다. 반면 입지와 분양가 경쟁력에 따라 단지별 청약 가점 편차도 극심했다. 올해 3월 분양한 강서구 등촌지와인은 84.97㎡만 평균 가점 40점에 1순위 마감됐고, 59㎡·74㎡·77㎡ 등 나머지 평형은 1순위 마감에 실패했다. 김용식 리얼투데이 리서치연구원은 "청약 규제 완화로 가점제 물량이 줄어든 데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공급되는 강남 3구 지역 물량이 많아 80점이 넘는 당첨 가점이나 만점(84점) 통장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전보규 기자 jbk@

금주의 분양캘린더

6월 넷째 주에는 전국 4548가구가 분양에 나선다. 부동산 정보업체 부동산R114에 따르면 6월 넷째 주에는 전국 10개 단지(사전청약 포함)에서 4548가구(일반분양 3916가구)가 분양한다. 서울 강동구 고덕강일 3단지 2차(사전청약), 경기 화성시 신동 'e편한세상 동탄파크아너스', 인천 서구 불로동 '호반써밋 인천검단', 충남 아산시 모종동 '힐스테이트 모종 블랑루체' 등에서 청약을 진행한다. 총 8개 단지에서 청약당첨자를 발표한

다. 부산 부산진구 부암동 '해피투모로우 주디원'은 27일 당첨자를 발표한다. 강원 원주시 관설동 '원주 동문 디 이스트'는 28일 당첨자를 가린다. 계약 진행단지는 총 5곳이다. 서울 서대문구 남가좌동 'DMC 가재울 아이파크'는 28일까지 계약을 받는다. 경기 파주시 목동동 '윤정 자이 시그니처'는 29일까지 정당계약을 진행한다. 견본주택을 여는 곳은 총 7곳이다.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 롯데캐슬 하이루체', 대전 서구 탄방동 '둔산 자이 아이파크', 부산 남구 대연동 '대연 디아이엘' 등에서 견본주택을 연다.

날짜	구분	시	구시군	읍면동	아파트명
6/26 (월)	접수	충북	보은군	보은읍	보은대신센텀캐슬
6/27 (화)	접수	서울	강동구	성내동	성내스페이스(공공지원민간임대) (~6/29)
		경기	화성시	신동	e편한세상동탄파크아너스2회차 1순위
		인천	서구	불로동	호반써밋인천검단 1순위
		부산	부산진구	양정동	하나스테이양정(민간임대) ♣
		광주	북구	양산동	양산동명지씨밋 1순위
		충북	보은군	보은읍	보은대신센텀캐슬 2순위
6/28 (수)	접수	충남	아산시	모종동	힐스테이트모종블랑루체 1순위
		서울	강동구	강일동	고덕강일3단지2차(사전청약) (~6/29)
		경기	남양주시	진접읍	남양주왕송A19나눔형(사전청약) (~6/29)
		경기	안양시	비산동	안양매곡S1나눔형(사전청약) (~6/29)
		경기	화성시	신동	e편한세상동탄파크아너스2회차 2순위

날짜	구분	시	구시군	읍면동	아파트명
6/28 (수)	접수	인천	서구	불로동	호반써밋인천검단 2순위
		광주	북구	양산동	양산동명지씨밋 2순위
		충남	아산시	모종동	힐스테이트모종블랑루체 2순위
6/30 (금)	오픈	서울	강동구	둔촌동	둔촌현대수리나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동	청량리롯데캐슬하이루체
		경기	시흥시	은행동	시흥롯데캐슬시그니처(1BL)
		경기	시흥시	은행동	시흥롯데캐슬시그니처(2BL)
		인천	서구	연희동	호반써밋파크에디션
		부산	남구	대연동	대연디아이엘
		대전	서구	탄방동	둔산자이아이파크
		경남	김해시	신문동	더샵신문그리니티

(주1) ♣=도시형 ♣=오피스텔
(주2) 1순위 청약접수 및 견본주택 오픈 단지는 색으로 표시
(주3) 오픈 단지는 사업진행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자료:부동산R114

우리 마음속
첫번째 금융

우리금융그룹

우리금융그룹, 지금 어디 가나요?

도움이 필요한 '우리 모두'가 있는 곳이에요!

그렇게
[재난재해 지역
우리동네 선한가게
농어촌 학교까지!]

우리를 위해 우리가 간다



World EXPO 2030
BUSAN, KOREA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우리금융그룹이 함께 응원합니다

우리금융그룹

우리금융지주 우리은행 우리카드 우리금융캐피탈 우리종합금융 우리자산신탁 우리금융저축은행 우리금융에프앤아이 우리자산운용
우리벤처파트너스 우리글로벌자산운용 우리프라이빗에쿼티자산운용 우리신용정보 우리펀드서비스 우리에프아이에스 우리금융경영연구소

연금저축·사고보험금도 5000만원까지 예금자 보호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앞으로 연금저축, 사고보험금,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에 대해 예금자가 보유한 일반예금과 별도로 예금보호한도 5000만 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게 된다.

2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26일부터 입법예고한다. 금융위는 8월 7일까지 입법예고를 완료한 뒤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이르면 연내 시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2015년 이후 확정기여형(DC형)·개인형(IRP) 퇴직연금의 예금에 대해 동일 금융회사에 예금자가 보유한 일반예금과 별도로 5000만 원의 보호한도를 적용해 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기존의 DC형·IRP 퇴직연금과 마찬가지로 연금저축(신탁·보험), 사고보험금,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에 대해 일반예금과 별도로 5000만 원의 보호한도를 적용한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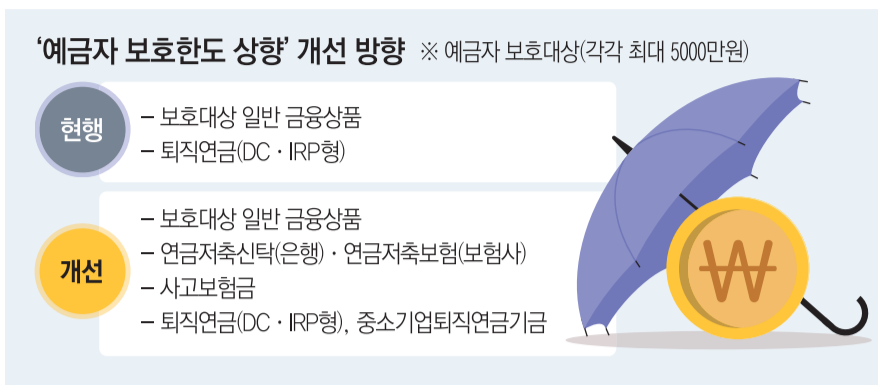
그간 정부는 국민들이 생애주기에 걸쳐

일반예금과 별도로... 연내 시행 중소기업퇴직기금 예금도 적용키로 오늘 입법예고...8월 법제처 심사

안정적으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연금저축을 장려하며 노력했다. 올해부터 세액공제 한도도 연 최대 4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확대했다. 지난해 말 기준 예금저축신탁의 적립금은 총 15조9000억 원(75만7000건), 연금저축보험의 적립금은 총 113조6000억 원(439만 건)에 달한다. 금융위는 이런 취지를 감안해 국민들이 더욱 안전하게 노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연금저축에 대해 별도 보호한도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단, 은행의 연금저축신탁이나 보험사의 연금저축보험만 별도 보호한도 대상이다. 자산운용사의 연금저축펀드는 실적 배당형 상품으로 별도 보호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

사고보험금은 보험약관에서 정한 지급



사유가 발생했을 때 지급하는 금액으로, 사망·중대장해 등의 경우 가입금액이 상대적으로 크다. 불의의 사고 발생 시 사고보험금 지급을 보장하는 일은 사회안전망으로서의 보험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금융위는 보험사가 부실해지는 경우에도 불의의 사고를 겪은 예금자를 안전하게 보호하도록 사고보험금도 별도 보호한도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만일 보험사가 파산한다면 예금보험공사가 해약환급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대 5000만 원까지 계약자에게 대신 지급하게 된다. 사고보험금에 대해서는 별

도로 5000만 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은 상시 30명 이하 중소기업의 퇴직연금도 입몰을 높이고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보장하고자 지난해 4월부터 근로복지공단이 직접 운영 중인 공적 퇴직연금제도다. 문제는 현재 중소기업의 예금에 대해 실예금자(근로자)별 보호와 별도 보호한도 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에 중소기업 근로자의 노후소득보장 강화 필요성, DC형 퇴직연금과의 형평을 고려해 중소기업퇴직기금의 예금에 대해서도 별도 보호한도를 적용하기로 했다.

주요국에서도 개인연금·퇴직연금 등 사회보장적 성격이 강한 상품에 대해 별도 보호한도를 적용하고 있다. 미국과 캐나다의 경우 일반 예·적금과 연금성 상품을 별도 카테고리 구분해 각각에 대해 별도 보호한도를 적용하고 있다. 해약환급금과 사고보험금 역시 각각 별도의 보호한도를 통해 보호하고 있다.

예보에 따르면 연금저축, 사고보험금, 중소기업퇴직기금에 대해 별도 보호한도를 적용해도 금융사들이 부담하는 예금보험료는 변동이 없을 전망이다. 해당 상품들은 예금보험료 부과대상에 이미 포함돼 있어 현행 예금보험료 하에서 추가적인 부담이 발생하지 않으며 향후 부실 발생 시 기금에 미치는 손실도 미미하다는 분석이다.

한편, 연금저축공제나 기타 공제상품을 취급 중인 상호금융권(신협·수협·새마을금고)에서도 소관부처별(금융위·해양수산부·행정안전부) 검토와 협의를 거쳐 동일한 내용을 담은 개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각각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이재명 기자 lly0403@

“장마철 침수車 어찌나...” 손해를 안정에도 못웃는 손보사

작년 서울·수도권 폭우에 직격탄 5월 車보험 손해율 크게 올랐지만 침수피해 예방 ‘비상팀’ 운영 가동

손해보험사들이 자동차보험 손해율 안정세에도 웃지 못하고 있다. 올해 여름 슈퍼 엘리뇨의 영향으로 역대급 태풍과 집중호우가 예고돼 있어 다수의 침수차량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면서다. 지난해 서울과 수도권을 강타한 폭우로 1만여대에 이르는 침수차가 나오면서 손해율에 직격탄을 맞은 손보사들은 장마철 위험 관리 대비에 바짝 긴장하는 모습이다.

25일 손보업계에 따르면 차보험 판매사 11곳(삼성화재·현대해상·DB손보·KB손보·메리츠화재·한화손보·롯데손보·흥국화재·AXA손보·하나손보

1~5월 누적 자동차보험 손해율 (단위: %) * 출처: 각사

	2022년	2023년
삼성화재	76.1	77.1
현대해상	78.5	77.1
DB손보	76.8	76.9
KB손보	76	76.8

·MG손보)의 지난 달 차보험 손해율(가마감 기준)은 76.6~105.1%로 전월(75.3~90.9%) 대비 상승했다. 이는 전년동월(75.4~93.9%)과 비교해도 상승한 수치다. 손해율은 보험사가 보험 계약자로부터 거둬들인 보험료 중에서 사고 등이 발생했을 때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의 비율을 말한다. 손해율이 76%라는 것은 고객으로부터 보험료로 100원을 받아 보험금으로 76원을 지급한 것을 의미한다.

올해 1~5월 누계 손해율은 76.5~

95.0%로 전년동기(74.2~92.7%)보다 올랐다. 통상 손보사들은 77~80%를 자동차보험 손해율의 적정 수준으로 보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올해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된 데다 자동차수리 공임 2.4% 인상, 차량 가격 증가 등 원가상승 요인까지 더해지면서 손해율이 악화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아직까지는 양호한 상태”라고 분석했다.

그럼에도 손보사들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기상청이 엘리뇨의 영향으로 올해 여름 집중호우가 쏟아질 것으로 예측하는 등 침수차로 인한 손해를 상상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임희연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이 시기 이후에 인차·일반보험 관련 사고율이 상승하고 침수피해 발생으로 인한 손해를 상상이 예상된다”며 “과거

폭우 사례를 참조해 재보험 가입에 따라 보험사별 손익 영향은 200억 원 내외 수준으로 전망된다”고 진단했다.

손해를 방어할 수 있도록 손보업계의 움직임도 분주하다. 최근 삼성화재는 본격적인 장마철을 대비해 차량 침수 피해를 줄이는 차원에서 ‘침수예방 비상팀’을 운영에 들어갔다. 침수예방 비상팀은 집중호우로 인한 긴급상황 발생 시 고객 동의 하에 관공서와 공조해 침수 위험 차량을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키는 역할과 위험 지역 사전 침수예방 활동을 하게 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올해 여름도 고온다습한 환경에 태풍,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우려가 있다”며 “무더운 날씨에 발생하는 차량 파손이나 폭발 등의 사고도 이어질 수 있어 여름철 차보험 손해율이 얼마나 상승할 지가 손익분기점을 가를 것”이라고 내다봤다. 서지연 기자 sjy@

보험研 “자율주행차 상용화 보험료 산정·법제 정비해야”

자율주행차 상용화에 대비해 관련 사고에 대한 책임법제와 보험료 산정 정비를 시작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보험연구원은 25일 ‘자율주행차 보험의 쟁점과 과제’ 보고서에서 무인자율주행이 가능한 레벨4 단계의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앞두고 자율주행차 보험제도의 쟁점과 과제를 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내에서는 올해 안에 레벨3(부분자율주행) 단계의 개인용 승용차 판매가 시작되고, 2027년 레벨4 자율주행차가 상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보험연구원은 현재 대물사고에 운전자 책임이 적용되지만, 책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대물사고까지 운행자 책임 적용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자동차보험약관상 피보험자 범위에 무인자율주행차 운행에 관여하는 새로운 책임 주체를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지연 기자 sjy@

(1년물)

은행채 금리 올랐다... 신용대출 금리도 자극하나

정부 ‘상생금융’ 압박에 최근 하락세 금통위 인상 가능성 영향 반등할 듯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신용대출 평균 금리가 연일 하락세다. 하지만 최근 신용대출 금리의 준거금리가 되는 은행채 1년물(무보증·AAA등급)이 상승하면서 조만간 반등할 것이라 관측도 나온다.

25일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에 따르면 5대 시중은행에서 5월 취급한 신용대출 평균 금리는 연 5.79%다. 이는 전월(연 5.87%)보다 0.08%포인트(p) 낮아진 것이다. 5대 은행의 신용대출 평균 금리는 두 달 연속 5%대를 기록 중이다. 서민금융을 제외한 5월 신용대출 평균 금리는 연 5.39%로, 전월(연 5.49%)보다 0.1%p 낮다.

이처럼 신용대출 평균 금리가 인하한 것

은 은행들이 가산금리를 내리고 우대금리를 높인 영향이 크다. 금융당국은 은행권에 지속해서 금리를 인하할 것을 압박했고, 은행권은 ‘올해 겨자먹기’로 상생금융을 앞세워 가산금리를 낮추고 우대금리를 높여 차주들의 이자 부담을 줄이고 있다.

덕분에 연 6% 미만으로 대출을 받은 차주들의 비중도 늘었다. 은행별로 살펴보면 지난달 우리은행에서 연 6% 미만의 금리로 신용대출을 받은 차주들의 비중이 88.6%로, 전월(81.9%)보다 6.7%p 늘었다. 같은 기간 KB국민은행은 9.3%p(54.0%→63.3%), NH농협은행은 6.5%p(57.2%→63.7%), 신한은행은 0.9%(71%→71.9%) 늘었다. 반면 하나은행은 75.5%에서 69.9%로 5대 은행 중 유일하게 5.6%p 줄었다.

이같은 흐름은 길게 이어지진 못할 전망이다. 최근 시장금리가 인상될 요인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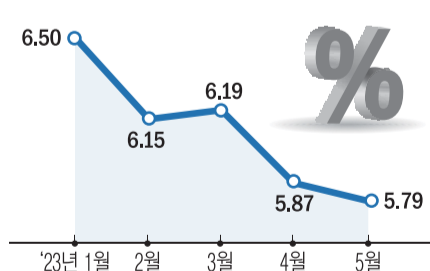
지속해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2월과 4월, 5월 등 세 차례에 걸쳐 기준금리를 연 3.5%로 동결했지만 여전히 인상 가능성을 내비쳤다. 한·미 간 금리차가 1.75%p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상황에서 미국이 기준금리 추가 인상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기 때문이다. 지속해서 벌어지는 금리차는 한은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어 금통위에서도 기준금리 추가인상을 고심하고 있다.

은행채 금리가 지속해서 오르는 점도 신용대출 금리 반등 가능성의 요인으로 꼽힌다. 금융투자협회 채권정보센터에 따르면 23일 기준 은행채 1년물의 금리는 3.876%다. 이는 한 달 전(5월 23일 기준 3.798%)보다 0.078%p 상승한 것이다.

최근 신규취급액 기준 코픽스가 상승한 영향도 있다. 은행연합회는 5월 신규취급

5대 은행 월별 신용대출 평균 금리 (단위: %) * 출처: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



액 기준 코픽스를 3.56%로 공시했다. 전월(3.44%)보다 0.12%p 오른 것으로, 코픽스 연동 신용대출 금리 상승에도 영향을 끼쳤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최근 은행권이 상생금융을 앞세워 가산금리를 낮추고 우대금리를 높이는 등의 영향으로 신용대출 금리도 인하 추세를 이어갔지만 한계에 다다른 것 같다”며 “은행채 금리 인상, 미국과 한국의 기준금리 추가 인상 가능성이 반영되면서 그동안 하락했던 시장금리도 반등하는 분위기”라고 설명했다.

이재명 기자 lly0403@

수은·베트남 경험증진자금 20억달러 협력약정 체결

한국수출입은행은 베트남 재무부와 향후 8년 간(2023~2030년) 20억 달러(약 2조6000억 원) 규모의 ‘경험증진자금(EDPF)’을 제공하는 협력약정을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 경험증진자금은 수은이 차입한 시장 재원을 활용해 개도국 대형 인프라사업에 장기 저리의 차관을 제공하는 원조자금의 일종이다.

윤희성 수은 행장은 23일 베트남 하노이 주석궁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보 반 트 영(Vo Van Thuong) 베트남 국가주석이 참석한 가운데 보 타잉 흥(Vo Thanh Hung) 재무부 차관과 이 같은 내용의 협력약정서에서 서명했다. 이날 두 나라의 협력약정 체결로 사전에 경험증진자금 지원한도와 기간이 확정됨에 따라 수은과 베트남 정부가 이에 적합한 유망 후보사업을 집중 발굴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재명 기자 lly0403@

부당이득 산정방식 논란...자본법 개정안 좌초하나

29일 법사위 쟁점사안 논의

수사당국과 금융당국이 불공정거래 전 쟁을 선포했지만 처벌 요건을 강화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정작 좌초 위기에 놓여 있다. 검찰총장이 사상 처음으로 한국 거래소를 방문할 만큼 불공정거래 척결에 대한 의지를 내비치고 있지만 처벌 수위는 여전히 제자리를 맴돌고 있다.

25일 국회, 금융당국에 따르면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달 29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하 자본시장법)' 쟁점사안을 논의한다. 정성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이 제출한 체계자구검토보고서(이하 검토보고서)를 바탕으로 한다.

가장 첨예한 부분은 '위반행위로 얻은 이득액 산정 방식'과 '제3자 개입에 대한 입증 책임'이다. 두 항목은 피의자의 금전적 처벌 수위를 판가름할 결정적 기준이다. 과징금 규모는 위반행위로 얻은 이득

액을 기준으로 삼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위반행위로 얻은 이득액 산정 방식을 '거래로 인한 총수입-거래를 위한 총비용'으로 규정했다. 여기서 피고인이 제3자 개입 등 별도의 사정을 소명하는 경우에만 이 부분도 반영하기로 했다.

검토보고서에서는 먼저 위반행위 이득 산정 방식을 '거래로 인한 총수입-거래를 위한 총비용'으로 규정한 부분을 지적했다. 예를 들어 피고인이 100만 원의 총수입을 얻고, 이 과정에서 20만 원의 비용이 발생했다면 이득액을 수입에서 비용의 차액인 80만 원으로 보는 것이다.

지적사항은 이러한 산정 방식이 기존 대법원 판례와 어긋난다는 것이다. 대법원 판례에는 '제3자 개입 등 별도의 사정'도 산식에 반영해야 한다고 나와 있다. 제3자 개입으로 오히려 주가가 하락한 경우는 하락분만큼 실제 이득액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위 사례를 빗대어 봤을 때

부당이득 산정 '총수입-총비용' 보고서 '대법원 판례 달라' 지적

'제3자 개입' 검사가 입증책임 금융위 '주가조작 특이성 고려 피고인 소명해야' 의견 엇갈려

피고인 이외에 제3자 개입으로 주가가 10만 원이 떨어졌다면, 위반행위 이득액이 80만 원이 아닌 70만 원이 되는 셈이다.

여기서 두 번째 쟁점 사안도 이어진다. 검토보고서에서는 '제3자 개입'과 관련한 입증책임은 검사가 부담해야 한다고 했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에서 규정한 '피고인 소명'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부분은 당초 '피고인 입증'이었으나 정무위원회에서 '소명'으로 변경했다.

검토보고서는 제3자 개입 여부를 검사가 입증하지 않으면 사실상 입증책임 전

환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봤다. 정수석 전문위원은 "피고인으로서 자신과 무관한 제3자가 야기한 요인에 의해 더 무겁게 처벌받게 됨으로써 자기책임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면서 "증명책임의 전환이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제3자 개입에 대한 가격변동분을 소명하는 구조는 검사가 구성요건에 대한 입증 책임을 지는 형사시스템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고 분석했다.

이를 두고 금융위는 주가조작 사건의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번 주가조작을 빙자한 라덕연 사기사건을 보면 기존 자본시장감시망을 교묘하게 피하면서 범죄를 저질렀다.

금융위 관계자는 "주가조작이란 사건의 특성상 이득액 산정을 총수입에서 총비용을 반영하는 것으로 하고, 제3자 개입에 대한 변동은 피의자가 소명해야 부당이득 산정이 제대로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은 엇갈렸

다. 제3자 개입에 대한 부분도 새로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현재 대법원 판례 등을 고려했을 때 자본시장법상 개정은 쉽지 않을 것이라 시각도 있다.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제3자 개입의 경우에도 불법이익이 명확하다면 그에 대해 환수가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입증이 어렵다고 해서 그 제도를 시행 안 하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반면 이창현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는 "제3자 개입으로 별도 비용이 발생한 것을 감안하는 게 합리적 판단일 것"이라며 "다만 이득이 생긴 부분에 대해 입증이 쉽지 않아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고 했다.

성희환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법원 판례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 현재(헌법재판소)가 단순차액방식은 위헌이라고 판단 내린 게 있어서 해결 방안을 찾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지희 기자 jhsseo@·정희인 기자 hihello@



한국거래소는 21일 서울 강남 아세아타워에서 '기술특례 상장 설명회'를 열었다.

사진제공 한국거래소

거래소 기술특례상장 로드쇼... 서울서만 300명 몰려

30일 용인서 소부장기업 대상 개최

거래소는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과 공동으로 '주요 업권별 협회 및 핵심 기술기업 대상 찾아가는 기술특례상장 설명·상담 로드쇼'를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21일 서울 강남을 시작으로 22일 서울 여의도, 23일 충북 오송에서 3일간 개최됐다. 설명회 기간 거래소는 질의응답 세션을 통해 기술기업 관계자들이 기술특례상장을 준비하면서 겪은 애로사항과 향후 제도개선 방향 관련 궁금증을 해소할 기회를 제공했다.

21~22일 이틀간 서울에서 개최된 설명회에는 기술기업 임직원과 주요 업권별 협회 관계자 300여 명이 참석했다. 거래

소는 기술특례상장 제도의 중점 심사사항과 기술특례상장 성공사례, 표준 기술평가모델의 주요 내용 등을 설명했다.

21일 설명회에 참석한 의로기기 업체 A사는 "전문가회의 등 심사과정에서 경쟁업체 전문가의 참여에 따른 피해 발생을 우려했었다"며 "이번 설명회에서 기피 신청 제도 등을 통해 우려를 제거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아 안심했다"고 말했다.

3차 설명회에서는 거래소가 오송바이오 클러스터(충북 오송 첨단임상시험센터)를 찾아 차세대 면역항암제·인공각막 등 핵심 기술 보유 바이오기업 임직원 100여 명을 대상으로 바이오·의로기기 맞춤형 제도와 바이오 분야 상장사례를 소개했다.

홍순욱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 본부장

은 "코스닥은 유망기술 기업이 코스닥 상장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업계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기술특례상장 제도의 보완 필요사항을 개선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수영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장은 "우리 경제의 미래 성장동력이 될 핵심 기술기업을 선별하고 성장자금을 지원해 육성해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확고한 의지"라며 "상장 절차상 일부 한계로 인해 '옥(玉)'이 사장되지 않도록 제도 운영상 문제점들을 적극적으로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다음 '찾아가는 기술특례상장 로드쇼'는 반도체·소부장 기업을 대상으로 30일 반도체 클러스터인 용인특례시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손민지 기자 handmin@

상반기 IPO 최강자 '삼성證'

주관실적 1515억 '신홍강자'에 전통강자 한투·미래에셋 2·3위

삼성증권이 기업공개(IPO) 주관 시장에서 '신홍강자'로 떠올랐다. 한국투자증권과 미래에셋증권은 나란히 2·3위를 기록하며 '전통강자' 자리를 지켜냈다.

25일 한국거래소 기업공시채널(KIND)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IPO 주관 실적은 삼성증권이 1515억원으로 1위를 차지했다.

뒤이어 △한국투자증권(1401억원), 미래에셋증권(1263억원), 신영증권(635억원) 키움증권(561억원) 등 순으로 순위를 차지했다. 상장 주관사 '빅4'로 꼽히는 한국투자증권과 미래에셋증권이 상위권에 오른 것이다.

지난해 두 증권사는 상장 주관 톱3에서 밀려났었다. LG에너지솔루션 IPO를 대표 주관한 KB증권과 모건스탠리가 지난해 IPO 주관 실적 1·2위를 차지했다.

올해 삼성증권이 상장 주관한 기업은 3곳으로 많지 않지만, 주관 실적 1위에 올랐다. 상반기 최대어로 꼽히는 반도체 기업 검사 전문기업 기가비스 주관을 맡은 것이 순위에 영향 미친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기가비스는 공모주

청약에서 경쟁률 823.71대1을 기록하며 약 10조 원의 증거금을 모았다.

2위를 차지한 한국투자증권은 IPO 주관을 맡았던 화장품 제조업체 마녀공장의 영향이 크다. 마녀공장은 기관투자자 수요예측에서 1800.47대1, 일반투자자 청약에서 1265대1을 기록하며 흥행에 성공했다.

올해 한국투자증권이 IPO 주관을 맡은 기업은 총 5곳이다. 이중 프리 IPO(상장 전 지분투자)에도 참여해 차익을 얻을 것으로 전망된다.

3위를 기록한 미래에셋증권은 6곳의 상장을 주관하며 상반기 주관사 중 가장 많은 기업을 상장시켰다. 중·소형주 다수를 상장시키며 실적에 선방했다 평가가 나온다.

증권가에서는 빅4 중 상반기 정상에 오르지 못한 증권사들도 하반기 본격적으로 나서면서 주관 성적에 지각변동이 생길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두산로보틱스와 에코프로머티리얼즈 등 대어급 IPO가 출격을 대기 중인데, 이들 기업의 대표 주관사가 대부분 빅4여서다.

최경영 흥국증권 연구원은 "최근 서울보증보험 접수 이후 코스피 상장신청이 이어질 것이라는 소식이 있어 하반기 대어급 IPO가 본격 재개될 전망"이라고 했다. 손민지 기자 handmin@

하나證, 부산 다문화가족 위한 교육·양육환경 개선 봉사활동

하나증권은 부산지역 다문화가족 아동들의 교육과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봉사활동을 진행했다고 25일 밝혔다.

강성목 하나증권 대표와 김규형 하나증권 노조위원장, 부산지역 임직원들은 21일 부산 동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방문해 교육용 가구와 아동도서 등을 기증하고 지역센터 내 공부방 시설을 정비했다. 아이들이 생활하고 있는 가정을 찾아 방충망을 보수하는 등 생활환경 개선 활동도 함께 진행했다.

강성목 하나증권 대표는 "다문화가족



강성목(앞줄 왼쪽 다섯 번째) 하나증권 대표이사, 변진해(앞줄 왼쪽 여섯 번째) 부산 동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등 관계자들이 21일 부산지역 다문화가족 아동들의 교육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봉사활동을 한 뒤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제공 하나증권

아동들이 좀 더 나은 환경에서 미래를 준비하고, 따뜻한 관심을 느꼈으면 한다"며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곳에 앞장서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하나증권은 영업점들과 연계한 현

장 중심의 '사회공헌 캠페인 CONNECT'를 운영 중이다. 올해 '대전 행복가득 급식나눔', '전주 한옥마을 플로깅&행복나눔' 등을 진행해 지역사회와의 연결을 확장하고 있다. 손민지 기자 handmin@

'유증 여파' CJ CGV, 주가 1만원 아래로

CJ CGV가 기존 발행주식 수보다 많은 유상증자 계획을 발표하면서 주가 1만 원 선이 무너지며 15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까지 내려갔다.

2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23일 CJ CGV는 5.24% 하락한 9950원에 마감했다. 20일 1조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발표한 뒤 21일 21.10%, 22일 8.22% 하락하며 사흘 연속 주가 급락세를 보이고 있다. CJ CGV는 최근 자본확충을 위해 5700

억 원 규모의 주주배정 유상증자와 4500억 원 규모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단행한다고 공시했다. 지분가치 희석 우려, 영화관 사업의 불투명한 전망, 기존 전환사채(CB)로 인한 오버행(대규모 물량 출회) 등이 주가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편, CJ그룹 시총은 연초 16조4800억 원에서 최근 12조2400억 원으로 상반기에만 약 4조2400억 원가량 증발했다.

권태성 기자 tskwon@

“만능 요리사에 집밥 맡기자”... 유통가 소스 경쟁 후끈

최근 캠핑과 집밥 등을 즐기는 소비자들이 늘면서 국내 소스 시장도 성장세다. 25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국내 소스 시장 규모는 2019년 1조3700억 원 수준에서 2020년 2조 원으로 규모가 커졌다. 업계는 지난해 소스 시장 규모가 2조3000억 원까지 성장한 것으로 추정한다.

코로나19를 거치며 외식 대신 집에서 밥을 먹는 소비자들이 늘었고, 캠핑 인구도 늘면서 소스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서라는 분석이다. 이에 국내 식품업계는 관련 상품을 확대하고 있다.

이는 국내 소스류 소비 시장 비중에서도 확인된다. aT 시장동향 자료를 보면 2018년까지 국내 소스류 소비의 약 80%는 B2B(기업간 거래)에서 이뤄졌다. 최

근 이비중이 70%대로 낮아졌다. 반면 B2C(기업소비자간 거래)에서 소비 비중은 20%대에서 30%대로 확대됐다.

식품업계는 다양한 소스류 제품을 선보이며 소비자 공략에 나섰다. 오투기는 최근 튀김요리에 잘 어울리는 소스를 선보이며 상품 구색을 확대했다. 신제품 ‘튀만전 짬뽕소스’는 국산 현미로 만든 흑초에 마늘, 고추, 양파 등 향신 채소를 더했다.

CJ제일제당은 간편 양념 등 소스류 제품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존 백설 브랜드를 리뉴얼했다. 이를 통해 CJ제일제당은 간편 양념 다담, 액젓 하선정을 백설의 하위 브랜드로 편입하고 드레싱 제품군을 추가했다. 소스를 백설 브랜드의 신성장 동력으로 삼겠다는 전략이다.

대상은 최근 2000년 설립된 미국 아시

국내 소스 시장 규모(단위: 원)
* 출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2018년 이후 B2C 비중 10%p ↑
CJ, 백설에 소스류 브랜드 편입
대상 ‘청정원 고깃집 소스’ 인기
팔도, 저열량·스틱 비빔장 출시

아 식품 전문회사 럭키푸즈를 인수했다. 럭키푸즈는 ‘서울’ 김치를 비롯해 스프링클, 소스 등을 주요 유통 채널에서 판매한다. 김치 사업이 전체의 약 3분의 2를 차지하지만, 대상은 영업조직을 강화해 소스류, 스프링클 등 사업 확대에 나선다.

앞서 대상은 청정원 브랜드를 통해 파절이·매콤청양 등 고깃집 소스를 선보인 바 있다. 재료 준비나 계량할 필요없이 바로 사용할 수 있어야 캠핑장에서 간편하게 활용할 수 있다. 대상은 파절이 무침의 경우 고춧가루와 설탕, 간장 등 준비해야 할 재료가 많은데 이러한 불편을 해소했다는 점에서 소비자 반응이 기대된다고 했다.

삼양식품과 팔도는 각각 불닭볶음면, 비빔면 소스 사업에 공을 들이고 있다. 2018년 불닭 소스를 출시한 삼양식품은

올해 매출 1000억 원대 브랜드로 키우겠다는 것이 목표다. 삼양식품에 따르면 소스 생산 실적은 지난해 223억 원으로 2019년 대비 3배 가량 늘었다.

팔도는 팔도비빔장을 앞세워 소스 시장에서 영향력을 키우고 있다. 2017년 출시된 팔도비빔장은 지난해 말 누적 판매량 2000만 개를 넘겼다. 최근 저칼로리를 선호하는 소비자 수요를 반영해 칼로리를 기존 제품의 6분의 1로 줄인 저열량 팔도비빔장과 스틱형 비빔장도 내놨다.

식품업계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한 내식 증가, 먹방 등으로 소스에 대한 소비가 확산됐다”며 “만능장 등 간편 소스를 찾는 수요도 점차 늘고 있어 관련 시장도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유승호 기자 peter@

“코로나 끝, 해외로”... 날개 돋친 패키지 상품

위메프, 전년비 판매량 13배
인터파크트리플도 364% 증가
거리 부담 적은 日·동남아 집중

엔데믹에 해외여행 수요가 늘면서 관련 패키지 상품 판매도 증가세다. 온라인 플랫폼업계는 관련 상품 출시 확대로 고객 잡기에 나섰다.

25일 위메프에 따르면 이달 1일부터 15일까지 해외여행 패키지 상품 판매량이 전년 동기 대비 1202% 증가했다. 가장 많이 팔린 기간은 여름휴가 시즌인 7월 넷째 주다. 엔데믹 이후 맞는 첫 여름휴가에 해외여행을 가려는 소비자들이 늘면서 관련 상품 판매량이 급증했다.

인터파크트리플도 올해 7·8월 출발

하는 해외여행 패키지 상품 예약 인원이 이달 15일 기준으로 전년 동기보다 364% 증가했다.

실제로 10명 중 4명꼴로 올해 여름휴가로 해외여행을 선택했다. 인크루트가 최근 여름휴가 계획을 조사한 결과, 여름휴가 계획이 있는 응답자의 43.5%가 해외여행을 갈 것이라고 답했다. 지난해 같은 주제의 조사에서 해외여행을 가겠다고 응답한 비중은 23.6%였다.

인기 있는 해외여행지로 일본, 베트남 등 비교적 거리가 가까운 국가들이 꼽혔다. 위메프에서는 일본 해외여행 패키지 상품이 가장 많이 팔렸고, 베트남 다낭이 뒤를 이었다. 인터파크트리플에서는 베트남이 24%로 가장 많았고 일본 13%, 태국 11%, 필리핀 8%, 서유럽 6% 순이었다.

이들 국가 방문객 수도 꾸준히 늘고 있다. 일본정부관광국에 따르면 지난해 일본을 방문한 한국인은 51만5700명이었다. 베트남 관광청도 4월 기준 25만9300명 이상의 한국인이 자국에 입국했다고 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여행경비와 거리 부담이 적은 일본, 동남아 등의 해외여행지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엔저 현상이 더해지며 일본에 대한 여행객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업계는 단거리 해외여행 패키지 상품 구성을 늘리고 있다. 올해 신세계라이브쇼핑의 여행 편성은 전년 대비 160% 증가했는데, 지난해 거의 편성이 없었던 일본 여행상품이 올해는 월 2~3회 이상 편성되고 있다. 롯데홈쇼핑 역시 지난해 1월부터 이달 18일까지 일본, 동남아 등 근거리 여행상품에 대한 상담건수가 70% 이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쿠팡라이브 역시 판매액 상위 10위권 중 3개가 여행 상품이다.

티몬은 8월까지 ‘티몬투어 썸머 페스티벌’을 열고 국내외 여행 특가 상품과 추가 할인혜택 등을 선보인다. 여행 플랫폼 클룩(Klook)도 ‘할인의 썸머’ 이름을 내걸고 일본과 동남아 6개국, 유럽과 미국 여행 상품 할인전을 진행한다.

구예지 기자 sunrise@



롯데백화점은 본점 8층에서 7월 6일까지 ‘바위스앤월킨스’ 신제품 론칭 팝업 행사를 연다. 고 25일 밝혔다. 팝업에서는 1966년 설립된 영국 하이엔드 스피커 브랜드 ‘바위스앤월킨스’의 플래그십 모델 ‘801 D4 시그니처’와 ‘805 D4 시그니처’를 선보인다. 사진제공 롯데백화점

“세계 2위 전기식 시장 잡아라” K바이오, 中 주목하는 이유는

중근당, 中 겨냥 락토팩트 2종 출시
DxVx, 베이징서 유산균시장 확장

국내 제약·바이오기업들이 글로벌 2위 중국 건강기능식품(이하 건기식) 시장을 정조준하고 있다. 국내 시장의 열 배에 달하는 규모와 급속한 성장세가 매력 포인트다. 성공적으로 시장에 안착하면 실적 상승 효과도 기대된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중국 건기식 시장 규모는 444억4200만 달러(약 59조 원)로 전 세계 시장의 16.3%를 차지한다. 성장 속도도 가팔라 전 세계 성장률(4.5%)을 뛰어넘은 8.7%다. 중국은 경제 성장과 함께 평균 수명이 늘면서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건기식 소비층이 전 연령대로 확산하고 있다.

25일 제약바이오업계에 따르면 중국 건기식 시장에 진출한 국내 기업들이 일정 부분 성과를 내고 있다. 시장 규모 약 15조 원으로 추산되는 프로바이오틱스(유산균)를 중심으로 진출이 활발하다.

유산균 브랜드 ‘락토팩트’를 내세운 중근당건강은 2019년 중국 청도법인을 설립했다. 이듬해 중국 시장을 겨냥한 2종의 락토팩트 제품을 출시하며 본격적인 시장 공략에 나섰다. 상하이 등 주요 지역에

프라인 매장을 운영하며 티몰 등 온라인에서도 제품을 판매한다. 연결감사보고서상 지난해 매출액은 129억 원으로 전년(53억 원) 대비 2배 이상 늘어, 청도법인 실적 개선세가 뚜렷하다.

디엑스앤비엑스(DxVx)는 중국 베이징에 자회사를 설립하고 자체 온·오프라인 유통망을 구축했다. 네트워크를 통해 마이크로바이옴 기반 영유아 헬스케어 제품을 수출·판매 중이다. 최대주주 임종운 한미약품 사장이 북경 한미약품의 경험을 바탕으로 사업을 진두지휘하고 있다. 회사 관계자는 “현재 판매하는 유산균 제품은 현지에서 프리미엄 유산균 지위를 확립해 유산균 사업화 성공 사례로 꼽힌다”고 설명했다. 수출·판매되는 제품은 디엑스앤비엑스가 직접 보유한 배합특허 기술이 적용됐다.

일동제약그룹의 일동바이오사이언스도 프로바이오틱스를 중심으로 시장을 확대하고 있다. 최근 중국 건기식 박람회(HNC 2023)에 참가해 프로바이오틱스 원료를 비롯한 기능성 소재와 4중 코팅 공법 등의 원천 기술을 소개했다. 일동바이오사이언스 관계자는 “기능성 소재를 활용한 원료에 관심을 가진 사업 파트너를 찾는 기회”라며 “차별화된 원료와 현지 맞춤형 전략 등으로 중국 시장을 공략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혜은 기자 euna@

100일 만에 확 젊어졌다... MZ·가족 어우른 현대백 목동점

평균 구매고객 연령 1년새 4.1세 ↓
3050 여성 고객 ‘목동맘’ 13% 쑥

현대백화점 목동점이 MZ세대 대상 전문관과 가족 친화 공간을 내세운 점포 새 단장으로 고객 잡기에 성공했다.

25일 현대백화점에 따르면 목동점은 리뉴얼 이후 3월 15일부터 6월 22일까지 100일간 구매 고객 연령대를 분석한 결과, 평균 구매 고객 연령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4.1세 낮아진 39.6세를 기록했다. 이 기간 목동점 방문 고객 수는 13.0% 늘었고, MZ세대 고객을 타겟해 리뉴얼한 별관의 경우 방문 고객이 21.8% 증가했다.

현대백화점 측은 리뉴얼 100일 후 현대백화점 목동점이 젊어졌다며, MZ세대 전문관 조성과 가족 친화적 공간을 확대해 기존 4050세대 고객은 물론, MZ세대



현대백화점 목동점 별관 1층 ‘더 로비’ 매장.

사진제공 현대백화점

유입도 이끌어 냈다고 분석했다.

일명 ‘목동맘’의 유입도 동시에 늘었다. 해당 기간 목동, 신정동, 신월동 등 목동점 인근 양천구 일대에 거주하는 30~50대 여성 고객은 전년 동기 대비 12.8% 증가했다.

현대백화점은 MZ세대 고객과 목동맘을 유입시킬 수 있었던 주요 요인으로 △ MZ세대 전문관 ‘센트럴 커넥션’ △ 호텔

라운지형 라이프스타일 큐레이션 전문관 ‘더 로비’ △ 가족 친화적 공간 및 동선 구성 등을 꼽았다.

문삼권 현대백화점 목동점장(상무)은 “매일 새로운 행복의 발견” 슬로건에 맞춰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MD 구성과 가족 구성원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선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구예지 기자 sunrise@

日 MZ 사로잡은 K컬처... 오세훈 “서울은 힙한 도시”

도쿄서 열린 서울관광 프로모션

한류 붐 20주년 기념 현지 개최
오 시장, 한국 음식·콘텐츠 소개
‘서울놀이’·성수·홍대 부스 인기

오세훈 서울시장의 “서울은 이미 국제적으로 아주 힙한 도시”라며 “최근에 루이비통과 구찌도 패션쇼를 할 정도로 서울은 이제 아시아의 대표 도시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의 관광 전략은 아시아의 중심 도시가 서울이라는 사실을 널리 알리고 라이프스타일을 좀더 경험할 수 있게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일본출장 중인 오 시장은 24일(현지시간) 도쿄에서 개최된 ‘2023 SEOUL EDITION in TOKYO’에 요리사복장으로 등장해 한국 음식과 콘텐츠를 즐기는 일본의 젊은 세대에게 서울 라이프스타일을 소개했다.

이날 오 시장은 떡볶이, 핫도그, 약과를



오세훈 서울시장의 24일 도쿄에서 열린 서울 관광 프로모션에서 서울 먹거리 소울푸드를 소개하고 있다. 사진제공 서울시

비슷해 관광지 시장의 반대편까지 다양한 서울의 맛을 일본 현지인들에게 추천했다. 오 시장은 “요즘 일본에서 굉장히 인기 있다는 K-스트리트푸드 들어보셨나요”라고 물으며 “광화문광장 주변에서 한국식 바비큐인 삼겹살에다 소주 한 잔, 한강공원에서 치맥, 개방된 청와대 근처에서는 시원한 냉면이 아주 좋다”고 전했다.

서울관광 프로모션 ‘2023 SEOUL EDITION in TOKYO’는 올해 20주년을 맞은 일본의 한류 붐과 ‘2023-2024 한국 방문의 해’를 기념해 개최됐다. 올해는 2003년 겨울연가 신드롬으로 일본에서 한류가 시작된 지 20주년 되는 해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시기에는 한국에 온 것처럼 노는 ‘도한놀

이(한국 여행 놀이)’가 유행하기도 했다.

행사 프로모션 신청 안내 포스팅(비즈니스 서울재팬 트위터·인스타그램) 뷰는 54만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사 첫 날인 24일에는 시민 약 1500명의 발길이 이어졌다. 특히 K팝 아이돌은 행사의 시작과 마무리를 장식할 만큼 인기가 많았다. 행사에 참석한 가와가즈 사야카 씨는 “도한놀이를 ‘시노쿠보’에서 해봤다”며 “한국 드라마를 보면서 비빔밥이나 김밥을 먹었는데 좋았다”고 말했다.

강남이 MC로 나선 행사는 K아이돌 패션쇼로 막을 열었다. 보아, 신화 등 1세대 K팝 아티스트를 시작으로 2세대 동방신기, 3세대 BTS·블랙핑크, 4세대 뉴진스 등 세대별 유명 K-팝 그룹의 무대 의상과 퍼포먼스가 펼쳐졌다.

도쿄 한복판에서 서울의 라이프스타일을 체험할 수 있는 ‘도서울놀이’ 부스도 인기 만점이었다. 행사장 로비에서부터 서울의 대표적 ‘힙플레이스’인 성수, 홍대, 을지로, 강남을 재현한 콘셉트별 부스

는 일본 MZ세대의 눈길을 끌었다.

성수 부스에서는 퍼스널 컬러 진단 후 검사 결과에 맞는 나만의 립글로스를 만들고, 홍대 부스에서는 코인노래방 체험이 이어졌다. 을지로 부스는 K-푸드 ASMR 영상체험, 강남 부스는 교복을 입고 ‘인생네컷’ 사진을 남길 수 있는 추억을 선사했다. 하타노 안 씨는 “서울에 다 가고 싶다”며 “로컬한 장소를 좋아하기 때문에 명동처럼 유명한 관광지보다 현지 사람이 많은 신촌이나 성수동이 좋다”고 말했다. 이어 “다음에는 경복궁에 가보고 싶다”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우리가 교류를 하지 못하는 동안 세빛섬, 광화문광장, DDP(동대문 디자인플라자) 등 서울이 많이 바뀌었다”며 “한강과 남산 두 군데에 곤돌라가 생기고, 노들섬도 예술섬으로 바뀌고, 여의도에는 제2세종문화회관도 생긴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변화될 게 많으니까 기대해주셔도 좋다”고 강조했다.

도쿄=김재민 기자 chaebi@

‘대체 복무’ 김민석 의원, 복직했지만...

〈서울 강서구〉

法, 휴직명령 집행정지 신청 인용
병무청 ‘검직 불허’에 논란 여전

법원이 임기 중 대체복무에 나선 김민석 서울 강서구 의원의 휴직 명령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지만, ‘검직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현행법상 대체복무 중 기초의원 겸직이 가능한지 명확한 규정이 없어 법원 판단에 따라 적정성 여부가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정희 부장판사)는 19일 김 의원이 강서구의회 의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이에 본안인 ‘휴직명령 취소 청구 소송’의 1심 판결 선고일 이후 30일이 되는 날까지 휴직 명령의 효력이 정지된다. 재판부는 “휴직 명령으로 원고에게 발생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가 있고, (집행정지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1992년생인 김 의원은 지난해 6·1 지방선거 당선 후 병무청 신체검사에서 4급 판정을 받았다. 2월 양천구 시설관리공단에

서 조건부 검직 허가를 받고 대체 군복무에 돌입했지만, 병무청이 ‘검직 불허’ 유권해석을 내놓자 공단도 조건부 허가를 취소하고 김 의원을 경고 처분했다.

이에 김 의원은 조건부 허가 결정 취소의 효력과 경고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법원은 지난 3월 공단의 경고 처분 효력은 임시로 멈추기로 하면서도 ‘검직 허가 취소 처분’에 관한 집행정지 신청은 각하했다.

논란이 이어지자 최동철 강서구의회 의장은 행정안전부로부터 ‘병역 휴직’은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받았다. 복무 기간 휴직으로 의원직은 유지하되, 검직 불가로 의정 활동은 할 수 없다는 취지다. 이후 최 의장은 김 의원에게 휴직명령을 내린 뒤 의정비 지급을 중단했다.

법원의 이번 결정에 따라 김 의원은 의정 활동에 복귀했다. 그는 “법원의 휴직명령 인용 이후 그간 밀렸던 급여를 받았고, 지난 23일 천안함 재단에 500만 원을 기부했다”며 “소집 해제일까지 받는 급여도 전액 강서구 내 사회적 약자를 위해 사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병무청의 검직 불허 방침은 여전히 유효하다. 김이현 기자 spes@



반지하주택 장마 대비

장마 시작이 예보된 25일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이 반지하주택 물막이판 점검을 위해 방문한 서울 성동구 한 주택가에서 연합뉴스

수능 ‘킬러문항’ 공개... 공식 오답률도 내놓나

오늘 사교육 경감대책 발표

“평가원 가채점 결과 공개 필요
대입 수시·정시 지원 등 방향성
사교육업체 의존 구조 바뀌야”

교육부가 26일 사교육 경감대책을 발표하면서 최근 3년 치 수능과 올해 모의평가를 분석해 ‘킬러문항’의 구체적인 사례를 공개한다. 수능 문항의 공식 오답률을 처음으로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져 관심이 쏠린다. 교육계는 이번 기회에 입시 전반의 정보가 사교육 시장에 쏠려 있는 고질적 문제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25일 교육계 등에 따르면 사교육 경감 대책에 수능의 ‘킬러문항’ 배제와 수능 문제 출제 과정 전반에 대한 개혁 방안이 담길 가능성이 있다. 교육부는 전문가들과

함께 6월 모의평가는 물론 2021~2023학년도 3년 치 수능의 국어·수학 과목 문제를 분석한 상황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3월부터 수능이 교육과정 내에서 출제돼야 한다고 킬러 문항을 배제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그러나 6월 모의평가에서 이런 지시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교육부 담당 국장이 경질됐고, 평가원과 교육부에 대한 감사까지 결정됐다. 이규민 평가원장도 6월 모의평가에 대해 책임지겠다고 사임했다.

각 문항의 공식 오답률이 어느 정도인지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평가원은 수능 시험 3주 뒤 채점 결과를 공식 통보할 뿐, 가채점 결과나 선택과목별 표준점수, 오답률 등은 공개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학생들은 대형 사교육 업체 등 사설 대입 컨설팅 업체들이 추산한 오답률 정보에 의존했다. 실제로, 입시 업체들은 수능이 끝난 직후부터

수강생 가채점 결과 등을 토대로 예상 등급컷뿐만 아니라 영역별·선택과목별 표준점수 최고점 예상치 등을 내놓는다. 수험생들이 수능 이후 3주 동안 이러한 정보들을 수집하기 위해 사교육 컨설팅 업체에 물리는 이유다.

이에 교육계에서는 평가원의 가채점 결과 공개 등 정보 공개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해왔다. 수시·정시모집 지원 등의 방향성을 사교육 업체에 의존하는 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정재영 이화여대 교육학과 교수는 “평가원이 모든 정보를 공개할 필요는 없지만, 학생들이 사교육업체의 정보에 의존해 대입을 준비하지 않도록 정보 공개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예컨대, 선택과목 간 유·불리에 따른 수험생 불안감 해소를 위해 국어·수학 영역 내 ‘선택과목’ 표준점수 최고점 등은 일부 공개하는 방식이다. 손현경 기자 son89@

‘코로나 시국 집회’ 민노총 관계자, 2심도 벌금형

코로나19가 확산하던 2020년 광복절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를 강행한 전국 민노총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노총) 관계자들이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제9형사부(재판장 이성복 부장판사)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일반교통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재하 전 민노총 비대위원장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40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나머지 관계자들에 대해서도 벌금 100~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해 보더라도 원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김 전 위원장에 대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민노총 관계자들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당시 서울시는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서울 도심 안에서 10인 이상의 대규모 집회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에 민노총은 기자회견으로 행사 방식을 바꿨지만,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는 등 집회와 유사하게 진행되면서 비판이 나왔다. 송석주 기자 ssp@

‘세계 최고’를 향한 스마트공장 지원 확대

SAMSUNG

삼성전자는 2015년 ‘같이 나누고 함께 성장하는 것이 세계 최고를 향한 길’이라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동행 철학에 따라 삼성의 제조혁신 기술과 성공 노하우를 제공해 국내 중소·중견기업의 경쟁력 제고와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는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 사업’을 시작했다.

삼성전자는 ‘ESG&스마트공장지원센터’라는 전담조직을 통해 제조현장 혁신 △공장운영 시스템 구축 △제조 자동화 등 분야에서 총 200여 명의 사내 전문가를 선발, 기업별 상황에 맞게 노하우를 전수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생산성 향상과 현장 혁신 지원뿐만 아니라 △국내외 판로개척 △전문 인력 양성 교육 △애로기술 해결 지원 등을 통해 자생력 확보를 돕고 있다. 지원이 완료된 후에도 ‘스마트365센터’ 운영을 통한 사후관리로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2015년부터 2021년까지 2800여 개사에 스마트공장 구축을 지원했다. 지난해 하반기



지난해 11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을 받은 부산 중소기업 동아플레이팅을 방문해 제조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제공 삼성전자

부터 지원을 시작한 업체를 포함하면 3000개사가 넘는다.

삼성전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방역 물품 부족 현상이 빚어졌을 때 마스크, PCR 진단키트, LDS 주사기, 자가진단키트 등을 제조하는 중소기업의 스마트공장 구축을 지원해 생산성을 비약적으로 끌어올리며 위기 극복에 기여해 왔다. 충남의 비데 업체 에이스라이프는 스마트공장 구축 이후 10주 만에 생산량이 2배 늘었다. 부산의 동아플레이팅은 스마트공장 도입 후 근무 환경 개선, 생산성 37% 증가, 불량률 77% 감소 효과를 봤다.

‘사회성과인센티브’ 호평...국내외 확산 노력



올해 1월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독창적 아이디어로 제안하고 추진한 사회성과인센티브(Social Progress Credits) 프로그램이 다보스포럼에서 호평을 받았다.

최태원 회장은 다보스포럼에 전 세계 정·재계 리더들과 석학들이 모여 글로벌 문제 해법을 모색한다는 점을 감안, 10년 전인 지난 2013년 다보스포럼에서 사회적기업들이 창출하는 ‘사회성과’에 비례해 ‘현금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사회성과인센티브 프로그램을 처음으로 제안했다.

SK그룹이 지난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326개의 사회적기업이 참여한 가운데 사회성과인센티브를 운영한 결과, 이들 사회적기업이 △일자리 창출 △사회 서비스 제공 △환경문제 해결 △생태계 문제 해결 등 4개 분야에서 총 3275억 원의 사회성과를 창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SK그룹은 인센티브로 총 527억 원을 사회적기업들에 지급했다. 재원은 SK가 설립한 사회적기업 ‘행복나래’와 SK 멤버사들이 낸 기부금으로 마련됐다. 인센티브



최태원 SK 회장이 2013년 1월 다보스포럼 임팩트 투자 세션에서 사회적기업 활성화를 위한 SK식 전략과 비전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제공 SK

지급으로 재정적 안정을 찾은 사회적기업들의 성장세가 두드러졌다.

이런 성과에 국제 경영학술계도 주목했다. 하버드 경영대학원이 발간하는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HBR)’는 지난 2020년 1월 ‘SK그룹: 사회성과인센티브(SK Group: Social Progress Credits-SPC)’ 사례연구를 게재했다. SK가 출자해 설립한 비영리연구재단인 사회적가치연구원(CSES) 관계자는 “사회적가치연구원은 경기도 화성시와 사회적기업 지원정책 협력사업을 추진 중이고, 사회성과인센티브 국내의 확산에도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스타트업 글로벌 성장 지속 발빠른 대응



현대자동차그룹은 스타트업과 함께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현대차그룹은 지난 15일 ‘현대차그룹 오픈이노베이션 테크데이’를 개최하고 스타트업 생태계와의 상생 전략을 비롯해 개방형 혁신 성과, 스타트업 협업 체계 등을 발표했다. 이날 행사에는 △모빌 △모빌테크 △메타버스 엔터테인먼트 △뷰메진 △어플라이즈 등 현대차그룹과 협업 중인 5개 스타트업의 주요 기술을 전시해 스타트업 생태계와의 공존의지를 강조했다.

현대차그룹은 혁신 아이디어를 지닌 스타트업을 발굴·투자하는데 그치지 않고 다양한 육성 프로그램 운영과 실증 사업 지원, 기술 노하우 공유 등을 통해 성공적인 시장 안착과 원활한 제품·서비스 개발을 돕고 있다. 이는 그룹의 내부 자원과 스타트업의 아이디어 및 밸류체인을 결합해 급변하는 외부 생태계에 민첩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 미래 신사업, 신기술 창출 기회를 선제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차원이다.

현대차·기아는 오픈이노베이션 활동을 본격 강화



현대차·기아 오픈이노베이션추진실 황윤성(왼쪽 네 번째) 상무가 현대자동차그룹 ‘오픈이노베이션 테크데이’에서 참석자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제공 현대자동차그룹

하기 시작한 2017년부터 올해 1분기까지 200여 개 이상 스타트업에 1조3000억 원을 투자했다.

현대차·기아가 투자한 스타트업들의 사업 분야는 모빌리티 서비스 분야를 비롯해 전동화, 커넥티비티, 인공지능(AI), 자율주행, 에너지, 로보틱스 등 미래 신사업 영역을 아우른다.

앞으로도 현대차그룹은 국내를 포함한 전 세계 수많은 스타트업들과의 협력 관계 구축을 통해 미래 혁신 성장동력을 선점하고, 이들의 글로벌 성장이 원활히 지속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ESG 경쟁력 강화’ 위해 해외협력사도 지원



LG전자는 국내외 협력사들의 경쟁력 확보를 상생의 핵심 요소로 생각한다. 이를 위해 협력사가 경영에 집중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실천해오고 있다.

특히 협력사의 ESG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에 집중하고 있다. LG전자는 지난 2년간 협력사 100곳에 글로벌 ESG 인증기관을 통한 ‘ESG 관리역량 적합성’ 인증심사를 지원해왔다. 올해부터는 인증심사 지원대상을 해외 협력사까지 확대했다.

협력사의 ESG 교육과 컨설팅 지원을 통한 자가 점검 역량 강화에도 힘쓴다.

LG전자는 최근 평택디지털파크와 창원 LG스마트파크 동반위(동반성장위원회)와 LG전자 협력사 대표이사를 대상으로 ‘LG전자 동반성장 ESG 교육’을 진행했다.

협력사 사업장 안전 역시 상생의 큰 축으로 삼았다. 2015년부터 상·하반기에 화재·안전사고 위험이 큰 생산공정이나 설비를 보유한 협력사의 정기점검



LG전자는 올해 4월 전경련중소기업협력센터와 ‘협력사 ESG 경영지원과 동반성장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사진제공 LG전자

을 시행해 협력사 스스로 사업장 내외부에 화재·안전사고를 예방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ESG 경영 지원은 물론 금융지원도 아끼지 않는다. LG전자는 협력사가 대금 결제일에 조기 현금화로 자금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는 상생결제시스템을 2015년부터 도입해 적극 운영해왔다.

한편 LG전자는 2013년부터 매년 협력사들을 대상으로 ‘생산성 개선 우수사례’ 공유회를 개최하고 있다. 제조경쟁력을 높인 협력사 우수사례를 다른 협력사들에게도 공유해 함께 성장하는 선순환 구조로 이어지게끔 돕는다.

지역사회와 더 나은 세상 위해 20년 봉사활동



포스코봉사단은 최근 광양제철소에서 창단 20주년 기념행사를 열었다고 25일 밝혔다. 20주년 기념행사는 오랜 기간 묵묵히 봉사활동에 참여한 임직원들과 포스코의 나눔 DNA를 확산하는 데 힘을 보태 준 지역 사회기관에 노고에 감사함을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

축하공연은 포스코봉사단과 지역 주민들이 함께 마련됐다. 포스코 프리덤 통기타 재능봉사단, 광양 지역 시니어로 구성된 은빛사랑합창단, 다문화 아동 국악동아리인 다누리 사물놀이단이 직접 공연해 봉사단 20주년이란 뜻깊은 자리의 의미를 살렸다. 특히, 이번 기념행사에서는 20주년을 맞아 봉사와 나눔이 포스코 고유의 문화로 자리 잡는데 기여한 사외 2개 파트너 기관과 묵묵히 봉사와 나눔을 실천한 사내 2개 우수봉사단에 대한 ‘볼런티어 챔피언(Volunteer Champion)’ 시상식이 진행됐다.

사외 파트너 기관으로는 체계적이고 다양한 노인복지서비스를 임직원 봉사와 연계해 제공한 포항재가노



14일 열린 포스코봉사단 20주년 기념행사서 포스코 포항 행복나눔복지봉사단, 포항재가노인통합지원센터, 광양 중마 노인복지관, 포스코 광양 클린오션봉사단이 볼런티어 챔피언으로 선정됐다. 사진제공 포스코

인통합지원센터와 광양 중마노인복지관이 선정돼 많은 축하를 받았다. 김학동 포스코봉사단장 포스코 부회장은 이날 “지난 20년간 우리가 한결같은 마음으로 봉사와 나눔을 지속해온 것처럼 앞으로도 변함없이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데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포스코봉사단은 창단 후 무려 820만 시간이 넘는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2023년 5월 기준 200시간 이상 봉사시간을 달성한 임직원은 총 9453명으로 전 직원의 50% 이상이 200시간 이상 봉사참여를 인증받았다.

‘노벨 과학자’ 꿈꾸는 학생들과 해외 탐방



한화그룹의 한화사이언스챌린지 수상자 19명이 지난 1월 8일부터 1월 15일까지 6박 8일 일정으로 독일과 스위스의 친환경 실현단지과 연구기관, 산업 단지를 방문하는 해외탐방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한화사이언스챌린지는 2011년부터 김승연 회장의 ‘한국의 젊은 노벨 과학상 수상자 양성’이라는 모토로 11회째 진행된 과학 아이디어 경진대회다. 해외탐방에 참여한 학생들은 재생에너지를 활용해 에너지 자립도 100%를 이룬 독일 탈하임의 펠트하임 마을 방문을 시작으로 스위스 취리히연방공과대학교, 한화큐셀 독일 R&D(연구·개발)센터와 세계 10대 천체 물리학 연구소 중 하나인 포츠담 천체 물리학 연구소를 방문하며 일정을 마무리했다. 첫 방문지인 독일 펠트하임 마을은 풍력과 태양광을 활용한 재생에너지 전기발전 및 바이오가스 발전을 통해 난방까지 자체 생산하는 100% 에너지 자립 마을로 유명하다. 스위스 취리히연방공과대학에서는



한화그룹의 한화사이언스챌린지 수상자 19명이 올해 1월 8일부터 15일까지 6박 8일 일정으로 독일과 스위스의 친환경 실현단지과 연구기관, 산업 단지를 방문하는 해외탐방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사진제공 한화

로봇 시스템과 초소형 컴퓨터 반도체 그리고 의료 물리학에 대해 심도 깊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다. 탐방 이후 전기공학과 통합시스템 연구소에 재직 중인 장태광 교수와의 특별 강연과 질의 응답시간이 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학생들이 가장 관심을 가진 곳은 한화큐셀 독일 R&D 센터였다. 끊임없는 기술혁신으로 글로벌 최고 수준의 태양광 솔루션을 보유하고 있는 한화그룹의 유럽 친환경 사업 전초 기지다.

혼자보다는 함께... 동반성장 상생경영 박차



롯데는 파트너사들과 상생 활동을 이어나가며 국내를 넘어 해외까지 확장하는 동반성장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롯데는 파트너사들과 긴밀한 신뢰를 바탕으로 함께 발전할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들며, 공정거래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25일 롯데지주에 따르면 롯데는 지난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호주 시드니에서 중소기업 해외시장 판로개척을 위한 '롯데-대한민국 브랜드 엑스포' 수출상담회를 진행했다.

대한민국 브랜드 엑스포는 2016년 판로 개척에 어려움을 겪는 국내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돕기 위한 롯데홈쇼핑의 상생 프로그램으로 시작됐다. 지난해부터 롯데지주와 유통 6개 계열사가 협업하는 그룹 통합사업으로 확대됐다. 올해 롯데유통, 롯데GRS와 롯데벤처스가 힘을 보탤다.

수출상담회에는 국내 우수 중소기업 100개 사와



5월 호주 시드니에서 열린 롯데-대한민국 브랜드 엑스포에서 국내 기업과 현지 바이어가 상담하고 있다. 사진제공 롯데지주

오세아니아 지역 바이어 약 150명이 참여했다. 1대 1 수출상담, 상품 입점 노하우 제공, 제품 현지화 컨설팅 등을 진행해 누적 상담 건수 595건, 상담 금액은 620만 달러를 기록했다.

계열사들도 동반성장 활동에 적극적이다. 롯데이커머스는 2019년부터 약 80억 원 규모의 동반성장 펀드를 운영 중이다. 롯데마트 동남아법인은 경북, 충남, 부여, 청송과 업무협약을 맺고 사과, 배, 복숭아 등을 주력으로 수입하고 있다. 롯데유통은 7월 까지 한정판으로 '해남녹차 빼빼로'를 판매한다.

사회적기업 판로 개척... 가치실현 브랜드로



이마트 노브랜드가 중소기업과의 협업으로 동반 성장에 앞장선다. 제품을 함께 만드는 것 외에도 사회적기업의 판로 개척에도 힘쓴다. 이마트는 생수 제조사 '하인바이오'가 2016년 노브랜드 생수 출시 이후 4년 만에 연매출이 10배 이상 성장했다고 25일 밝혔다.

노브랜드는 현재 1500여 종의 상품을 판매 중인데 이중 70%의 상품이 중소기업에서 생산된다. 노브랜드에 상품을 납품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수만 해도 300개가 넘는다. 다양한 기업과 동반성장을 도모하며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브랜드로 성장했다.

ESG 굿즈 두 번째 상품으로 사회적기업 할리케이와 페트병 재활용소재 섬유를 제작한 업사이클링 제품 '친환경 파우치'를 개발했다. 폐플라스틱 재활용 소재의 의미를 살리고자 제품명을 'Message in the Bottle'로 정했다. 포장 상자는 FSC인증 종이 소재 박스를 사용했다. 강화도 소재 '우리마을'은



이마트 노브랜드 상품 모습. 사진제공 이마트

성인 발달장애인에게 안정적 일자리와 직업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다. 현재 발달장애인 약 50명이 우리마을에서 일한다.

노브랜드는 발달장애인이 손수 만들어내는 커피박(찌꺼기)으로 만든 친환경 연필 판로 확대에 앞장서고 있다. 지난해에는 커피박 연필의 품질·상품성을 검증하는 차원에서 총 2만5000자루의 연필을 구매했다. 향후 주문량을 늘려 우리마을 연 매출의 약 10% 해당하는 수준의 재활용 상품 구매에 나설 예정이다.

'고객 몰입경영'으로 中企 해외개척 팔걸어



효성이 고객몰입 경영 활동을 통해 고객사와 동반성장을 이끌어간다.

조현준 효성 회장은 올해 초 신년사를 통해 새해 필승 전략으로 '고객 몰입 경영'을 선포했다. 고객 몰입 경영은 고객 최우선주의를 실천하는 것으로 경영 활동의 처음부터 끝까지 고객이 가장 중심이 되는 경영을 뜻한다.

평소 '고객사의 경쟁력이 곧 우리의 경쟁력'이라고 강조해온 조 회장은 국내 중소기업인 고객사들의 경쟁력 강화와 해외판로 개척을 위한 홍보활동, 외부 컨설팅 지원과 협력사의 친환경 인증 발급비용 등을 지원하며 섬유 시장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섬유 계열사 효성티앤씨는 글로벌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고객사의 해외시장 개척을 지원하고 있다.

효성티앤씨는 중소기업들의 해외 진출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프리뷰인 서울, 대구 국제섬유전시회, 상하이 인터텍스타일, 독일 아우토어 전시회 등 세계적인 섬유전시회에 고객들과 동반 참가하거나 서로 강점이 있는 분야에 협력하고 있다.



세계적인 섬유전시회 중 하나인 파리 인터필리에르 전시회에 효성이 고객사와 동반참가해 글로벌 고객을 만나고 있다. 사진제공 효성

효성티앤씨는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 코로나 19로 인해 해외 전시회가 취소돼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을 지원했다. 해외 브랜드와의 온라인 화상 미팅을 진행하며 제품 홍보의 장을 마련하고, 해외시장 판로 개척을 도왔다.

글로벌 섬유, 패션 트렌드 변화 등을 알 수 있는 온라인 전시회, 세미나 등 다양한 비대면 프로그램을 열어 중소기업들이 해외 바이어를 만날 수 있는 자리도 마련하고 있다. 자체 친환경 리유브랜드도 런칭해 코로나19로 의류 수요가 감소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봉제 업체와의 협업을 진행하고 있다.

파트너사 품질 경쟁력·수익성 확보 지원



LG에너지솔루션은 다양한 상생 활동을 통해 협력사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동반 성장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LG에너지솔루션은 LG화학 전지사업본부 소속 이던 2019년부터 출범 이후인 지금까지 매년 초 '파트너스 데이'를 통해 파트너사들과 주요 계획을 논의해왔다. 지난해부터 기존 협력회사라는 호칭 대신 '파트너사'로 명칭을 변경하고, 행사명도 동반성장 콘퍼런스에서 '파트너스 데이'로 변경했다.

지난해에는 구매 부분 내 '배터리 셀·팩 상생팀'을 신설했다. 상생팀은 LG에너지솔루션의 경험과 기술력을 활용해 파트너사의 다양한 혁신 활동을 지원하는 조직이다. 생산성 향상, 물류비 절감 등 단기 과제를 통한 원가 경쟁력 확보를 돕는다. 현지화 기반의 밸류 체인 구축, 신기술 발굴 지원 등 중장기 과제도 함께 수행할 계획이다.

LG에너지솔루션은 파트너사에 대한 품질 및 기술·생산성 혁신 강화를 위한 지원도 아끼지 않고 있다. '동반성장 투자지원펀드'가 대표적이다. LG에너지솔루션이 금융기관에 예치한 자금을 기초로



LG에너지솔루션 오창 에너지플랜트 전경. 사진제공 LG에너지솔루션

협력회사에 이자 혜택을 제공하는 대출펀드로 2020년 1500억 원 규모로 조성됐다. 이를 통해 설비투자나 운영비용이 필요한 중소기업이 저리로 대출받을 수 있는 금리 우대 등 금융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파트너사가 품질 경쟁력과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조 프로세스 개선, 품질 관리 시스템 강화 등도 지원하고 있다. 파트너사의 생산성 혁신 활동을 지원하는 '동반성장 아카데미'를 1년에 두 차례 진행하고 있다. 2021년에는 53개 협력회사를 대상으로 20여 개 과목을 개설하고 해외 협력회사까지 교육 대상을 확대 운영했다.

中企 정보보호 강화... ESG경영 실천 앞장



CJ그룹 CJ올리브네트웍스는 중소기업의 정보 보호 역량 강화 활동을 추진하며 ESG경영 실천에 앞장서고 있다.

2020년부터 운영 중인 CJ화이트햇은 중소기업의 안전한 디지털 정보보호 환경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CJ화이트햇은 중소기업들이 해킹 위협으로부터 안전하게 사업을 하도록 모의 해킹, 개인정보 컴플라이언스 점검, 정보보호 교육 등을 무료 제공한다. 지난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파인더랩이 함께 '화이트햇 투게더'를 추진하며 고도화했다.

올해는 지원 규모를 늘리고 프로그램을 다양화했다. 대상에 중견기업을 포함하고 지원 기업 수도 작년 20여 개에서 올해 최대 50개 기업으로 확대했다. 총 예산도 5억 원으로 전년 대비 약 3배 늘렸다.

올해 8월 화이트해커들이 모여 중소기업들의 해킹 취약점을 찾고 나서 보안 조치를 지원하는 보안 취약점 신고제 '버그바운티' 대회를 연다. 우수 하



CJ올리브네트웍스 화이트해커들이 사진 취약점을 찾고 있다. 사진제공 CJ올리브네트웍스

이트해커에게는 총 상금 3000만 원이 취약점 별로 차등 지급된다. 참가를 원하는 중소·중견기업은 7월 7일까지 오픈 이노베이션 플랫폼 '허브팟'에서 참가 신청을 하면 된다.

CJ올리브네트웍스 CJ정보보호센터는 정보보호의 중요성이 점차 강조되고 있는 흐름에 맞춰 지난 30여 년 간 CJ그룹 정보보호를 담당하며, 다년간 쌓아온 역량과 경험을 기반으로 대외 사업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한국 대표 ICT 혁신기업 유럽진출 지원



KT는 매년 열고 있는 유럽 최대 규모의 스타트업 박람회 '비바 테크놀로지 2023(비바텍 2023)'에서 국내 ICT 혁신 기업 전시를 열고 기업들의 유럽 시장 진출을 돕고 있다.

올해 비바텍은 지난 14일부터 17일(현지시간 기준)까지 프랑스 파리에 위치한 엑스포장에서 열렸다. 2016년부터 시작된 비바텍은 130여 국에서 1300여개 스타트업을 포함한 8000여 개 기업과 13만 명의 관객이 참가하는 유럽 최대 스타트업 행사다.

올해는 주최 측에서 '올해의 국가'로 한국을 지정해 우리나라에서 선보이는 다양한 기술과 솔루션에 현지 관심이 집중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메인 행사장 중앙에 'K-start up'을 테마로 한국관을 구성했으며, 한국관에 소재한 ICT 수출 기업 전시는 KT에서 담당했다.

KT는 실질적인 유럽 진출 성과를 위해 통신·미디어 장비부터 AI 솔루션까지 ICT 전 영역을 아우르는



KT는 프랑스 파리에선 유럽 최대 규모의 스타트업 박람회인 '비바 테크놀로지 2023(비바텍 2023)'에서 국내 대표 ICT 혁신 기업 전시를 열고 이들의 유럽 시장 진출을 도왔다. 사진제공 KT

혁신 기업을 엄선해 수출 전시관 라인업을 완성했다.

조훈 KT SCM전략실장은 "비바텍은 스타트업의 성장과 해외 진출에 특화된 글로벌 박람회로 참가 기업들이 유럽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KT와 함께 집중적인 준비를 했다"며 "특히 이번 행사에서 올해의 국가로 한국이 지정돼 한국관이 많은 관심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분위기를 적극 활용해 유럽 진출 성과를 올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대건설 힐스테이트 선화 더와이즈

‘VIP 컨시어지 서비스’부터 키즈특화 공간 조성

현대건설은 대전광역시 중구 선화동에 초고층 주상복합아파트 ‘힐스테이트 선화 더와이즈’를 분양 중이다.

단지는 대전 도심융합특구 사업지구로 지정된 선화 구역과 대전역세권 구역은 물론 유치를 앞둔 국가산업단지에도 인접해 있다.

힐스테이트 선화 더와이즈는 지하 5층~지상 49층, 5개 동, 전용면적 84~174㎡ 총 851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대전지하철 1호선 중앙로역을 도보로 이용 가능하고 중앙로역을 통하면 대전역(지하철, KTX·SRT 경부선)까지 약 5분 만에 이동할 수 있다.

사업지 인근에 충청권 광역철도 신설역인 중촌역이 예정돼 있으며 충청권 광역철도 2단계(예정) 확정 시 신탄진~청주공항까지 연결이 가능해 교통 편의성은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단지 인근에는 선화초등학교를 비롯해 충남여중·고, 대정중·고, 보문중·고 등 명문학군이 위치해 있고 둔산동 학원가도 가깝다.

힐스테이트 선화 더와이즈는 국내 정상급 VIP 컨시어지 서비스 기업 ‘뚝다’와 업무협약을 맺고 수준 높은 대면형 컨시어지 서비스를 제공한다. 가구 내 쓰레기 배출을 돕는 ‘쓰레기 배출 대행 서비스’, 컨시어지가 아이들과 영어로 대화하는 ‘키즈 케어 서비스’ 등이다.

청소·세차·세탁은 물론 정리수납, 교육, 공항의전, 골프장의전 등의 대행업체를 추천해 주는 비대면 실비 서비스도 제공한다. 힐스테이트 선화 더와이즈는 컨시어지 서비스를 2년간 제공하고 이후에는 입주인이 자유롭게 협의해 진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다양한 교육 시스템과 프로그램도 제공된다. 우선 대치동 학원가 출신 강사진으로 구성된 학원 브랜드인 ‘대치누리교육’의 입점이 확정됐다.

입주민의 다양한 라이프스타일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커뮤니티 시설도 조성했다. 키즈특화 공간인 H-아이숲을 통해 안전한 놀이공간을 확보했고 공유다인링을 도입해 가족이나 지인과 간단한 식사나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공간도 만들었다.

또 단지 인근으로 코스트코, 홈플러스가 자리 잡고 있고 대충동 문화의 거리, 둔산·탄방동 상권과 가까워 편리한 생활이 가능하다. 대전의 교육, 생활, 행정 중심지인 둔산지구와도 인접해 주요 공공시설과 백화점, 예술의전당 등 각종 문화·편의시설 이용이 수월하다.

GS건설 둔산 자이아이파크

1974가구 규모 대단지... 직주 근접성 탁월

GS건설은 대전광역시 서구탄방동일원에 ‘둔산 자이아이파크’를 분양한다. 둔산자이아이파크는 지하 2층~지상 42층, 12개 동, 전용면적 59~145㎡ 총 1974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이 중 1353가구가 일반분양이다.

둔산 자이아이파크는 둔산신도시에 1998년 이후 처음 들어서는 1000가구 이상 대단지 아파트다.

탄방동은 대전의 중심으로 불리는 둔산신도시 생활권이라 편리한 주거생활이 가능하다.

갤러리아백화점과 롯데백화점, 이마트, 세이브존, CGV, 메가박스 등의 편의시설이 근방에 있고 행정타운 내 정부대전청사, 시청, 교육청, 검찰청, 경찰청 등 각종 공공기관과 금융기관도 쉽게 이용할 수 있다. 을지대학교병원도 가깝고 보라매공원, 남선공원 등도 생활권 내에 위치했다. 백운초, 괴정중·고 등의 학교는 도보권이며 전국적으로 인기가 높은 둔산 학원가도 근처다.

교통 환경도 잘 갖춰졌다. 32번 국도가 단지와 접해 있고 대전 지하철 1호선 탄방역을 걸어서 갈 수 있다. KTX 서대전역, 대전역 등 광역철도는 물론이고 경부고속도로, 호남고속도로 지선 등 고속도로 진입도 용이하다.

충남 계룡부터 신탄진까지 35.4km를 잇는 충청권 광역철도 1단계 사업도 올해 말 착공예정이다.



단지 인근에 있는 서대전역에 정차하는 해당 철도가 완공되면 교통 환경은 더욱 개선될 전망이다.

정부대전청사를 비롯한 다양한 공공기관과 다수의 대학교 등이 있어 직주근접성도 뛰어나다. 국가산단 후보지로 지정된 유성구와도 가까워 주거 배후 수요가 더욱 풍부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둔산 자이 아이파크는 남향 위주 단지 배치로 채광성을 높였고 일부 타입에 양면 개방, 3면 개방 등의 특화설계를 적용해 개방감도 극대화했다. 입주민 편의를 위한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도 들어선다. 사계절 이용 가능한 수영장과 키즈풀, 실내골프연습장, 피트니스클럽, 탁구장, 작은도서관, 독서실, 카페테리아 등이 만들어질 예정이다.

24시간 전기·가스·수도 사용량을 체크하고 관리하는 에너지 관리시스템, 스마트폰 블루투스로 공동 현관 자동문과 엘리베이터가 열리는 스마트 패스, 차세대 실내 환기 시스템 등 최신 주거시스템도 적용된다.

포스코이앤씨 더샵 연동애비뉴

최첨단 시설 설계·교육·입지 ‘삼박자’

㈜아일랜드원이 시행하고, 포스코이앤씨가 시공을 맡은 ‘더샵연동애비뉴’가 다음 달 분양에 나선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 시 연동 일대에 들어서는 단지는 지하 5층~지상 18층, 총 204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전용면적별로 △69㎡ 51가구 △84㎡ 153가구다. 상업시설도 지하 1층~지상 1층에 조성된다.

단지는 제주에서도 입지가 좋은 연동 제원아파트 사거리 인근에 들어선다. 연동은 드림타워, 롯데시티호텔, 신라면세점, 누웨마루거리(구 바오젠거리)가 위치해 제주의 ‘명동’으로 불린다. 제주국제공항, 노형오거리, 제주시버스터미널 등과 가깝고 도령·노연·일주서로 등을 통해 제주 내 모든 지역을 차로 1시간 내외에 이동할 수 있다.

이외에도 이마트, 롯데마트 및 신라면세점, 롯데면세점, 제주한라병원 등 생활 편의시설과도 가깝다.

교육환경도 우수하다. 신광초, 노형중, 한라중, 남녕고, 제주제일고 등 다수의 초·중·고교가 반경 2km 이내에 자리잡고 있다. 삼무공원, 삼다공원, 연동근린공원, 노형근린공원 등 녹지도 풍부하다.

차별화된 설계도 돋보인다. 전기차 충전용 과금형 콘센트가 주차장 기둥에 추가적으로 설치되며, 스마트홈 서비스인 아이큐텍(AiQ TECH)으로 조



명, 난방, 가스 차단 및 환기 등을 외부에서도 제어할 수 있다. 스마트 감성조명 더샵 루미나도 옵션으로 만날 수 있다. 취향과 기분, 공간을 이용하는 목적에 따라 편리하고 자유롭게 컨트롤하는 조명 특화 옵션이다. 최첨단 기술을 적용한 스마트홈 앤 시큐리티 시스템도 적용된다.

분양 관계자는 “더샵 연동애비뉴는 사명 변경 후 제주에서 처음으로 선보이는 더샵 아파트인 만큼 제주는 물론 서울에서도 관심이 높은 상황”이라며 “새로운 주거중심지로 변모할 제주의 중심 상업지 연동에서 높은 상품성과 뛰어난 브랜드 가치를 선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단지는 지난 3월 새로운 사명을 선포하고 새로운 도약을 다짐한 포스코이앤씨가 천혜의 자연 환경을 갖춘 제주에 선보이는 더샵 아파트다. 포스코이앤씨는 더샵 연동애비뉴에 포스코이앤씨의 특별한 ESG 경영철학을 담아 친환경 프리미엄 브랜드에 걸맞은 상품을 선보인다는 계획이다.

계룡건설 엘리프 미아역

미아역 1분... 마트·영화관 등 생활 인프라 풍부

계룡건설은 서울 강북구 미아동 지하철 4호선 미아역 초역세권에 있는 주상복합아파트 ‘엘리프 미아역’을 선착순 특별분양 중이다.

정당계약 부적격자와 일부 미계약자 물량에 대한 선착순 동호 지정으로 원하는 동호를 직접 선택할 수 있다. 만 19세 이상이면 거주지역에 관계없이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고 누구나 계약 가능하다.

엘리프 미아역은 지하 5층~지상 24층, 3개 동, 전용면적 49~84㎡ 총 260가구 규모로 조성되며 고급리 상향에서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중도금 2%’의 파격적인 계약조건을 갖췄다.

계약 조건은 계약금 10%, 중도금 20%, 잔금 70%가 기본인데 계약금과 중도금 2%만 내면 나머지 88%는 입주 후에 내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사실상 중도금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 전매제한은 당첨일로부터 1년이라 중도금 부담 없이 분양권을 보유하다가 거래가 가능해지면 입주대신 매도를 선택할 수도 있다.

엘리프 미아역은 2단지를 기준으로 지하철 4호선 미아역까지 1분이면 이동 가능한 위치다. 종로, 동대문까지는 20분대로 출퇴근할 수 있다. 은평, 서대문, 일산, 고양, 고양 삼성, 상암DMC, 마포, 을지로, 강남 등으로의 접근성도 뛰어나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운정-동탄 구간도 공사 중이다.



엘리프 미아역이 들어서는 서울 강북구 미아동 일대는 미아뉴타운을 포함해 약 16곳에서 대규모 정비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단지 인근으로 롯데백화점, CGV, 이마트하이마트 등 풍부한 생활 인프라가 밀집돼 있고 뛰어난 학군도 갖췄다.

단지 바로 앞에 강북구 유일의 자율형사립고인 신일고등학교와 신일중학교가 있어 도보 통학이 가능하며 반경 1km 안에 화계초 등 초등학교 3곳, 중학교 2곳, 고등학교 2곳 등이 있다.

단지 주변에 쾌적한 자연환경을 누릴 수 있는 벽오산 어린이 공원, 오패산, 북서울꿈의숲 등도 위치했다.

엘리프 미아역에는 다양한 근린생활시설도 들어선다. 단지 전면에는 삼지형 공원이 만들어지고 서울시 공공건축가가 설계할 ‘거점형 키움센터’도 마련된다. 지역 청소년을 위한 ‘청소년문화의집’도 조성될 예정이다.

DL이앤씨 e편한세상 원주프리모원

C2 하우스 특화설계로 나만의 취향 반영

DL이앤씨가 강원 원주시 판부면에서 'e편한세상 원주프리모원' 분양에 나선다. 이 단지는 원주 핵심 생활권 중 한 곳인 무실지구 생활권에 속해 우수한 주거 환경을 누릴 전망이다.

'e편한세상 원주 프리모원'에는 원주시에서 처음으로 'C2 하우스' 특화 설계 또한 적용된다. C2 하우스는 다양한 고객의 취향을 반영해, 집을 단순히 머무는 공간이 아니라 자아실현과 휴식이 모두 가능한 '멀티 유즈'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가변형 구조와 최적의 주거 동선으로 설계된 e편한세상만의 라이프스타일 맞춤 주거 플랫폼이다.

e편한세상 원주 프리모원은 지하 2층~지상 25층, 6개 동, 전용면적 59~102㎡ 총 572가구 규모다. 전용면적별로는 △59㎡ 137가구 △74㎡ 213가구 등 총 350가구가 소형 평형으로 공급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 통계에 따르면 원주시의 1~2인 가구의 비율은 전체 가구 수의 약 67.1%다. 이는 전국 평균인 65.7%보다 높은 수준이다.

하지만, 원주 내 소형 평형 신규 공급은 지난해 8월 이후 없어 신속 소형 분양에 대한 주목도가 높을 것으로 보인다.

이 단지는 근처에 생활 인프라가 완비돼 우수한 주거 환경을 갖췄다는 평가다. 반경 3km 내 2곳의 대형마트(홈플러스, 이마트)를 비롯해 대형 종합병



원(원주의료원, 세브란스기독병원), 법원, 시립도서관, 고속버스터미널 등이 자리잡고 있다. 또 반경 약 1km 거리에 서원초와 남원중 등 학군도 형성돼 있다. 단구근린공원, 중앙공원, 무실체육공원 등 다수의 녹지도 가깝다.

개발 호재도 갖췄다. e편한세상 원주 프리모원은 원주시의 중심 개발축인 원주혁신도시와 KTX가 지나가는 원주역 인근 '남원주역세권 개발사업' 사이에 들어선다. 이에 개발에 따른 유동인구 증가 등의 수혜가 기대된다. 또 원주 혁신도시는 단지에서 직선 약 4km 거리로 대중교통으로 30분 내외로 접근할 수 있다. 혁신도시에는 현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국관광공사 등 12개 기관이 운영 중이다. 10월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제2사옥 추가 건립도 예정됐다.

e편한세상 원주 프리모원 견본주택은 강원 원주시 단구동에 마련된다. 입주는 2025년 11월 예정이다.

대우건설 서울대벤처타운역 푸르지오

반경 1km 이내에 초중고 모두 갖춘 '교세권'

대우건설이 신림 뉴타운 첫 분양 단지 서울대벤처타운역 푸르지오의 견본주택을 열고, 본격적인 분양에 나선다.

서울 관악구 신림동 일대에 조성되는 단지는 지하 4층~지상 17층, 총 571가구 규모다. 이 중 전용면적 51·59·74·84㎡ 182가구를 일반분양한다. 평균 분양가는 3.3㎡ 당 평균 2920만 원이다.

단지 주변에 여러 학교가 있어 교육 인프라가 좋다. 바로 앞에 신우초등학교가 있는 초포아 아파트다. 이외에도 광신중·고, 미림여고 등 단지 반경 1km 내 초중고교를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학군을 갖추고 있다. 이외에도 서울대, 경인교대 등 우수대학교도 가깝다.

교통 환경도 좋다. 신림선 서울대벤처타운역을 이용할 수 있으며, 전철로 이동시 여의도까지 17분, 2호선 및 1호선 환승 시 강남권까지 30분대 진입할 수 있다.

관악IC를 통한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와 삼막IC를 통한 제2경인고속도로로 이용도 편하다. 보라매공원과 관악구 난향동을 잇는 난곡지선에서 금천구청까지 남부연장이 추진되고 있고, 서부선의 신림선 관악산역(서울대)까지 연장도 진행 중이다.

푸르지오 브랜드만의 신규 입면 디자인도 적용했다. 평형 타입에 따라 드레스룸 및 파우더장, 넓은 다용도실 등이 제공된다. 또 아파트는 지상에 차가



없는 단지로 택배차량은 지하로 운행할 수 있게 설계됐다. 전기차를 위한 충전설비도 마련될 예정이다. 주택소유와 상관없이 누구나 1순위 청약이 가능하며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지 않는다. 또한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아도 되며 실거주의무가 없다. 전매제한은 1년이다.

다음달 3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4일 1순위 청약 △5일 2순위 청약 △11일 당첨자 발표 △24~26일 정당계약 순으로 일정이 진행된다. 입주는 2025년 5월 예정이다. 견본주택은 서울 강남구 일대 씨밧길리에 마련됐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서울대벤처타운역 푸르지오는 서울 서남부권의 최대 재개발지역인 신림뉴타운에서 첫 번째 분양하는 현장으로 새로운 주거 중심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서울대벤처타운역과 관악산 숲세권, 도보통학 안심학세권 등 우수한 주거 입지를 갖추고 있어 높은 청약 인기를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화건설 포레나 제주에듀시티

제주영어교육도시까지 차로 5분 '교육 중심지'

한화 건설부문이 제주 서귀포시 대정읍에 조성되는 대단지아파트 '포레나 제주에듀시티'를 분양 중이다.

포레나 제주에듀시티는 지하 1층~지상 5층, 29개 동, 전용면적 84~210㎡, 총 503가구 규모다.

제주도에서 기존에 분양된 타 단지에 비해 중형부터 대형까지 다양한 평형대로 구성된 점이 실수요자에게 인기를 끌 전망이다.

단지는 국내 최고 수준의 교육환경을 자랑한다. 제주영어교육도시와 차량 5분 거리에 위치해 있다. 현재 제주영어교육도시에는 세인트존스베리아카데미 제주, 노스런던칼리지에잇스쿨 제주, 브랜섬홀아시아, 한국국제학교 제주캠퍼스 등 4개의 국제학교가 개교한 상태다.

포레나 제주에듀시티는 다양한 생활 인프라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영어교육도시 내 주요 상업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며 프리미엄 리조트 '제주신화월드'와 대형마트를 차로 10분 내에 이동할 수 있다.

공원 탐방로가 조성된 꽃지왓 도립공원, 사계해안 등의 쾌적한 자연환경을 누릴 수 있고 블랙스톤CC, 테디밸리CC 등 레저시설도 가깝다.

포레나 제주에듀시티는 연면적 11만 7616㎡의 규모와 최고 5층 높이의 단지 구성으로 쾌적한 주거환



경도 갖췄다. 특히 총 3만 6000여㎡ 규모의 조경 설계가 적용돼 조경 비율을 약 40% 이상 확보했다. 여기에 지상에 차가 없는 단지 배치까지 더해진 공원형 에코타운으로 조성될 계획이다.

공원커뮤니티, 썬큰커뮤니티 등 4곳의 커뮤니티 시설을 입주민 동선을 고려해 배치했으며, 사업지역 내 단지 중 유일하게 주출입구와 부출입구를 각각 설치해 출퇴근 및 통학 시간에 혼잡 우려를 낮췄다.

또 가구당 1.9대의 지하주차장도 건립돼 넉넉한 주차공간을 확보했다. 단지 내 테마놀이터, 어린이 놀이터를 비롯해 피트니스센터 등 다양한 시설도 마련된다.

실수요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1차 계약금 1000만 원 정액제와 중도금 전액 무이자 금융혜택도 제공한다. 포레나 제주에듀시티 견본주택은 제주 서귀포시 대정읍 보성리에 위치해 있다.

우미건설 이천 중리 우미린 트리쉐이드

SK하이닉스·OB맥주 끼고 직주근접 수혜 ↑

우미건설이 다음달 경기 이천시 중리택지개발지구 B2블록에 '이천 중리 우미린 트리쉐이드'를 분양한다.

단지는 지하 2층~지상 20층, 11개 동, 총 849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전가가 선호도가 높은 전용면적 84㎡형으로 구성됐으며 A, B, C 타입으로 평면을 다양화했다.

특히 이 단지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면서 수요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실제로 올해 전국에서 분양했던 단지들 중 1순위 마감 단지를 대부분이 분양가 상한제 단지로 나타났다. △충북 청주 '신영지웰 푸르지오 테크노폴리스 센트럴' (73.75대 1) △청주 '해링턴 플레이스 테크노폴리스' (57.59대 1) △'청주 테크노폴리스 힐데스하임' (48.27대 1) 등은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며 두 자릿수 청약경쟁률을 기록했다.

단지가 있는 이천 중리지구는 향후 대단지 프리미엄을 누릴 수 있다. 초등학교 용지(계획), 근린공원 용지(계획) 등과 함께 약 4200여 가구로 계획된 택지지구다. 원도심과 인접해 기존의 풍부한 인프라를 공유할 수도 있다. 이천시청, 이천경찰서, 이천세무서 등도 가깝다.

직주근접 수혜도 기대된다. 단지는 SK하이닉스, OB맥주, 이천시청 등과 인접해 이들 근무자들의 배후수요 단지로 주목받는다. 교통 인프라도 좋다. 또한, 뛰어난 교통망을 통해 판교테크노밸리 등 수도



권 수요까지 흡수할 수 있다. 서이천IC를 통해 중부고속도로, 이천IC를 통해 영동고속도로로 진입할 수 있고 경강선 이천역 이용 시 판교, 분당, 광주, 여주 등 이동이 편리하다.

교육환경도 탁월하다. 단지 가까이에 유치원 용지(계획)·초등학교 용지(계획)가 있어 어린 자녀의 안전한 등·하교가 가능하다. 여기에 단지 앞 대형 근린공원에 예정돼 있어 편리성과 쾌적성을 동시에 잡을 수 있다.

단지 설계 특화도 눈에 띈다. 지상에 차량이 다니지 않는 아파트로 모든 차량이 지하에 주차되고(근린생활시설 제외), 지상은 공원으로 꾸며진다. 전 타입을 남향 위주 및 공원 조망권을 확보할 수 있게 설계해 쾌적성과 친환경 요소를 더했다.

커뮤니티 시설로는 피트니스클럽, 실내골프연습장 등의 운동시설, 남·녀 구분 독서실, 작은도서관 등의 학습공간, 주민카페, 게스트하우스 등이 들어선다. 견본주택은 이마트 이천점 맞은편에 마련된다.



키우자! 키우자! 기부심 농부심

기부라는 자부심이 커지면
농부라는 자부심도 커지니까
고향사랑기부제로 키우세요
당신의 기부심을, 눈부신 농부심으로

2023년 1월 1일부터 고향에 기부하면
농축산물을 담례품으로 드립니다



광고모델 백종원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이성희 회장

기부하여 혜택받고 내 고향 살리는 고향사랑기부제

고향사랑기부제란?

개인이 자신의 주소지를 제외한 원하는 지자체(고향 등)에 기부하면 기부자에게 세제 혜택과 기부금의 일정액을 담례품으로 제공하는 제도

고향사랑기부 신청 방법

- > 시행 : 2023년 1월 1일
- 온라인 : 정부 종합정보시스템(고향사랑 e음)
- 오프라인 : 농협은행·농축협
- * 세액공제 : 10만원 이하(100%), 10만원 초과분(16.5%)
- * 기부한도액 1인당 연간 500만원 이내(법인 기부 불가)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응원합니다

“과거를 교훈으로… 후손에 역사 알리는 게 우리 의무”

이중근 부영그룹 창업주 회장

‘6·25전쟁 1129일’ 등 집필
전쟁기념관 유엔참전비 건립
국군장병 지원도 아끼지 않아
“미래 준비 위해선 역사 알아야”



이중근(오른쪽) 부영그룹 창업주 회장이 집필한 ‘6·25전쟁 1129일’.



이라고 설명했다.

이 회장은 “사실을 그대로 정리해 우리의 소중한 역사를 후손들에게 바로 알게 하는 것은 나처럼 나이 든 사람들의 의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가 역사를 바라보는 시각은 그의 행보에서도 드러난다. 부영그룹은 6·25전쟁 참전국들과 참전용사에 대한 감사함을 표하기 위해 2015년 용산전쟁기념관에 유엔참전비의 건립비용을 지원했다. 참전비는 국가별 상징 작품에 승리의 상징

은 오늘날, 그의 저서에 관심이 쏠린다.

‘6·25전쟁 1129일’은 전쟁 동안 북한의 남침, 유엔안보리 특별회의 개최, 트루먼 미국 대통령의 해·공군 작전 승인 등 명료한 사실들을 국내·외로 나눠 객관적으로 서술했다. 남·북한뿐만 아니라 미국·중국·유엔 등 관련국들의 입장, 전환을 사실 그대로 다뤄 6·25전쟁을 입체적으로 보여준다.

이 회장은 책 출간 당시 6·25전쟁이 북침인지 남침인지를 논해야 하는 현실에 우려를 표했다. 1980년대 브루스 커밍스 시가고대 석좌교수에 의해 시작된 수정주의는 6·25전쟁이 한반도 분단의 균열이 내전 형태로 터진 것이라고 말한다. 이에 대해 이 회장은 6·25전쟁이 명백한 남침

“과거를 알아야 그것을 교훈으로 삼을 수 있다. 모방의 연속인 역사 속에서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역사적 사실 자체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

이중근부영그룹창업주회장이 역사를 대하는 태도다. 우리나라 역사를 알리고, 호국보훈하는 것이 그에게는 평생 사명이다. 특히 그가 집필한 ‘6·25전쟁 1129일’은 세계사의 중심을 한국에 두고, 역사적 사건에 대한 해석을 배제한 채 양·음력과 간지(干支), 요일, 일기를 그대로 나열하는 편년체로 서술했다. 역사에 대한 시각은 다를 수 있지만, 사실은 한 가지라는 이 회장의 신념이 담겼다. 정전 70주년을 맞

인 월계관과 참전용사에게 바치는 글이 담겨 제작됐다.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국군 장병들에 대한 지원도 아끼지 않는다. 이 회장은 매년 군장병들의 사기 진작과 복지 향상을 위해 위문품과 그의 역사 저서들을 전달해왔다. 최근에는 공군 하늘사랑재단에 100억 원을 기부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부영그룹은 국내·외 다양한 분야에서 지금까지 1조1000억 원 규모의 비용을 기부하는 등 선한 영향력 행사에 앞장서고 있다.

부영그룹 관계자는 “이번 정전 70주년을 맞이해 한 권의 책에 담긴 1129일의 숭고한 희생에 대한 기록을 읽어보고, 책이 전하는 역사적 의미에 대해 생각해볼 시간을 갖는 것도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회장은 이 책 외에도 △광복 1775일 △미명 36년 12768일 △여명 135년 48701일 △우정체로 쓴 조선개국 385년 등 여러 역사서를 편저하는 등 우리 역사 바로 알리기에 노력하고 있다.

박민웅 기자 pmw7001@

국순당, 경포 반려해변 정화활동



국순당은 23일 반려해변으로 입양한 강원도 강릉 경포해변에서 해변정화활동과 바른음주 캠페인, 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한 어식백세 홍보활동을 진행했다고 25일 밝혔다.

반려해변 정화활동에는 국순당 임직원 20여 명이 참석했다. 7월 1일 개장을 앞둔 경포해수욕장 일대에서 쓰레기 수거 등 해변 정화활동과 수거한 해양쓰레기 종류와 수량 조사를 수행했다.

수거된 폐기물은 강릉시청의 지원을 받아 적정 처리하고, 조사 데이터는 향후 해양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자료로 활용된다. 또 경포해변 방문객을 대상으로 해변 환경 지킴이 캠페인 활동도 펼쳤다.

국순당은 지난 4월 강릉 경포해변을 강원도 최초로 반려해변으로 입양했다. 반려해변 제도는 해양수산부가 주관하고 해양환경공단이 위탁운영하며 기업단체학교 등이 특정 해변을 자발적으로 신청하여 자신의 반려동물처럼 가꾸고 돌보는 해변 입양 관리 프로그램이다.

이날 강릉 경포해변 정화활동 이외에도 국순당은 반려해변 프로그램에 대한 소개 및 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한 어식백세 캠페인 관련 안내문을 배포했다.

‘어식백세 캠페인’은 수산물을 많이 섭취(魚食, 어식)하여 백세(百歲)까지 건강을 유지하는 해양수산부 추진 대국민 수산물 소비 촉진 캠페인이다.

유승호 기자 peter@·사진제공 국순당

하나금융그룹, 해병대 장병·순직자 자녀에 장학금

하나금융그룹이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해병대 장병과 순직자 자녀들을 위한 장학금 전달식을 가졌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전달식을 통해 해병대덕산장학재단에 전달되는 1억5000만 원은 해병대 장병과 순직자 자녀들의 학업 지원을 위한 장학금으로 쓰일 예정이다.

전달식에는 함영주(사진 왼쪽) 하나금융 회장, 이은형 하나금융그룹 부회장과 김계환(오른쪽) 해병대 사령관 등이 참석했다. 함 회장은 “국가 최전선에서 헌신하고 있는 장병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학업을 포기하지 않도록 하나금융그룹은 마중물 역할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하나금융은 이번 장학금 지원에 더해 장병내일준비자금 등을 통한 해병대장병들의 자산형성지원, 군 간부를 위한 군인 생활안정자금대출과 노후를 대비한 자산관리 세미나 등도 지원할 계획이다.

유하영 기자 haha@·사진제공 하나금융그룹

포스코이앤씨, 인천 거주 6·25 참전용사에 감사 행사

포스코이앤씨(옛 포스코건설)가 지난 22일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6.25 참전 유공자와 그 가족들에게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하고자 감사 행사를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

인천보훈지청과 함께 한 이번 행사에는 인천 연수구에 거주하는 참전 유공자와 유가족들을 포스코이앤씨 송도사옥으로 초청해 한성희 포스코이앤씨 사장과 임직원들이 직접 어르신들에게 식사를 대접하고 직원 밴드봉사단이 음악공연을 펼치는 가 하면 감사편지를 낭독하고 꽃을 달아드리는 등 감사의 마음을 전달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와 함께 어르신들의 취미 활동인 도



한성희(오른쪽) 포스코이앤씨 사장이 6·25 참전 어르신께 꽃을 달아 드리고 있다. 사진제공 포스코이앤씨

자기 만들기 등을 돕기 위해 임직원들과 어르신들이 한 조를 이뤄 도자기 접시를 함께 만들면서 따뜻한 소통의 시간도 가졌다. 박민웅 기자 pmw7001@

베트남서 ‘K-푸드’ 전도사 나선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

동남아 수출확대 전략도 논의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베트남을 찾아 K-푸드 페스티벌을 비롯해 스마트팜 수출 기업을 찾으며 수출 확대를 위한 다양한 행보를 펼쳤다.

정 장관은 21일 스마트팜 수출기업 ‘어벨브’를 찾아 태국과 동남아 지역 수출 확대를 위한 전략을 논의했다. 이원준, 박규태 어벨브 공동대표는 올해 5월 포브스가 발표한 ‘아시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30

세 이하 리더’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22일에는 하노이 국가컨벤션센터(NCC)에서 열린 ‘2023 베트남 K-푸드 페스티벌’을 찾아 삼양 CJ제일제당, 농심, 풀무원 등 수출기업과 현지 진출기업, 케이마켓 등 현지 대형유통매장 관계자들을 만났다. 24일에는 하노이 빈콤몰 로얄시티점을 방문해 베트남 인플루언서인 프영, 자한 등과 떡볶이 조리 시연을 하고 현지 소비자들에게 쌀음료, 배 등을 소개했다. 정 장관은 “베트남은 아세안 최대 농식품



정황근(오른쪽)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베트남 현지에서 유통매장을 찾아 K-푸드 홍보하고 있다. 사진제공 농림축산식품부

수출시장으로, 한류의 인기와 함께 K-푸드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며 “베트남 소비자들에게 한국의 식품과 문화 등을 자연스럽게

전하고, 한류 열기를 에너지 삼아 농식품 수출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세종=이해근 기자 pinvol1973@

SNS 설전서 시작된 머스크·저커버그 격투기 대결 “성사되면 수익 10억 달러 세기의 이벤트”

UFC 회장 “둘 다 진지한 상황” 머스크 “실제 일어날 수 있는 일”

일론 머스크(왼쪽 사진) 테슬라 최고 경영자(CEO)와 마크 저커버그(오른쪽) 메타 CEO 간 세기의 대결 성사 여부에 전 세계 관심이 쏠린 가운데 머스크 CEO가 입장을 내놨다.

24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

면 머스크 CEO는 트위터 스페이스를 통해 “저커버그와의 케이지(철창) 대결은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밝혔다. 그는 “아직 훈련을 시작하지 않았다”면서도 “성사되면 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한 트위터 이용자는 메타가 ‘스레드’라는 앱을 출시한다는 소식이 21일 ‘그게 트위터의 맞수가 될까’라고 머스크 CEO에게 질문했다. 그러자 머스크



CEO는 “지구가 조만간 저커버그 손가락에 지배당할 듯”이라며 비꼬는 듯한 답변을 달았고 다른 이용자는 “저커버그는 주짓수를 한다”며 농담조로 말했다.

문제는 그다음에 발생했다. 머스크 CEO가 “저커버그 CEO와 케이지에서 붙을 준비가 됐다”고 말하자 저커버그 CEO

가 인스타그램을 통해 “위치 보네”라고 응수한 것이다. 이후 두 사람은 데이나화이트 UFC 회장과 전화통화를 하고 서로 대결에 진지하다는 입장을 공유했다. 화이트 회장은 22일 TMZ스포츠와의 인터뷰에서 “둘 다 ‘그래, 한 번 해보자’고 말했다”며 “전 세계 역사상 가장 큰 싸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CNBC방송은 두 사람의 대결이 성사된다면 경기 수익이 플로이드 메이웨더와 코너 맥그리거 경기 당시 기록한 6억 달러를 넘어 10억 달러(약 1조312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고대영 기자 kodae0@

인사

- ◆이투데이 △경영기획실장 신동민 △편집국 산업부장(부국장) 흥기범
- ◆특허청 △반도체심사추진단장 박재일

부음

- ▲연병해(대한배구협회 고문) 씨 별세, 오숙자 씨 남편상, 연동희(삼성SDI 연구원)·남희(HMM 태국법인장) 씨 부친상, 한혜진·옹지숙 씨 시부상 = 24일, 서울 강남구 일원로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3호, 발인 27일 오전 8시, 02-3410-3151
- ▲황부익 씨 별세, 박계술 씨 남편상, 황영찬(서울시체육회 협력관)·영미(수원 명당초교 교감)·영희·영진(신우플래닝 대표) 씨 부친상, 강희석(DB생명 정동지점장)·김대정(제주항공 기장) 씨 장인상 = 25일,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 34호실, 발인 27일 오후 1시, 02-3010-2000
- ▲김희환 씨 별세, 김태균(미디어펜 편집국장)·태형 씨 부친상, 박소연 씨 시부상 = 24일 성남시 의료원 장례식장, 발인 27일, 031-738-7000
- ▲윤석주 씨 별세, 윤기영(스포츠서울 편집부 차장)·기창(아시아나항공 안전정비팀 과장)·미영·영신·여림·미정 씨 부친상 = 25일, 서울 은평성모병원 장례식장 8호실, 발인 27일 오전 5시, 02-2030-4444

마감 후



김준형 산업부 부장대우

국내최초의 경차인대우 국민차 티코(1991년)가 등장한 지 30여 년이 흘렀습니다. 그 사이 대한민국 경차는 발전 대신 설 자리마저 위협받고 있습니다. 새 모델이 등장하면 반짝 시장이 커졌다가, 다시 원래 위축된 시장으로 돌아 가는 상황을 반복 중이지요.

먼저 제조사 입장에서 경차는 돈 되는 차가 아닙니다. 제네시스 1대의 영업이익이 쏠나타 4대와 맞먹는다는 사실만 봐도 그렇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경차는 100% 위탁 생산 중입니다. 현대차는 광주글로벌모터스에, 기아는 동희오토에 생산을 맡깁니다. 대기업 직원의 값비싼 인건비와 복지비용을 투입해 값싼 경차를 만들었다가는 도무지 남는 게 없기 때문이지요. 막대한 연구개발비를 쏟아부어 후속

일 줄을 몰랐던 것이지요. 실제로 현대차 캐스퍼 1.0 터보의 경우 공인연비는 L당 12.3~12.8km입니다. 준중형차인 아반떼(14.8~15.4km/L)에도 못 미치는 셈이지요. 그뿐인가요. 내뿜는 탄소는 중형 하이브리드 자동차보다 높은 수준입니다.

가격도 싸지 않습니다. 초기 티코는 200만 원대 가격을 앞세워 등장했으나 30여 년이 지난 요즘 경차는 기본 가격만 1000만 원을 훌쩍 넘습니다. 법 개정 따라 선택이 아닌 필수 옵션을 쓸어 담다 보니 가격이 훌쩍 났지요.

그뿐인가요. 준중형차와 중형차가 각각 윗급을 넘볼 만한 크기로 덩치를 키웠지만, 경차는 여전히 차 길이 3.6m, 배기량 1000cc 규정에 묶여있습니

존재의 당위성 무너진 경차

모델도 개발하지 않습니다. 투자비를 뺀 나머지 버거를 만큼 차 가격이 낮았습니다. 자연스레 후속이나 경차를 위한 신기술 개발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경차의 경쟁력은 다시 하락합니다. 악순환이 반복되는 셈입니다.

수출도 쉽지 않습니다. 나라별로 경차 기준이 다릅니다. 우리나라에서 잘 팔렸던 경차가 수출현장에서 경차로 인정받지 못하기도 합니다.

고객입장에서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먼저, 값싸고 연비 좋은 경제형 자동차라는 인식이 무너진 것인데요. 1990년대 경차는 1L로 20km를 훌쩍 넘게 달린다고 광고했지요. 차와 엔진이 작은 만큼 연비가 좋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런데 '에너지소비효율 시험방법 및 표기법 개정'이 시행된 이후 경차의 실제 연비가 10km를 갖는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경차 주인은 물론 국민적 공분도 일어났습니다. 연비가 나쁘다는 건 알았지만, 이 정도

다. 그나마 차 길이와 엔진 배기량 기준을 소폭 개정한 게 이 수준입니다.

이 때문에 이제 경차에 대한 제도와 규정, 혜택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이어집니다. 물론 경차가 시장에서 지속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이해는 됩니다. 구매는 물론 유지 단계에서 누릴 수 있는 세제 혜택과 통행료 및 주차료 혜택이 적지 않기 때문이지요.

그런데도 경차에 대한 혜택을 단계적으로 줄이는 동시에 시장에서 퇴출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끊이지 않는 이유는 분명 있습니다. 이제 경제형 자동차라고 부를 수 없는 경차가 심지어 탄소배출은 더 많기 때문입니다.

이 시점에서 냉정하게 경차 '존재의 당위성'을 생각해 봅시다. 많은 전문가가 더는 경제적이지 않은 작은 차에 국민 세금까지 쏟아부어 가며 세제 혜택과 유지 단계에서 혜택, 주차 혜택까지 줘야 할 명쾌한 이유를 찾지 못했습니다. 당신은 그 이유를 찾으셨나요? junior@

'최고금리' 검토할 만하다

박덕배의 금융의 숲



국민대 겸임교수 국제통상학과

저신용자에게 '최후의 보루' 역할을 하였던 대부업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자 이들의 금융 소외가 심해지면서 불법 사금융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금리 상승으로 조달 비용은 커졌지만, 대출 금리는 최고금리에 묶여 경영 수지를 맞추기 어려운 대부업이 개점휴업 상태로 있거나, 아예 문을 닫고 있다. 이른바 '최고금리인하의역설'이 작동하고 있다.

이에 최고금리도 시장 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용하지는 시장금리연동 제도가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하지만 최고금리 수준이 일정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기대한 효과가 잘 나타날지도 불확실할 뿐 아니라 심각한 자금양극화 속에서 국가의 경제와 금융을 우선 생각해야 하는 정책당국과 만성적인 신용경색을 겪고 있는 저신용자 사이의 견해 차이가 커 적합한 최고금리 수준을 정하기도 쉽지 않다.

따라서 최고금리 정책에 더욱 신중한 접근이 요구되는바, 우리와 비슷한 상황을 겪으면서 해결하려고 고민한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사례가 시사점을 줄 수 있다. 남아공의 대부업은 오랫동안 엄격한 대부업법(The Usury Act) 때문에 활성화되지 못하다가 1992년 12월 정부가 소액 단기 고리 대부업에 관해 예외 조항을 허용한 이후 급성장하였다. 전 지역에 걸쳐 소액 대부업자들이 우후죽순 생겨나면서 대부업은 하나의 큰 산업으로까지 발전하였다. 초기에는 은행시스템에 접근되지 않는 수많은 서민에게 긍정적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도시 고용자들만을 대상으로 영업하면서 가난하고 소득이 낮은 사람들은 고금리 사금융에 접근할 수밖에 없게 되는 등의 의도하지 않은 방향으로 전개되었

다. 적절한 관리·감독과 금융소비자 보호가 부족한 상태에서 금융 소외가 심해졌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1999년 6월 규제기관을 도입하여 소액 대부업자들을 등록시키고, 은행 우

대부업은 저신용자에 최후 보루 정치적 금리인하 '시장파괴' 불러 당사자 참여... 합리적 수준 찾길

대 금리에 연동된 최고금리 제도를 도입하였다.

그런데도 행정관리 비용이 매우 큰 소액 대부업체는 비용을 커버할 수 없어 폐업하거나 지하 불법 영업을 함에 따라 소액 대부 시장이 위축되면서 금융 소외로 발생하는 문제가 매우 커졌다.

당시 세계은행 산하 연구기관인 CGAP(The Consultative Group to Assist the Poor)는 금융 소외를 겪고 있는 사람들은 금리 수준 그 자체보다도 당장 대출 여부가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남아공 최고금리 제도의 개선을 요구하였다.

이에 2005년 남아공 정부는 국가 신용법(National Credit Act)을 제정하면서 최고금리 제도를 개선하였다. 2007년부터 상무부는 다양한 금융전

문가와 업계 사람들로 구성된 NCR(National Credit Regulators)과의 협의를 통하여 최고금리를 결정하고 있다.

우리의 기준금리에 해당하는 레포(Repo) 금리에 연동하면서도 금융분야의 전문가, 이해 당사자인 자금수급자의 의견을 반영하고, 소액 대부의 원가분석과 시장 상황을 고려하여 일정 기간마다 금융상품별로 차별적인 가산금리를 덧붙여 최고금리 수준을 정하고 있다.

2023년 상반기 현재 남아공의 최고금리는 연이율로 주택담보대출은 15.5%, 무담보대출 24.0%이며, 첫 번째 단기 소액 대출은 60.0%(두 번째부터는 36%) 등이다. 그뿐만 아니라 NCR은 금융 소외 해소를 위한 공정하고 비차별적인 시장 규제 해소를 위해 다양한 기교 역할도 하고 있다.

남아공의 최고금리 제도는 중장기적으로도 남아공뿐만 아니라 아프리카 국가 전체에 금융 소외 해소와 경제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기대하고 있으며, 마이크로파이낸싱의 새로운 모델로서도 주목받고 있다. 비록 우리와 문화적, 사회적, 경제제 조건에서 큰 차이가 있는 먼나라 제도이지만 전문가와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과 시장 상황을 잘 반영해 최고금리를 결정하고 있는 데 주목해야 한다.

그동안 우리나라 최고금리는 일몰기간이 다가올 때마다 정치 논리가 작용하면서 일반적으로 인하되어만 왔다. 이제 우리도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하는 우리나라의 최고금리 제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남아공의 NCR을 벤치마킹하여 우리나라 최저임금위원회와 같은 '최고금리위원회'도 생각해 볼 만하다. 무엇보다 정치권의 이해가 간절하다.

"우리 3지대에서 만나자"

기자수첩



이난희 정치경제부

요즘 기자들끼리 모이면 우스갯소리로 하는 말이 있다. "우리 3지대에서 만나자."

국민의힘 출입 기자들은 온종일 회의와 특위를 돌아다녔는데 '내가 무엇을 했는지 모르겠다'라는 허망함이, 더불어민주당 출입 기자들은 몇 달간 이어진 '심리적 분당' 사태에 진절머리가 났다는 이유에서다. 이른바 '현타'가 와서 하는 말인데, 웃음 섞인 대화 속에는 뼈가 있다.

모 정치권 인사의 말을 빌리자면 "지난 20대 대선에서 '역대급 비호감 대선'을 치렀을 때부터 양당은 무너지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역대급 오리무중 판세', '역대급 초박빙' 등 다양한 '역대급' 별명이 붙었던 그때 코로나 19로 지친 자영업자들을, 취업이 안 되는 청년들을 위로해줄 영웅은 보이지 않았다.

이 때문일까. 오히려 제20대 대통

를 세우고 고성을 질러댔다. 이에 평론가들로부터 '최악'이라는 성적표를 받아들었다. 양당을 향한 피로감에 제3당 신당 창당이 힘을 받는 추세다.

그렇다면 제3지대는 성공할까. 제3지대 만남에 수긍하는 기자도 고개를 가우뚱하는 의문이 자리한다. 그럼에도 '투표의 힘'은 존재한다고 믿는다. 1956년 5월로 돌아가 보자.

당시 대선에서 유력한 야당 후보였던 신익희 후보가 전주로 가는 열차에서 심장마비로 타계하자 이승만 독재정권하에서 변화 요구로 꿈틀대던 민심은 한순간에 무너졌다.

하지만 시민들은 죽은 신익희 후보에게 20%가량의 표를 던졌다. '신익희 추모표'라 불리는 현실에서는 쓸모 없는 무효표였지만, 엄중한 민심의 경고장이었다. 1960년 이승만 전 대통령은 4·19혁명이 일어나 물러나게 된다.

이투데이, 밀투데이

☆ 이당(怡堂) 안병욱(安秉勳) 명언 "행복과 불행은 같은 지붕 밑에서 살고 있으며 성공의 옆방에는 실패가 살고 있다." 철학자. 자유당 독재 정권의 언론 탄압에 굴하지 않고 그는 사상계(思想界)지 주간으로 있으면서 방향 감각을 잃은 현대인과 현대 사회에 새로운 가치관을 세워 주고자 솔한 논문을 발표하며 한국의 지성인 잡지로 성장시키는데 앞장섰다. 숭실대 교수로 재직하며 많은 철학서를 발표한 그는 오늘 태어났다. 1920~2013.

☆ 고사성어 / 백유음장(伯兪泣杖) '백유가 매를 맞으며 운다'라는 뜻. 한(漢)나라 때 효자 한백유(韓伯兪) 고사에서 유래한 말. 설원(說苑) 건본(建本)편에 나온다. "백유가 잘못을 저질러 어머니가 매질하자, 백유가 울었다. 어머니가 '전에 매를

들 때는 운 적이 없었는데 지금 우는 까닭은 무엇인가'고 물었다. 백유가 '전에 죄를 지어 매를 맞을 때는 언제나 그 매가 아팠는데, 지금은 어머니의 힘이 모자라 능히 저를 아프게 하지 못합니다. 이런 까닭으로 울었습니다.[兪得罪 嘗常痛 今母之力不能 使痛是以泣]"라고 대답했다."

☆ 시사상식 / 갈라테이아 효과 (Galateia effects)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조각가 피그말리온의 이름에서 유래한 심리학 용어다. 그가 아름다운 여인상(갈라테이아)을 조각하고 그 여인상을 진심으로 사랑하자, 여신(女神) 아프로디테(비너스)가 감동해 조각에 생명을 주었다. 타인의 기대나 관심으로 인해 능력이 오르거나 결과가 좋아지는 현상을 피그말리온 효과라고도 한다.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능력을 믿을수록 이뤄질 가능성이 더 커진다는 것을 암시한다.

채집/정리: 조성권 국민대 경영대학원 객원교수, 맛있는 숲 연구소장

마약은 출구가 없다

오늘(26일)은 '세계 마약 퇴치의 날'이다. 1987년 국제연합(UN)이 마약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마약 남용이 없는 국제 사회를 구축하기 위해 지정한 기념일이다.

우리나라도 2017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매년 6월 26일을 법정 기념일로 정했다. 당시 '마약청정국'이었던 우리나라에서 굳이 법정 기념일을 정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했지만, 필자의 오랜 고민이었다. 유엔에서는 인구 10만 명당 마약류사범이 20명 미만일 때 마약 청정국 지위를 부여하는데, 한국은 2016년에 이미 이 수치를 넘어섰다.

그럼에도 많은 사람이 한국을 상당 기간 마약 청정국으로 인식해왔다. 마약에 빠진 사람들은 일반인들과는 다른 사회적 '막장'에 속하는 이들이나 재벌 혹은 문화예술계 사람들 같은 특수한 계층이라는 막연한 오해 때문이었다. 그렇다. 보통의 사람들에게 마약

은 그저 남의 이야기거나, 영화 속 이야기로만 여겨졌던 것이다. 그런데 10대 청소년이 학교에서, 20대 초반 청년이 군대에서 마약을 한다고 한다. 최근

에는 공부방 용도로 오피스텔을 빌려놓고 2억 원 대 마약을 유통한 고교생이 구속 기소되기도 했다. 어쩌다 이 지경이 됐을까. 일단 마약을 구하는 것이 너무 쉬워졌다. 텔레그램, 트위터 등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메신저만 깔면 스마트폰으로 소매상들을 곧바로 접할 수 있다고 한다. 가격도 떨어졌다. 대마 1회 분량이 2만~3만 원, 필로폰 1회 투약분이 5만 원짜리라고 한다. 치맥 할 돈으로 마약을 할 수 있다는 말이 그냥 나온 말이 아니다.

이렇게 쉽고 싸게 마약을 구할 수 있다 보니 마약에 노출되는 연령대도 갈수록 낮아지고 있다. 올해 마약을 투약하다 가족 신고로 잡힌 한 여중생은 텔레그램을 통해 마약 판매자와 접촉하고, 특정 장소에 마약을 숨겨 놓은 뒤 구매자가 찾아가는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필로폰 40만 원 어치를 샀다. 왜 마약을 구매했냐는 질문에 이어

데스크칼럼

문선영
디지털뉴스부장



중생은 “호기심 때문에”라고 답했다. 중학생이 호기심 때문에 마약 구매를 시도했다는 것도 놀랍지만, 그 시도가 실제 매수로 이어질 수 있었다는 것은 마약이 일상 속에 얼마나 깊숙이 침투해 있는지를 보여준다.

여기서 한 가지 더 따져볼 문제가 있다. 어쩌다 중학생이 마약에 호기심을 갖게 됐을까. 이 물음에 대한 답을 찾으려면 당장 인터넷에 마약이나, 마약과 관련된 은어를 검색해 볼 필요가 있다. 최근 마약과 관련한 온라인 콘텐츠 단속이 강화됐다

고 하지만, 필자가 직접 온라인상에 마약 관련 검색을 시작하자마자 커뮤니티는 물론 각종 SNS와 동영상 콘텐츠에서 마약과 관련한 경험담을 심심치 않게 찾아

볼 수 있었다. '마약을 절대 하지 말라'는 글 제목과 다르게 '마약을 하면 우주가 떠있는 기분이다' '계속 웃음이 나온다' '뒤통 할 수 있을 것 같다' 등의 묘사로 자신의 마약 경험을 상세히 설명한다.

정부가 심각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 하지만 더 능동적이어야 한다. 그동안 마약은 경찰이나 검찰이 범죄 차원에서 접근해왔다. 하지만 이제는 단속과 처벌만으로 마약을 우리 사회에서 몰아내기에는 늦었다.

'마약 청정국'이었다는 과거의 환상에서 벗어나 일상 속에 스며든 마약을 인정하고, 가정과 교육기관에서도 나서야 한다. 마약을 '놀이문화'로까지 받아들이고 있는 현 세대에서 마약이 무엇인지, 마약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쁜지, 마약으로 인한 피해가 얼마나 큰지 '적나라한' 교육이 절실하다. 우리 아이들을 마약이라는 출구 없는 지옥에서 구할 수 있는 골든타임은 바로 지금이다.

한국, 청정국 지위 오래전 상실 일상속 청소년 무분별하게 노출 교육과정서 폐해 시급히 다뤄야

특허, 특!

주목되는 '변리사 소송대리'

수정란을 어미닭이 21일간 품어주면 알 속에서 병아리가 자라 껍질을 깨고 나온다. 병아리가 알 속에서 껍질을 쪼아대 껍질이 깨지기 시작하면, 어미닭도 밖에서 쪼아주면서 거들어준다. 그렇지만 매년 10억 마리의 닭을 소비하는 한국에서 '줄탁동시'의 추억을 가진 닭을 만날 가능성은 희박하다. 치킨의 닭이든 삼계탕의 닭이든 그들의 고향은 공장의 부화기이다. 수정란이 18일의 발육시기를 지나 병아리로 자라면 부화기는 온도를 낮추고 습도를 높여서 껍질을 쉽게 깰 수 있도록 어미닭의 '탁'을 대신한다.

껍질은 수정란을 보호하지만 병아리로 자란 뒤에는 산소의 공급을 막는 벽이 되므로, 제한된 시간 안에 깨지 못하면 병아리는 살지 못한다. 국가경제도 발전하는 과정에서 성장을 뒷받침하던 제도가 다음 단계에서는 장벽이 된다. 이상황에서 제도를 개선하려는 노력은 기존 제도에 안주하려는 힘과 충돌하기 마련인데, 유례없이 급격한 경제성장을 이룬 한국은 이 충돌 또한 빈번하

고 치열하다. 그러다보니 가장 선진적인 제도가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규범과 어긋나는 제도와 섞여 있곤 한다.

미국, 유럽연합과 FTA를 체결하면서 특허법을 비롯한 여러 제도를 개정한 한국은 현재 영국과 FTA 재협상을 진행 중이다. 영국은 유럽과 체결한 FTA 협상에서도 관철시킨 '특허침해에 대한 변리사 소송대리'를 검토 중이며, 이는 "영국에서 변리사의 소송 대리를 허용함에 따라 많은 중소기업의 사법 절차 접근성이 크게 향상됐다"는 입장을 반영한 주장이다. 영국이 한국 중소기업을 걱정해서는 아니고, 그만큼 영국의 제조업에서 중소기업이 중요하다는 의미일 것이다. 부화기의 온·습도 조절도 닭의 껍질 쪼아주기처럼 병아리를 살리려는 눈앞의 목표는 같지만, 멀리 보면 치킨요리와 모성의 발현으로 큰 차이가 난다. 한국 중소기업을 위한 어미닭의 역할은 한국 국회와 정부가 해야 한다.

문환구 두리탐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

사설

장마철, 엘니뇨 경계하며 철저한 대비를

장마철이 시작됐다. 기상청에 따르면 제주 한라산 일부엔 어제 오후 5시 30분 현재 이미 160mm 안팎의 비가 쏟아졌다고 한다. 장맛비를 대동한 정체전선은 오늘 전국적으로 비를 뿌린다.

오늘도 많은 비가 내릴 지역은 제주 산지와 남해안이지만 중부권을 비롯한 다른 지역도 시간당 20~40mm 장맛비가 내릴 전망이다. 호남, 경남, 경북 북부 내륙, 중부 지방(강원 영동 제외)은 오늘 오후부터 내일 오전까지 호우 피해가 우려된다고 한다. 오늘 출근길에 집중호우 피해가 발생할지도 모른다는 예보도 있다. 정체전선 움직임에 따라 호우 지역이 조금씩 바뀔다는 점도 대응을 어렵게 한다.

매년 찾아오는 장마가 새삼스러울 것은 없다. 하지만 올해 장마는 초장부터 전국적으로 비를 뿌린다는 특이점이 있다. 상권계 즉시 전국을 강타하는 셈이다. 이런 현상은 50여년 기상관측 이래 이번이 7번째라고 한다.

장마철은 통상 6월 중순쯤 제주도에서부터 비를 뿌리기 시작해 북상과 남하를 반복하며 한 달 가량 이어진다. 요즘엔 기상이변이 잦아져 출몰 시기와 기간, 양상 예측을 불허하고 있다. 2020년엔 장마가 8월 중순까지 이어지면서 역대 최장 기록을 경신했고, 2021년엔 평년보다 늦게 시작해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17일에 그치면서 1973년 이후 3번째로 짧은 것으로 기록됐다.

지난해엔 장마가 끝난 후 다시 장마가 시작되는 2차 장마 현상이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8월

엔 115년 만의 폭우가 내리기도 했다. 서울 서남권 일부 지역에서선 반지하 주택 주민 여러 명이 사망하는 불상사까지 발생했다. 강남구 일대도 물에 잠겼다. 태풍 힌남노로 인해 포스코 포항제철소가 49년 만에 처음으로 전면 가동중단 사태를 겪기도 했다.

올해는 4년 만에 찾아온 엘니뇨가 우려를 더한다. 엘니뇨는 적도 무역풍이 약해지면서 동·중 태평양 수온이 평년 대비 높아지는 현상이다. 엘니뇨는 역대급 고온 현상 등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세계기상기구는 지난달 보고서를 통해 관측 이래 가장 더웠던 해로 기록된 2016년 기록이 5년 이내 깨질 확률이 98%라고 예상하기도 했다.

이번 정체전선은 21일 밤부터 일본 가고시마 현에서 낙뢰와 돌풍을 동반한 120mm 안팎의 장대비를 뿌린 바 있다. 일본 기상청은 토네이도 발생 가능성을 언급하며 '엄중 경계'까지 발령했다. 안 그래도 강력한 정체전선이 평년보다 뜨거운 바다를 지나 한반도에 상륙하기까지 덩치를 키운 것은 아닌지 걱정이다.

역대급 자연재해가 이젠 일상이다. 재난대비 청사전을 전면 재검토해야 '자연재해 공화국' 신세를 면할 수 있다. 지난해와 같은 불상사를 막으려면 대피방송 등 대응 및 구조 계획부터 총검토해야 한다. 위험지도 작성, 인프라 개선, 조기경보 시스템 구축도 서두를 일이다. 이번엔 엘니뇨 변수까지 있다. 유비무환의 자세로 대응해야 한다.

킬러 수능, 좋은 직업, 나쁜 노동

플러자

이명호
미래학회 부회장
태재연구재단 자문위원



올해도 어김없이 논란의 중심에 대학입시가 등장했다. 대학입시 시험인 수능을 불과 몇 달 앞두고 혼란을 주고 사회적 이목을 집중시키는 패턴도 비슷하다. 본인이거나 자녀, 친척 등 연관되지 않는 사람이 없을 만큼 모든 국민이 경험하는 대학입시 이슈는 정치인들에게는 이목을 집중시키는 좋은 먹잇감이다. 대통령도 가세하여 '킬러 문항' 배제를 지시했다.

대학입시 문제는 수십 년째 논란이 되는 사회적 병리현상이다. 한 해는 수능이 너무 쉬워 '물수능'이다, 그러던 다음해는 너무 어려워 '불수능'이다 하는 냉은탕을 반복하고 있다. 이렇게 되고 있는 것은 수능이라는 것 자체가 점수가 골고루 분포되도록 '변별력'을 가리는 상대평가이기 때문이다. 이 '변별력'을 중심점에 두고 학교 수업에 기울어지면 변별력이 없다고 하고, 변별력에 기울어지면 학원 사교육이 득세한다는 시소게임을 하고 있다.

'수능 성적=좋은 직업' 구조 깨야

문제는 수능이 학생들의 학업능력을 절대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인원이 정해진 좋은 대학, 좋은 학과에 들어갈 수 있는 학생들을 줄세우는 시험이라는 것이다. 왜 우리 사회는 이런 '줄세우기' 논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

정원이 정해진 의사 등 '좋은 직업'을 위한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이다. 수능은 좋은 대학, 좋은 학과, 좋은 직업에 내가 평생 종사할 수 있는가를 결정하는 일생일대의 관문이다. 이 관문에서 킬러 문항에 죽으면 '나쁜 노동'에 종사하는 이류인생이 결정된다. 나쁜 노동을 하지 않기 위해 인원이 정해진 직업을 갖기 위한 경쟁을 하는 곳이 학교이고, 교육이 되었다. 그리고 좋은 직업을 가질 수 있는 소수의 승자와 나쁜 노동을 해야 하는 다수의 패자가 갈리는 점이 수능이다.

이제 나만은 좋은 직업을 갖겠다는 욕망, 그 이외에는 인격이 없고 뭐고 필요없다는 사회적 미풍에서 깨어나야 한다. 소수의 좋은 직업이 무한 특권을 누리려는 사회

가 아니라 다수의 사람들이 나쁜 노동이 아닌 '좋은 노동'에 종사하는 사회를 만드는 꿈을 꾀야 한다. 우리나라 취업 현황을 보면 대략 20%가 전문직, 공무원, 대기업 등 고수익의 안정적인 직업을 갖고 있고, 80%가 중소기업 등 저임금의 불안정한 직업에 종사하고 있다. 그리고 이 관계는 정상적이지 않고 심하게 차별적이고 양극화되어 있다. 이런 사회에서 개인적 해결책이 바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위한 각자도생의 시작점인 대학입시, 수능이다. 따라서 '킬러' 수능의 문제는 좋은 노동의 증가로만 풀릴 수 있다.

좋은 노동을 위해서는 좋은 노동 관계가 필수적이다. 우리는 노동의 문제를 기업과 노동자 개별의 문제, 대립의 문제로 취급해왔다. 결국 기업별 노조 제도에서 원정 대기업과 하청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이라는 노동 시장이 양분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로 동일노동 동일임금이 지켜지지 않고, '귀족' 노동자가 '하청' 노동자를 착취한다.

'좋은 노동' 늘릴 때 입시문제 해결돼

일부만이 누리는 좋은 직업, 대다수의 나쁜 노동으로서는 사회의 경쟁력이 사라지게 된다. 결국 저성장, 저출산 등 미래의 희망이 줄어들고 있다. 좋은 노동은 사회 발전을 위한 조건이다. 노동 시간 단축으로 고용 확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균등화 등의 연대를 통해 모두가 좋은 노동을 하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

수능에 대한 관심만큼, 좋은 노동에 대한 관심, 사회적 논의와 협력이 일어나면, '킬러' 수능과 대학 입시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소될 것이다.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SK도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더 나은 지구와 인류의 미래를 위한 행동,
World EXPO 2030 BUSAN의 시작



자녀분이
아직 청년이라면
꼭 물어보세요

넌 그냥 청년이야?
0청년이야?

0청년 요금제 🥰

데이터 최대 50GB 추가
매달 1회 커피 & 영화 50% 할인 / 로밍 50% 할인

0청년 더 줌 프로모션 😊

무신사 만 원 쿠폰 / 테더링 데이터 2배
우티 택시 5천 원 할인 쿠폰 / 100% 당첨 기프트

0 day 😄

매달 10일, 20일, 30일마다 더 받는 푸짐한 혜택
(노트드 / 캐리비안베이 / 써브웨이 / CU & GS25 등)

무신사 및 우티 택시 쿠폰 증정: 6.1~8.31. | 테더링 데이터 2배 프로모션: 6.1~11.30. | 당첨 기프트 프로모션: 6.1~8.31.
0청년 요금제 및 0 day 혜택 관련 상세 내용은 T월드 홈페이지 참고. | 0청년 더 줌 프로모션 관련 자세한 내용은 'www.skto-event.co.kr' 에서 확인해 보세요

날짜	구분	시	구시군	읍면동	아파트명
6/26 (월)	접수	충북	보은군	보은읍	보은대신센텀캐슬
6/27 (화)	접수	서울	강동구	성내동	성내스페이스(공공지원민간임대) (~6/29)
		경기	화성시	신동	e편한세상동탄파크아너스2회차 1순위
		인천	서구	불로동	호반써밋인천검단 1순위
		부산	부산진구	양정동	하나스테이양정(민간임대) ♣
		광주	북구	양산동	양산동명지씨밋 1순위
		충북	보은군	보은읍	보은대신센텀캐슬 2순위
6/28 (수)	접수	충남	아산시	모종동	힐스테이트모종블랑루체 1순위
		서울	강동구	강일동	고덕강일3단지2차(사전청약) (~6/29)
		경기	남양주시	진접읍	남양주왕숙A19나눔형(사전청약) (~6/29)
		경기	안양시	비산동	인양매곡S1나눔형(사전청약) (~6/29)
		경기	화성시	신동	e편한세상동탄파크아너스2회차 2순위
6/28 (수)	접수	인천	서구	불로동	호반써밋인천검단 2순위
6/28 (수)	접수	광주	북구	양산동	양산동명지씨밋 2순위
		충남	아산시	모종동	힐스테이트모종블랑루체 2순위
		서울	강동구	성내동	성내스페이스(공공지원민간임대) (~6/29)
6/30 (금)	오픈	서울	강동구	둔촌동	둔촌현대수린나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동	청량리롯데캐슬하이루체
		경기	시흥시	은행동	시흥롯데캐슬시그니처(1BL)
		경기	시흥시	은행동	시흥롯데캐슬시그니처(2BL)
		인천	서구	연희동	호반써밋파크에디션
		부산	남구	대연동	대연디아아일랜드
6/30 (금)	오픈	대전	서구	탄방동	둔산자이아아파크
		경남	김해시	신문동	더샵신문그리니티

(주1) ♣=도시형 "♣=오피스텔
(주2) 1순위 청약접수 및 견본주택 오픈 단지는 색으로 표시
(주3) 오픈 단지는 사업진행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자료:부동산R114

